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Ⅲ : 2013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 책임연구원 : 박정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발 간 사 ■ ■ ■

2013년 발표된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서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지표개발 및 시민역량 체험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09년부터 국제시민성·시민교육연구(ICCS)와 공동으로 아동·청소년의 시민역량수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1년부터 3년 동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인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1차년도인 2011년에는 2009년 ICCS 조사결과에 대하여 기술통계 위주의 1차 분석을 실시하였고,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하여 ICCS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2차년에는 ICCS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인간 상관관계와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2차 결과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2011년 조사에서는 누락된 인지영역의 시민역량 조사문항을 포함하는 종합적 실태조사를 통해 인지·행동영역의 변인 간 영향관계를 파악함과 아울러 2009년 조사결과와의 시계열적인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3차년도인 2013년에는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관한 국내외 문헌조사와 전문가 워크숍 내용을 중심으로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영역별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아시아지역 설문지(ICCS 2009)를 이용하여 전국 중·고등학생 6,051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제고 및 영역별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후속으로 2016년 (IEA/ICCS) 제2차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에 공동 조사 및 연구팀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구결과 및 정책대안이 아동·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과 글로벌 시민역량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 재 연 드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I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3-34-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I : 정책분야 지원체계 구축 방안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13-34-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I : 2013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13-34-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I : 교육분야 지원체계 구축 방안	한국교육 개발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정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협력 연구기관	한국교육 개발원	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현영섭 (경북대학교 교수)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 IEA에서 실시한 ICCS 중 아시아 모듈 질문지를 활용하여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실태를 조사하고,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051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민주시민역량 하위영역 대부분에서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시민역량 수준의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대부분의 민주시민역량 하위영역에서 그 수준이 증가하거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아시아인으로의 정체감 수준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고 법률체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등 특정 영역의 시민역량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교내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과 민주시민역량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의 교내활동 참여경험과 민주시민역량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권위에 대한 순종태도를 제외한 모든 민주시민역량의 하위 영역에서 교내활동 참여경험 정도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과 아시아인 정체감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민주시민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별 차별화된 민주시민역량 개발 및 운영,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학생 참여활동 강화, 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사회적 지원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봉사학습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ICCS, 민주시민역량, 교내활동, 자원봉사활동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009년 IEA에서 실시한 ICCS의 조사 중 아시아 지역 설문지를 활용하여 한국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연구방법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조사,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활용하였음.
- 설문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6,489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분석에는 6,051명의 자료가 활용되었음.
- 문헌연구는 ICCS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해 아시안 지역 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파악하여 본 연구의 방향을 선정하였으며, 청소년 교내활동 및 청소년자원봉사 참여 관련문헌을 분석하여 조사도구 개발에 활용하였음.
- 이와 더불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와 세미나를 활용하여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대안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음.

3. 주요결과

1) 정부와 법에 대한 인식

- 정부와 법에 대한 인식은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등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은 청소년들이

권위적인 정부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하며,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는 사회에서의 권위적인 행동에 동의하는 정도를 의미함. 그리고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은 한국의 법률체계의 청렴성 정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수준을 의미함.

- 권위적 정부에 대해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성적이 상, 중 집단 보다는 하위권 집단이 특별/광역시 및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 보다는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들이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음.
-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와 관련해서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성적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특별/광역시 및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 보다는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이 더 높은 수준의 권위에 순종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권위에 순종적이었음.
-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성적이 상위권인 경우, 경제수준이 하위계층인 경우, 특별/광역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청소년들이 법률체계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법률체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강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법률체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었음.

2) 아시아의 정체성, 시민의식, 문화에 대한 인식

- 아시아의 정체성, 시민의식, 문화에 대한 인식은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아시아인 정체감,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등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는 한국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의미하며, 아시아인 정체감은 아시아 지역과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감 정도를 의미함. 그리고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은 좋은 시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의미함.
-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고등학생 보다는 중학생이, 성적이 하위권인 집단 보다는 성적이 상위권 및 중위권 집단에서 전통문화 보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음.
- 아시아인 정체감의 경우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아시아인 정체감 수준이 높았으며, 성적이 하위권인 청소년보다는 상위권 및 중위권 청소년이, 경제수준이 하위계층인 청소년보다는 상위계층 및 중간계층 청소년이 그리고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보다는 특별/광역시 거주 청소년들이 아시아인 정체감 수준이 높았음.

-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그리고 성적이 하위권 보다는 중위권, 중위권 보다는 상위권 청소년들의 아시아인 정체감 수준이 높았지만 그 차이는 비교적 크지 않았음.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및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점수를 유지하였지만, 아시아인 정체감의 경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3) 공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

- 공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에서는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공적서비스 부패에 대한 정도,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를 하위영역으로 하고 있음.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는 정치인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의미하며,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는 공적업무 영역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청소년들의 수용정도를 의미함. 그리고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는 공직을 얻기 위해 개인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의미함.
-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성적이 하위권인 집단 보다는 성적이 상위권 및 중위권 청소년들이 정치인의 도덕적 행동에 대해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음.
-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성적은 상위권 및 중위권 학생이, 그리고 거주 지역별로는 특별/광역시 및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들이 좀 더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
-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공적 업무에서 개인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음. 또한 성적이 낮은 집단 보다 중간 집단이 및 중간 집단 보다 높은 집단이, 경제수준 상위계층 및 중간계층보다 하위계층 집단이, 읍/면 거주 청소년 보다는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 및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보다는 특별/광역시 거주 청소년들이 공적 업무에서 개인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음.
- 학년별로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공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 관련 하위 영역 모두에서 척도 점수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치인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공적 서비스 영역에서의 부패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적업무에서 개인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4) 교내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민주시민역량

- 청소년들의 학교 내 참여활동 경험의 정도와 민주시민역량 하위 9개 영역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교내활동 참여경험과 정적상관을 갖고 있었으며,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의 경우 부적상관을 갖고 있었으나 그 강도는 매우 약했음.
- 청소년들의 교내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민주시민역량 차이를 검증한 결과 방과 후 학교의 예체능 활동의 경우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을 제외한 모든 민주시민역량 하위 영역에서 교내활동에 자발적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수준이 높았음.
- 민주시민역량 9개 영역 중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과 아시아인 정체감을 제외한 7개 영역에서 자원봉사 참여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수준이 높게 나타났음.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는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아시아인 정체감,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등 4개 민주시민역량 하위영역과 정적 상관을 갖고 있었으며,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 공적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등 2개 영역에서는 부적 상관을 보였음.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지속성과 민주시민역량의 관계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은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를 제외한 7개 민주시민역량의 하위 영역에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활동에 지속적인 참여의지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민주시민역량도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4.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시민역량수준의 불균형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특정 영역의 시민역량수준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임. 특히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경우 과도한 입시경쟁의 상황에 놓여 있어 민주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전체 아동·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 뿐 아니라 대상에 따라 특정영역의 프로그램, 예컨대 고등학생을 목표집단으로 하는 세계시민 혹은 아시아인으로서의 공동체 함양을

위한 다문화이해 프로그램이나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정치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이 시급하게 개선할 분야로서 사회지도층에 해당되는 정치인과 공직자의 도덕성과 부정부패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한편, 미래 한국의 정치지도자와 공직자로 성장할 아동·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공적서비스의 정확한 내용 이해와 중요성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 사회적 차원의 인식 개선을 적극적인 캠페인과 함께 학교와 평생교육 분야에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들이 학생 신분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은 매우 중요함. 학교는 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자 다양한 교육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임. 특히 교과활동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내활동에의 참여는 청소년들이 시민사회 운영의 원리와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이를 통해 교내 참여활동이 강화된다면 이들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은 학교에서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도 이루어짐. 이들의 시민역량 함양 역시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 질수 있음, 한국의 경우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식교육에 밀려 부차적이고 형식적으로 다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이를 위해 청소년 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수련시설 뿐 아니라 지역사회 관련기관이 협력하는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봉사활동 참여가 시민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경험적 증거는 많지만, 현재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이 단순한 업무보조나 시간을 채우기 위한 활동에 그친다면 봉사활동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단순한 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활동에 대해 소감을 적어보고 자신의 봉사 경험에 대해 토론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봉사가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이처럼 봉사활동을 통한 학습을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봉사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4
II. 조사의 개요	7
1. 표본설계 및 응답자의 특성	9
2. 조사도구	14
3. 분석방법	20
III. 정부와 법에 대한 인식	2
1.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23
2.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	28
3. 법률체제에 대한 인식	34
IV. 아시아의 정체성, 시민의식, 문화에 대한 인식	14
1. 전통문화 보전에 대한 태도	43
2. 아시아인의 정체감	49
3.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55
V. 공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	6
1.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65
2. 공공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71
3.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77

VI. 교내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민주시민역량	58
1. 교내활동 참여와 민주시민역량	87
2.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민주시민역량	99
VII. 결론	105
1. 연구결과 요약	107
2. 정책제언	111
참고문헌	115
부 록	119
1. 설문지	121
2. 기초통계표	129
ABSTRACT	197

표 목 차

<표 II-1>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9
<표 II-2> 모집단의 크기 및 목표 표본의 크기	10
<표 II-3> 조사 완료 학교 수	11
<표 II-4> 조사 표본 수	12
<표 II-5> 조사대상자의 특성	13
<표 II-6> ICCS 아시안 지역 질문지 측정 영역	15
<표 II-7> ICCS 아시안 지역 질문지의 구성 및 신뢰도	16
<표 III-1>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배경변인별	25
<표 III-2>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학년별	26
<표 III-3>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점수 비교	27
<표 III-4> 권위에 대한 순종태도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배경변인별	30
<표 III-5> 권위에 대한 순종태도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학년별	31
<표 III-6>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에 대한 수용 점수 비교	32
<표 III-7>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배경변인별	36
<표 III-8>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학년별	37
<표 III-9>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척도 점수 비교	38
<표 IV-1>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배경변인별	45
<표 IV-2>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학년별	46
<표 IV-3>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점수 비교	47
<표 IV-4> 아시아인 정체감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배경변인별	51
<표 IV-5> 아시아인 정체감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학년별	52
<표 IV-6> 아시아인 정체감 점수 비교	53
<표 IV-7>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배경변인별	57
<표 IV-8>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학년별	58

<표 IV-9>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척도점수 비교	59
<표 V-1>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배경변인별	67
<표 V-2>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학년별	68
<표 V-3>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척도점수 비교	69
<표 V-4> 공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배경변인별	73
<표 V-5> 공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학년별	74
<표 V-6>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 비교	75
<표 V-7>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배경변인별	79
<표 V-8>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학년별	80
<표 V-9>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 비교	81
<표 VI-1> 교내활동과 민주시민역량과의 상관관계	89
<표 VI-2> 교내활동 참여에 따른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척도 점수 비교	90
<표 VI-3> 교내활동 참여에 따른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 척도 점수 비교	91
<표 VI-4> 교내활동 참여에 따른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척도 점수 비교	92
<표 VI-5> 교내활동 참여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 비교	93
<표 VI-6> 교내활동 참여에 따른 아시아인 정체감 척도 점수 비교	94
<표 VI-7> 교내활동 참여에 따른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척도 점수 비교	95
<표 VI-8> 교내활동 참여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 비교	96

<표 VI-9> 교내활동 참여에 따른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 비교	97
<표VI-10> 교내활동 참여에 따른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 비교	98
<표VI-11>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민주시민역량 하위 척도 점수의 차이 비교	100
<표VI-12>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와 민주시민역량과의 상관관계	101
<표VI-13> 봉사활동 지속성과 민주시민역량과의 상관관계	103

그림 목 차

【그림 III-1】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관련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24
【그림 III-2】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척도점수-연령별	28
【그림 III-3】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관련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29
【그림 III-4】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척도점수-연령별	33
【그림 III-5】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관련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35
【그림 III-6】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척도점수-연령별	39
【그림 IV-1】 전통문화보존에 대한 태도 관련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44
【그림 IV-2】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척도점수-연령별	48
【그림 IV-3】 아시아인 정체감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50
【그림 IV-4】 아시아인 정체감 척도점수-연령별	54
【그림 IV-5】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관련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56
【그림 IV-6】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척도점수-연령별	60
【그림 V-1】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관련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66
【그림 V-2】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연령별	70
【그림 V-3】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관련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72
【그림 V-4】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척도점수-연령별	76
【그림 V-5】 공적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관련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77
【그림 V-6】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척도점수-연령별	83
【그림 VI-1】 교내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	88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교육성취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는 청소년을 위한 시민교육 현황 및 청소년의 시민역량에 대한 국제 비교 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이하 ICCS)를 2009년 실시하였다. 2009년 실시된 ICCS는 청소년이 미래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시민교육의 이행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조사하고 국제 수준에서 비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2007년 8월 국가분담금을 납부하고 공식적으로 ICCS에 참여하고 있다.

ICCS에서는 청소년의 시민역량을 크게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인지적 영역에는 지식(knowing)과 추론 및 분석(reasoning and analysing)을 측정하고 정의적 영역에는 가치신념(value beliefs), 태도(attitudes), 행동의지(behavioral intentions), 행동(behaviors) 등 4개 영역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ICCS의 청소년 시민역량 평가도구는 IEA가 1999년 실시했던 1차 시민교육 국제비교연구(Civic Education Study: CIVED)에서 개발된 평가도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실시했던 CIVED가 서구사회의 맥락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그 결과를 비교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에 2009년 ICCS에서는 청소년의 시민의식에 대한 국제비교를 위한 공통 설문도구를 개발과 별도로 유럽지역, 라틴지역, 아시아지역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세 개의 지역 조사도구를 추가로 개발하여 조사가 실시되었다.

IEA에서는 ICCS 2009 조사 데이터를 공개하고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출판하였다. 공통설문 내용을 기초로 ICCS 참여 38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출판하였으며 (Schulz, Ainley, Fraillon, Kerr, & Losito, 2010), 아시아지역 조사도구를 중심으로 아시아지역 5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과 관련한 가치신념과 태도를 비교 분석한 보고서도 출판하였다 (Fraillon, Schulz, & Ainley, 2012).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청소년민주시민역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3개년 연구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지난 2011에는 ICCS 2009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위주의 1차 분석과 더불어 ICCS 국제비교 설문지 내용 중 정의·행동영역을 중심으로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장근영, 박수익, 2011a), 국가 간 교육환경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다(김태준, 이영민, 2011). 2012년에는 ICCS 2009에 포함된 아시안 지역 설문 데이터를 포함한 ICCS 2009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변인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2차 분석(김준홍, 정선아, 2012; 김태준, 이영민, 2012)과 2011년 전국단위 조사에서 제외된 인지영역을 포함하여 조사함으로써 인지·행동영역의 변인과 관계를 파악한바 있다(이종원, 김준홍, 2012). 2013년에는 국내 실태조사에서 제외되었던 ICCS 아시안 모듈을 활용한 국내 실태조사 및 3차년 연구를 총괄 정리하여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수행되어온 3개년 연속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IEA에서 실시한 ICCS의 조사 중 아시아 지역 설문지를 활용하여 한국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역량 실태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의 기본 내용은 IEA에서 실시한 ICCS 2009년 조사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본 연구가 2011년 시작된 3개년 연속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바, 전체 계획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1, 2차년도 조사에서 누락된 아시안 지역 조사 문항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ICCS 아시아지역 설문지 조사내용은 “정부와 법에 대한 인식”, “아시아의 정체성, 시민의식, 문화에 대한 인식”, “공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 등 3개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본 연구의 연구 내용도 이를 근거로 구성하였다.

정부와 법에 대한 인식에서는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은 청소년들이 권위적인 정부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하며,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는 사회에서의 권위적인 행동에 동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은 한국의 법률체계의 청렴성 정도에 청소년들의 인식 수준을 의미한다.

아시아의 정체성, 시민의식, 문화에 대한 인식은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아시아인 정체감,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등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는 한국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의미하며, 아시아인 정체감은 아시아 지역과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감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은 좋은 시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의미한다.

공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에서는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공적서비스 부패에 대한 정도,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를 하위영역으로 하고 있다.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는 정치인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의미하며,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는 공적업무 영역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청소년들의 수용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는 공직을 얻기 위해 개인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ICCS 아시아 지역 설문지 조사 내용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을 다루고 있다.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은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형성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참여활동 그 자체가 시민의식의 실천적 행위이기 때문에 참여활동과 시민의식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적 참여활동 경험 정도와 자원봉사활동 경험 여부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 및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을 조사하여 시민의식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ICCS 아시아 지역 설문지 조사 내용을 근거로 한국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조사,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5월 2일부터 2013년 8월 24일까지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실시되었다.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선정하였으며, 2012년 교육통계연보를 표본프레임으로 설정하였다. 표본추

출은 지역, 학교급, 학년을 층화변수로 한 층화집락표집방법을 활용하였고, 목표 표본은 5975명으로 설정하였다. 총 204개 학교에서 6,489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통해 분석 대상이 된 표본은 6,051명이었다. 금년도 연구의 조사 대상은 2009년도와 비교 분석 및 기관 통합조사 연건 등으로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을 같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문헌연구는 일차적으로 ICCS관련 문헌 조사를 통해 아시안 지역 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파악하여 본 연구의 방향을 선정하였으며, 청소년 교내참여활동 및 청소년자원봉사 참여 관련문헌을 분석하여 조사도구 개발에 활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자문회의와 세미나를 활용하여 정책대안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제 2 장

조사의 개요

1. 표본설계 및 응답자의 특성
2. 조사도구
3. 분석방법

제 2 장 조사의 개요

1. 표본설계 및 응답자의 특성

1) 모집단 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수는 3,698,067명이며, 학교급별 학생수는 중학교 1,812,500명(49.0%), 고등학교 1,885,567명(51.0%)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 1,356,024명(36.7%), 자율고 141,969명(3.8%), 특성화고 336,676명(6.4%)이다.

표 II-1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구분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99,956	103,679	109,763	75,488	76,923	75,709	15,019	15,068	17,273	17,881	18,310	18,166	4,307	4,414	4,257
경기	150,199	152,997	157,196	125,265	123,989	120,813	3,850	3,718	3,391	21,923	22,213	21,604	4,244	4,330	4,086
인천	33,007	33,856	36,010	25,484	26,126	26,075	1,502	1,500	1,448	7,260	7,311	7,445	961	987	944
강원	17,965	18,696	19,126	15,107	15,026	14,572	154	160	158	3,557	3,277	3,134	394	382	295
충북	18,872	19,663	20,451	12,871	12,510	12,265	921	1,053	1,037	6,071	6,011	5,751	420	384	342
충남	24,652	25,360	25,865	19,788	19,262	18,700	1,561	1,455	1,343	4,777	4,743	4,481	483	463	407
대전	19,511	20,455	21,139	13,950	13,965	13,203	2,953	3,018	3,253	3,932	3,554	3,368	657	645	625
경북	29,648	29,624	31,740	22,698	22,489	22,125	2,449	2,422	2,418	6,575	6,326	6,241	589	570	498
경남	40,851	42,153	43,474	34,017	33,864	33,048	2,135	2,524	2,190	6,446	6,148	6,129	732	701	564
부산	36,106	37,862	40,204	25,838	26,286	27,355	3,936	4,030	3,985	9,726	10,015	9,051	2,109	2,006	1,943
대구	31,351	31,893	34,485	20,619	21,699	20,994	6,223	6,450	6,481	7,037	6,801	6,691	893	856	705
울산	15,053	15,763	16,657	12,359	12,680	12,230	705	731	906	3,426	3,381	3,333	359	362	245
전북	22,898	24,121	24,643	18,301	18,318	18,060	1,365	1,308	1,315	5,067	4,839	4,588	526	526	477
전남	22,261	22,916	23,825	15,649	15,772	14,975	1,862	1,750	1,795	6,447	6,088	6,024	448	434	348
광주	21,220	22,173	23,161	16,655	16,963	15,939	1,639	1,623	1,892	3,896	3,849	3,783	330	350	300
합계	583,550	601,211	627,739	454,089	455,872	446,063	46,274	46,810	48,885	114,021	112,866	109,789	17,452	17,410	16,036

2) 표본설계 및 표본의 추출

본 조사에서는 조사내용 및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지역, 학교급, 학년을 층화변수로 고려하였으며,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목표 표본크기는 5,975명으로 설정하였다. 모비율의 추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 추출을 가정할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1.1\%P$ 이다. 전체 모집단의 크기 및 목표 표본의 크기는 <표II-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2 모집단의 크기 및 목표 표본의 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중학교	중학교	1	583,550	1,812,500 (49.0%)	2,929 (49.0%)	
		2	601,211			
		3	627,739			
고등학교	일반고	1	454,089	1,356,024 (36.7%)	2,191 (36.7%)	
		2	455,872			
		3	446,063			
	특성화고	1	114,021	336,676 (9.1%)	544 (9.1%)	
		2	112,866			
		3	109,789			
	자율고	1	46,274	141,969 (3.8%)	229 (3.8%)	
		2	46,810			
		3	48,885			
	특수 목적고	1	17,452	50,898 (1.4%)	82 (1.4%)	
		2	17,410			
		3	16,036			
합계			3,698,067 (100.0%)	5,975 (100.0%)		

학생수에 단순비례하도록 지역구분과 학교급을 고려한 37개 층화단위(15지역의 중학교 + 15지역의 고등학교 + 5개 특성화고 + 1개 자율고 + 1개 특수목적고)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II-2>와 같다.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본배분 결과를 활용하여 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

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정된 학급의 모든 학생이 조사에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학급당 평균 학생수로 나누어 총 204개 정도의 학교가 조사대상에 선정되었다.

실제 조사과정에서 1차로 추출된 학교 측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층화구역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하고, 또한 사전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이 편성되어 있는 학습은 제외하여 조사대상학교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 조사가 실시된 학교는 204개교이며, 조사인원은 6,486명이었다. 지역별 조사 완료 학교 수는 <표 II-3>에 제시한 바와 같으며, 지역, 교급, 학년별 조사인원은 <II-4>와 같다.

표 II-3 조사 완료 학교 수

지역	총계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7	6	6	6	4	4	4	1	1	1	1	-	1	1	-	1
부산	11	2	2	2	1	1	1	-	1	-	-	-	1	-	-	-
대구	10	2	2	2	1	1	1	-	-	-	-	-	1	-	-	-
인천	11	2	2	2	1	1	1	-	2	-	-	-	-	-	-	-
광주	7	1	1	1	1	1	1	-	-	-	1	-	-	-	-	-
대전	7	1	1	1	1	1	1	-	-	-	1	-	-	-	-	-
울산	9	1	1	1	1	1	1	1	-	1	-	1	-	-	-	-
경기	49	9	9	9	6	6	6	2	-	2	-	-	-	-	-	-
강원	7	1	1	1	1	1	1	1	-	-	-	-	-	-	-	-
충북	6	1	1	1	1	1	1	-	-	-	-	-	-	-	-	-
충남	8	1	1	1	1	1	1	-	1	1	-	-	-	-	-	-
전북	9	1	1	1	1	1	1	1	1	1	-	-	-	-	-	-
전남	7	1	1	1	1	1	1	-	-	-	-	-	-	-	1	-
경북	12	2	2	2	1	1	1	-	1	1	-	1	-	-	-	-
경남	14	2	2	2	2	2	2	1	-	-	-	1	-	-	-	-
합계	204	33	33	33	24	24	24	7	7	7	3	3	3	1	1	1

표 II-4 조사 표본 수

지역	총계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124	187	196	185	141	122	144	26	22	15	27	-	22	28	-	9
부산	344	64	63	66	27	33	35	-	29	-	-	-	27	-	-	-
대구	312	53	75	60	31	20	31	-	-	-	-	-	42	-	-	-
인천	340	65	72	65	23	39	36	-	40	-	-	-	-	-	-	-
광주	249	36	36	32	34	39	36	-	-	-	36	-	-	-	-	-
대전	222	27	29	34	32	31	41	-	-	-	28	-	-	-	-	-
울산	293	29	34	36	35	40	44	32	-	19	-	24	-	-	-	-
경기	1,644	316	304	295	211	194	194	74	-	56	-	-	-	-	-	-
강원	223	29	34	35	39	32	31	23	-	-	-	-	-	-	-	-
충북	208	28	31	36	36	41	36	-	-	-	-	-	-	-	-	-
충남	245	30	32	35	35	29	39	-	16	29	-	-	-	-	-	-
전북	280	33	33	27	37	40	28	30	28	24	-	-	-	-	-	-
전남	219	34	36	30	29	28	30	-	-	-	-	-	-	-	32	-
경북	358	65	66	61	20	31	30	-	29	21	-	35	-	-	-	-
경남	428	59	60	64	65	62	65	26	-	-	-	27	-	-	-	-
합계	6,489	1,055	1,101	1,061	795	781	820	211	164	164	91	86	91	28	32	9

3) 조사방법 및 응답자 특성

조사 기간은 데이터 클리닝 기간을 포함하여 2013년 5월 2일부터 2013년 8월 24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는 전문조사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하였으며, 조사 대상학교로 추출된 학교를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에 대상자가 응답하는 집단면접설문조사 방식이 활용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6,489명이었으며, 배경문항에 미응답이 있는 경우, 과도하게 무응답이 많은 경우, 대부분 문항에 동일한 번호로 응답한 경우 등 불성실한 자료를 검토하는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통해 6,051명의 응답 자료가 실제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에 활용된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II-5>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전체의 48.3%, 여학생이 51.7%로 여학생이 조금 많았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이 48.8%, 일반고, 특성화고 등을 포함한 전체 고등학생이 51.2%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의 경우 상위집단 25.1%, 중위집단 43.1%, 하위집단 31.2%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의 경우 상위집단 34.5%, 중위집단 44.7%, 하위집단 20.8%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 거주 응답자가 전체인원의 44.7%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46.0%, 읍면지역은 9.3%로 나타났다.

표 II-5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	2,920	48.3
	여	3,131	51.7
학교급	중	2,951	48.8
	고	3,100	51.2
성적	상	1,553	25.1
	중	2,608	43.1
	하	1,890	31.2
경제수준	상	2,090	34.5
	중	2,703	44.7
	하	1,258	20.8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2,703	44.7
	중소도시	2,785	46.0
	읍/면	563	9.3
전체		6,051	100.0

2. 조사 도구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 IEA에서 실시한 ICCS의 조사 중 아시아 지역 설문지를 활용하여 한국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실태를 조사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실태 파악을 한 조사도구로는 2009년 ICCS 조사에서 활용된 아시아 지역 설문지와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학교에 참여활동 및 자원봉사 참여와 민주시민역량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의 참여활동 관련 변인 및 자원봉사 참여관련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가 활용되었다. 본 절에서는 ICCS 아시아 지역 질문지의 개발 과정 및 측정 영역, 그리고 '2013 아동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의 측정 도구 대해 살펴본다.

1) ICCS 아시아 지역 질문지의 개발 과정 및 측정 영역

2009 ICCS 조사에서는 시민의식에 대한 국제 비교를 위해 국제 공통 설문도구를 개발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별도로 유럽지역, 라틴지역, 아시아지역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세 개의 지역 조사도구를 추가로 개발하였다. 지역 조사도구는 지역 간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차별성을 고려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아시아지역 조사도구 개발에는 5개 국가(한국, 홍콩,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개발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각국의 역사적, 전통적, 규범적, 문화적 요소들을 식별하여 공통의 요소를 추출하여 이 결과를 아시아 지역 설문도구 개발과정에 반영하였다.

국제 공통 설문도구는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체계(civic society and system), 시민원리(civic principles), 시민참여(civic participation), 그리고 시민정체성(civic identities)의 4가지 내용영역을 구분하고, 각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지식(knowing), 추론과 분석(reasoning and analyzing)을 포함하는 인지적 영역(cognitive domain)과 가치신념(value beliefs), 태도(attitudes),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s), 행동(behaviors) 등을 포함하는 정의·행동 영역(affective-behavioral domain)을 측정하도록 구조화 되었다. 하지만 아시아지역 조사도구의 경우에는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의 4가지 내용영역에 대해 가치신념과 태도 영역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측정하도록 구안되었다. ICCS 아시아 지역 질문지의 세부 영역은 <표 II-6>과 같다.

표 II-6 ICCS 아시안 지역 질문지 측정 영역

구 분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
지식	-	-	-	-
추론과 분석	-	-	-	-
가치신념	· 강한 정부 대 약한 정부 · 개인 영성과 정부의 범위 · 권위에 대한 순종	· 관계와 공적업무	-	· 아시아 정체성 · 좋은 시민상 · 사회적 조화 대 체면
태도	-	· 비민주적 정부 행동의 인정 · 자국 법제의 신뢰	· 부정부패 ·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태도	· 아시안 국가 간 관계 · 자국 전통문화
행동의도	-	-	-	-
행동	-	-	-	-

* 출처 : Fraillon, J., Schulz, W., & Ainley, J.(2012), p.16

아시아 지역 질문지는 사전 조사를 위한 97개 문항이 개발되었으며, 본 조사에서는 55문항이 활용되어 조사가 실시되었다. 최종 아시아지역 조사도구에서 측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과 관련된 인식 및 정의-행동 양상은 다음과 같다.

- 아시아 정부와 법에 대한 학생의 인식(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권위에 대한 순종의 태도,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 아시아 정체성, 아시아 시민의식, 아시아 문화에 대한 학생의 인식(자국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아시아인 정체감, 좋은 시민의식에 대한 인식)
- 공적 서비스에 대한 학생의 인식(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공공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2009년 조사 결과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55개의 문항 중 45개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되었다(Schulz, W., Ainley, J., & Fraillon, J., 2011 : 250~258에서 참고). 최종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아시아 지역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측정 도구의 영역별 문항수와 한국 조사 결과의 문항 신뢰도는 <표 II-7>과 같다.

표 II-7 ICCS 아시안 지역 질문지의 구성 및 신뢰도

영역		2009 ICCS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정부와 법에 대한 인식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Q1(2, 4, 5, 6, 7)	5	0.78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	Q2(1, 3, 4, 6)	4	0.82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Q4(1, 2, 3, 4, 5)	5	0.73
아시아의 정체성, 시민의식, 문화에 대한 인식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Q3(1, 2, 3, 4)	4	0.69
	아시아인 정체감	Q6(1, 4, 5, 6, 7, 8, 12)	7	0.87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Q7(1, 2, 3, 4, 5, 6, 7)	7	0.76
공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Q5(2, 4, 6, 7, 8)	5	0.74
	공공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Q5(1, 3, 5)	3	0.63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Q8(1, 2, 3, 4, 5)	5	0.83

2) 2013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의 측정 도구

(1) 배경변인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실태 조사를 위한 배경변인으로는 지역, 성, 연령, 학업성적,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을 활용하였다. 지역은 조사원이 기재한 학교 소재지의 행정구역을 이용하여 '서울/광역시/기타'로 구성하여 활용하였으며, 연령은 직접 나이를 묻지 않고 학년을 적용하였다. 학업성적은 지난학기(2013년 1학기) 자신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5점 척도(①매우 못하는 편 ~ ⑤매우 잘하는 편)로 측정하였으며,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은 자신의 가정 형편에 대해 7점 척도(①매우 못 산다 ~ ⑦매우 잘 산다)로 조사하였다.

(2) 학교 내 참여활동 경험 변인

청소년들의 학교 내 참여 경험에 따른 민주시민역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의 시민적 참여활동 경험 정도를 활용하였다. 학교 내 참여활동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방과 후 학교의 예체능 활동에 자발적 참여' 등 6개의 활동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① 최근 1년 동안 참여한 적이 있다.', '② 1년보다 더 이전에 참여한 적이 있다', '③ 참여한 적이 없다' 등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3) 자원봉사 관련 변인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와 민주시민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자원봉사 참여 여부를 조사하여 활용하였으며, 자원봉사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 자원봉사 참여 동기, 자원봉사의 지속성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자원봉사 참여동기 측정을 위해서는 김정배(200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적, 칭찬, 종교, 부모, 선생님, 새로운 경험, 지역사회기여, 친구만남, 사후기대, 보람, 이웃을 위해, 진로에 도움 등 봉사활동 동기와 관련된 12개의 문항에 대해 리커트식 5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봉사 동기의 지각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원봉사의 지속성은 자원봉사활동에의 지속적인 참여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측정하는 변인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박학배(2011)의 조사도구를 활용하였다. 조사도구는“나는 의무시간(점수)를 채우더라도 계속 자원봉사를 할 것이다.”등 자원봉사 지속의지와 관련된 4개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리커트식 5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민주시민역량(민주시민에 대한 가치신념과 태도)

2009년 아시아 지역 조사 결과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45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측정을 위한 아시안 지역 질문지는 '정부와 법에 대한 인식(perceptions of government and law in Asia)', '아시아의 정체성, 시민의식, 문화에 대한 인식(perceptions of identity, citizenship, and culture in Asia)', '공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perceptions of public service)'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와 법에 대한 인식 관련 변인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students' acceptance of authoritarian government practice)은 청소년들이 권위적인 정부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변인이다. “정부가 하는 일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비민주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등 5개 항목을 제시하고 각 문항에 대한 자신의 동의 정도(①매우 동의함, ②동의함, ③동의하지 않음, ④매우 동의하지 않음)를 조사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비민주적인 정부를 수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권위에 대한 순종태도(students' attitudes toward obedience to authority)는 사회에서의 권위적인 행동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변인이다.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어른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이 동의정도(①매우 동의함, ②동의함, ③동의하지 않음, ④매우 동의하지 않음)를 조사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권위적인 행동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students' perceptions of the integrity of the legal system)은 자국의 법률체계의 청렴성 정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측정하는 변인이다. “법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의 편이다.” 등 법률과 사법체계와 관련된 5개의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①매우 동의함, ②동의함, ③동의하지 않음, ④매우 동의하지 않음)를 조사 하였다. 긍정문과 부정문이 혼합되어 있어 3개의 긍정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딩 하는 과정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자국 법률체계 청렴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 아시아의 정체성, 시민의식, 문화에 대한 인식 관련 변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al culture)는 자국의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이다. “나는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데에 책임감을 느낀다.” 등과 같이 자국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4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동의 정도(①매우 동의함, ②동의함, ③동의하지 않음, ④매우 동의하지 않음)를 조사하였다.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딩 하는 과정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아시아인 정체감(students' sense of Asian identity)은 아시아 지역과 아시아인으로서 정체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이다. “나는 나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등과 같이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감과 관련된 7개의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①매우 동의함, ②동의함, ③동의하지 않음, ④매우 동의하지 않음)를 조사하였다.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딩하여 활용함으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students' perceptions of good citizenship)은 좋은 시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이다. “법을 준수하면 좋은 시민이다.” 등과 같이 좋은 시민의 특성을 나타내는 7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정도(①매우 동의함, ②동의함, ③동의하지 않음, ④매우 동의하지 않음)를 조사하였다.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딩하는 과정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시민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 강력하게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 공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 관련 변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students' attitudes toward personal morality of politicians)는 정치인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이다. “정치적 지도자들은 도덕성의 역할모델이 되어야 한다.” 등과 같이 정치인 자신의 도덕성 및 정치인이 가족의 도덕성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5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정도(①매우 동의함, ②동의함, ③동의하지 않음, ④매우 동의하지 않음)를 조사하였다.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인들의 도덕적인 행동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공적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students' attitudes toward corruption in public service)는 공적업무에서의 부패에 대한 청소년의 수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이다. “일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등과 같이 공적업무에서의 부패에 대한 수용적인 3개의 진술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정도(①매우 동의함, ②동의함, ③동의하지 않음, ④매우 동의하지 않음)를 조사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공적업무에서의 부패에 대한 수용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use of connections to hold public office)는 공직을 얻기 위해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이다. “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있더라도 지역연고자 또는 고향출신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등 선거 또는 공적 업무에 있어서 친분관계의 고려와 관련된 5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정도(①매우 동의함, ②동의함, ③동의하지 않음, ④매우 동의하지 않음)를 조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직을 얻기 위해 개인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3. 분석 방법

설문조사의 결과는 SPSS 프로그램(ver.17.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조사 문항에 대한 응답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 조사 문항에 대한 단순빈도분포를 확인하였다. 또한 배경변인별 민주시민역량 하위 영역 척도점수의 비교 및 청소년들의 교내 참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민주시민역량 하위 영역 척도 점수 비교를 위해 t-test와 One-way-ANOVA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인이 3개 이상인 평균값 차이분석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내참여활동 정도와 민주시민역량, 자원봉사활동 동기 및 지속성과 민주시민역량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제 3 장

정부와 법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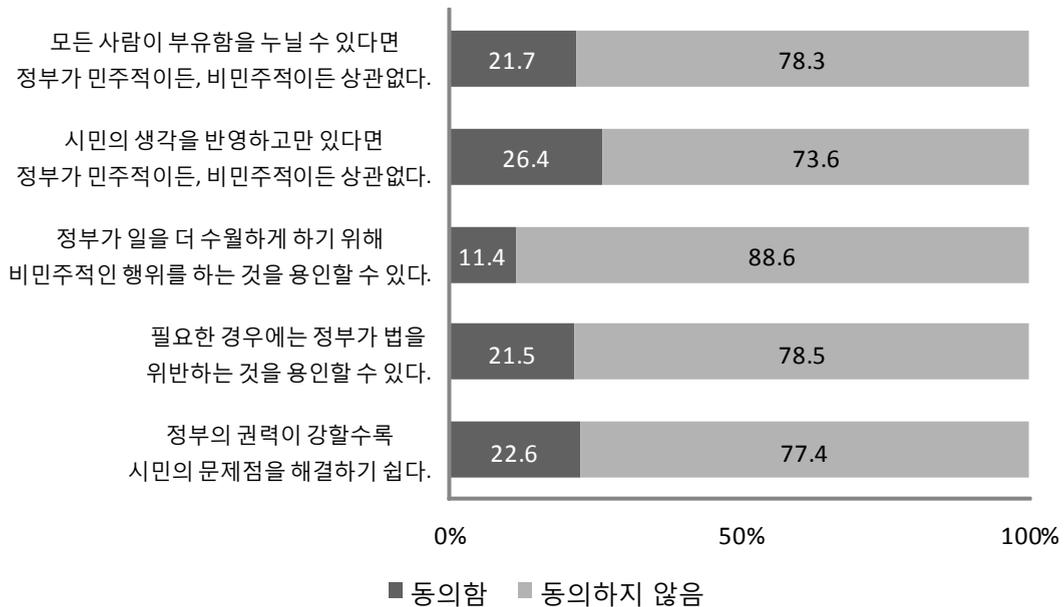
1.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2.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
3.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제 3 장 정부와 법에 대한 인식

1.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students' acceptance of authoritarian government practice)은 청소년들이 권위적인 정부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변인이다.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을 측정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정부가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상관없다.”, “시민의 생각을 반영하고만 있다면 정부가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상관없다.”, “정부가 하는 일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비민주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정부의 권력이 강할수록 시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쉽다.”,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등 5개 항목을 제시하고 각 문항에 대한 자신의 동의 정도(①매우 동의함, ②동의함, ③동의하지 않음, ④매우 동의하지 않음)를 조사하였다. 본 척도에서는 점수가 낮을수록 비민주적인 정부를 수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과 관련된 5개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기준(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으로 리코딩하여 응답비율을 분석한 값은 【그림Ⅲ-1】과 같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11.4%~26.4% 정도로 나타났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73.6%~83.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사된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비민주적인 정부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부 문항별로 보면 “시민의 생각을 반영하고만 있다면 정부가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상관없다”에 대한 동의 정도가 26.4%,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73.6%로 가장 동의하고 있는 비민주적 정부 수용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일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비민주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11.4%, 동의하지 않는 정도는 88.6%로 가장 동의하지 않는 비민주적 정부 수용과 관련된 문항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관련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관련 5개의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배경변인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II-1>과 같다. 하위문항별 남녀 간의 응답차이는 다른 배경변인에 비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모든 문항에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은 동의 정도를 보이고 있어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급 별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의 한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문항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비교적 크지 않았다. 하위문항별 성적에 따른 응답차이는 역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의 한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문항에서 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의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관련 5개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2009 ICCS 조사결과 및 학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II-2>에 제시한 바와 같다. 2009년 조사대상인 중학교 2학년의 동의 정도와 2009년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정부가 일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비민주적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2013년 조사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09년에 비해 2013년의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2009년 중학교 2학년이었던 고3 학생간과 2009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정부가 일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비민주적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와 “정부의 권력이 강할수록 시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쉽다.”의 경우 2013 고3의 동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감소한 반면, 나머지 3개 문항의 경우 2013 고3의 동의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 배경변인별

구분		모든 사람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정부가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상관없다.	시민의 생각을 반영하고만 있다면 정부가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상관없다.	정부가 일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비민주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정부의 권력이 강할수록 시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쉽다.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성별	남	28.3	31.4	15.2	25.5	26.6
	여	15.6	21.8	7.8	17.8	18.8
학교급	중	22.4	27.2	12.5	24.2	19.8
	고	21.1	25.6	10.3	19.0	25.2
성적	상	18.5	24.3	9.8	20.6	23.9
	중	21.5	26.2	10.8	20.2	21.5
	하	24.7	28.5	13.5	24.1	22.9
경제수준	상	21.4	26.5	11.6	22.7	23.3
	중	21.5	25.5	11.4	20.8	21.9
	하	22.7	28.1	11.0	21.0	22.7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20.4	25.4	10.7	22.0	21.8
	중소도시	23.1	26.7	11.8	21.0	22.8
	읍/면	21.1	29.8	12.7	21.3	25.0
전체		21.7	26.4	11.4	21.5	22.6

표 III-2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 학년별

문항 내용	2009 ICCS	2013 NYPI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 모든 사람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정부가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상관없다.	18.2	23.3	22.2	21.9	19.0	23.4	20.9
2. 시민의 생각을 반영하고만 있다면 정부가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상관없다.	15.8	27.2	27.6	26.8	25.1	25.7	26.0
3. 정부가 일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비민주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14.1	13.1	13.7	10.8	9.6	12.3	9.0
4. 정부의 권력이 강할수록 시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쉽다.	24.3	25.5	25.0	21.9	15.9	22.0	19.3
5.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16.9	20.4	19.3	19.9	22.2	27.7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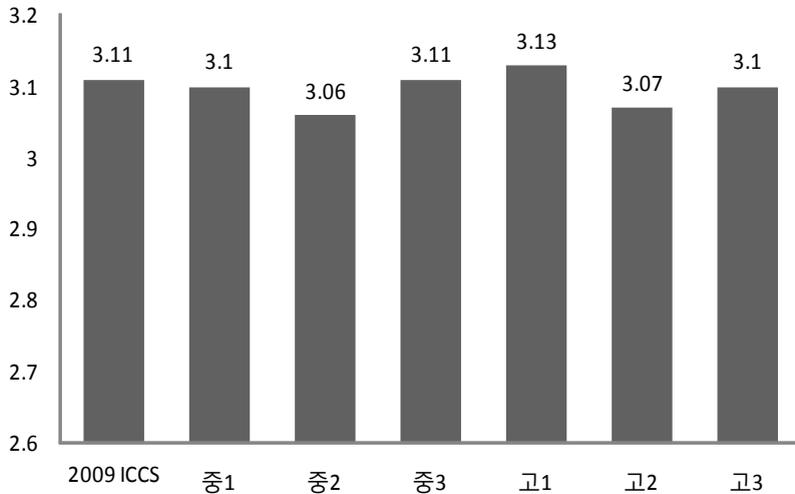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의 척도 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권위적 정부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712였으며,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의 척도 점수 평균은 3.09, 표준편차는 .52로 나타났다.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과 관련하여 배경변인별 응답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III-3>과 같이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평균점수는 3.16, 남자 청소년의 평균점수는 3.02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권위적 정부를 수용하는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에 따라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척도점수를 성적에 따라 살펴보면 상위권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3.14, 중위권 3.10, 하위권 3.03으로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상위권 및 중위권 청소년들에 비해 하위권 청소년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권위적 정부에 대해 높은 수용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 지역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별/광역시(3.11), 중소도시(3.09)의 평균점수가 읍/면(3.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읍면도시의 청소년이 권위적 정부에 높은 수용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3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점수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검증통계치 (t/F)	사후검증 (scheffe)
성별	남	2920	3.02	.56	-10.67 (p=.000)	-
	여	3131	3.16	.50		
학교급	중	2951	3.08	.55	-1.13 (p=.257)	-
	고	3100	3.10	.49		
성적	1) 상	1553	3.14	.53	19.90 (p=.000)	1), 2) > 3)
	2) 중	2608	3.10	.51		
	3) 하	1890	3.03	.53		
경제 수준	1) 상	2090	3.08	.53	.458 (p=.632)	N.S.
	2) 중	2703	3.10	.52		
	3) 하	1258	3.09	.50		
거주 지역	1) 특별/광역시	2703	3.11	.51	5.201 (p=.006)	1), 2) > 3)
	2) 중소 도시	2785	3.09	.53		
	3) 읍/면	563	3.03	.50		
전체		6051	3.09	.52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척도 점수를 2009 ICCS 결과 및 학년별로 비교한 결과는 【그림 III-2】와 같다. 2009년 중2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태도 점수는 3.11점이었지만, 2013년 중2의 점수는 3.06점으로 낮아져 과거에 비해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정도가 다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조사 결과를 보면 권위적 정부 수용태도 점수는 3.06점에서 3.13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다. 고1 시기의 점수가 3.1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고1시기가 권위적 정부에 대해 가장 수용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2시기의 점수가 3.06점으로 중2시기에 권위적 정부에 대해 가장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점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점수를 유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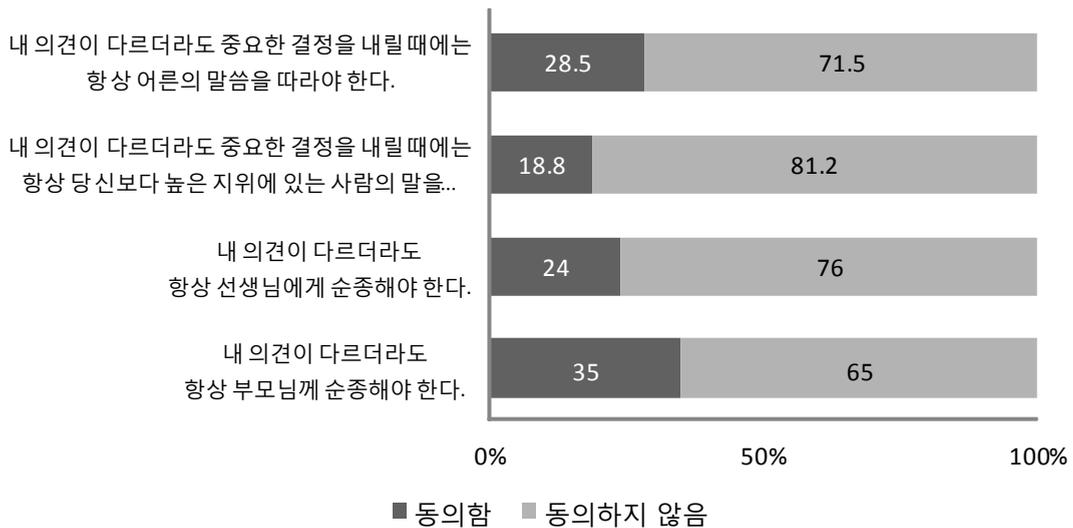
【그림 III-2】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척도점수-연령별

2. 권위에 대한 순종태도

권위에 대한 순종태도(students' attitudes toward obedience to authority)는 사회에서의 권위적인 행동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변인이다. 권위에 대한 순종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어른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당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항상 선생님에게 순종하여야 한다.”,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항상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이 동의하는 정도(①매우 동의함, ②동의함, ③동의하지 않음, ④매우 동의하지 않음)를 조사하였다. 본 척도에서는 점수가 낮을수록 권위적인 행동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위에 대한 순종태도와 관련한 4개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기준(동의함/동의하지 않음)으로 리코딩하여 응답비율을 분석한 값은 【그림 III-3】과 같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18.5%~35.0%로 나타났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0%~81.2%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권위에 대해 순종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부 문항별로 보면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항상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응답비율이 35.0%, 동의하지 않는 응답비율이 65.5%로 가장 동의하는 문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당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한다.”에 동의하는 응답비율이 18.8%, 동의하지 않는 응답비율이 81.2%로 가장 동의하지 않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관련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권위에 대한 순종태도 관련 4개의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배경변인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II-4>와 같다. 하위문항별 남녀 간의 동의 여부의 차이는 다른 배경변인에 비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모든 문항에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은 동의 정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그 차이가 8.6%~11.4% 정도를 보였다. 따라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권위에 대한 순종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문항에서 중학생의 동의비율이 고등학생의 동의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권위에 대한 순종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차이는 3.0%~7.0% 정도를 보여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는 크지 않았다.

표 III-4 권위에 대한 순종태도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 배경변인별

구분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어른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당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항상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항상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성별	남	33.0	23.7	29.0	40.9
	여	24.4	14.3	19.3	29.5
학교급	중	31.8	20.4	27.2	38.6
	고	25.5	17.4	20.9	31.6
성적	상	23.2	16.4	22.7	30.5
	중	27.6	15.7	22.0	33.7
	하	34.2	22.7	27.7	40.6
경제수준	상	28.9	19.0	24.1	35.0
	중	27.8	18.1	23.2	34.8
	하	29.6	20.2	25.4	35.5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28.3	17.9	23.8	34.3
	중소도시	28.5	18.9	23.5	34.5
	읍/면	29.7	22.7	27.4	41.4
전체		28.5	18.8	24.0	35.0

성적에 따른 권위에 대한 순종태도 관련 하위문항에 대한 응답비율을 비교해 보면, 모든 문항에서 성적이 낮은 청소년의 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이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 간에는 문항에 따라서 동의하는 비율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어른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와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항상 부모님께 순종하여야 한다.”의 경우 성적이 중간 수준인 청소년의 동의 비율이 성적이 높은

집단의 동의 정도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그 외 문항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권위에 대한 순종태도 관련 4개 문항 모두에서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의 동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읍면지역에 거주한 청소년들의 동의 정도가 역시 모든 문항에서 다른 지역 거주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순종 태도 관련 4개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2009 ICCS 조사결과 및 학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II-5>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III-5 권위에 대한 순종태도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 학년별

문항 내용	2009 ICCS	2013 NYPI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어른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35.8	34.9	34.1	26.4	24.4	26.0	26.0
2.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당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한다.	18.9	20.9	22.6	17.7	17.4	17.7	17.0
3.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항상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21.7	32.3	27.2	22.1	22.0	22.0	18.8
4.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항상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32.1	41.6	41.2	32.9	32.6	32.5	29.8

2009년 조사대상인 2013년 중2의 동의 정도와 2009년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관련 4개의 모든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2009년 보다 2013년 조사에서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에 비해 2013년 중2학 학생이 높은 수준의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2009년 중학교 2학년이었던 고3 학생간과 2009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모든 문항에서 2013 고3의 동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성장과정에서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 정도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의 척도 점수는 관련 문항의 항목별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권위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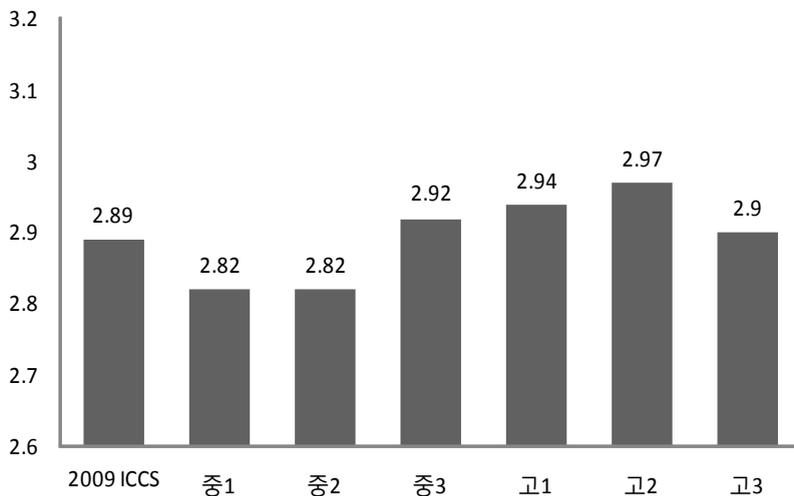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42로 2009년 ICCS 한국 조사의 신뢰도(.82)보다 높았다.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의 척도 점수 평균은 2.90 표준편차는 .61로 나타났다.

표 III-6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에 대한 수용 점수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검증통계치 (t/F)	사후검증 (scheffe)
성별	남	2,920	2.83	.65	-8.287 (p=.000)	-
	여	3,131	2.96	.56		
학교급	중	2,951	2.85	.64	-5.723 (p=.000)	-
	고	3,100	2.94	.57		
성적	1) 상	1,553	2.98	.61	37.266 (p=.000)	1) > 2) > 3)
	2) 중	2,608	2.92	.60		
	3) 하	1,890	2.81	.60		
경제 수준	1) 상	2,090	2.91	.63	.316 (p=.729)	N.S.
	2) 중	2,703	2.89	.58		
	3) 하	1,258	2.89	.62		
거주 지역	1) 특별 /광역시	2,703	2.91	.61	4.683 (p=.009)	1), 2) > 3)
	2) 중소도시	2,785	2.90	.61		
	3) 읍/면	563	2.83	.59		
전체		6,051	2.90	.61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 척도 점수의 차이를 배경변인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표 III-6>과 같이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평균점수는 2.83, 여자청소년의 평균점수는 2.96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러한 결과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권위에 대해 순종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급에 따라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중학생의 평균점수가 2.85, 고등학생 2.94로 조사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p < .05$). 따라서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보다 권위에 대한 순종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 척도 점수를 성적에 따라 살펴보면 상위권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2.98, 중위권 2.92, 하위권 2.81로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증결과 세 집단 모두 각각 다른 집단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러한 결과는 학교성적이 낮은 집단일수록 권위에 대해 순종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지역에 따른 평균점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읍/면지역의 평균점수가 2.83으로 특별/광역시(2.91)와 중소도시(2.90)보다 낮게 나타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에 비해 권위에 대한 순종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라 척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III-4】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척도점수-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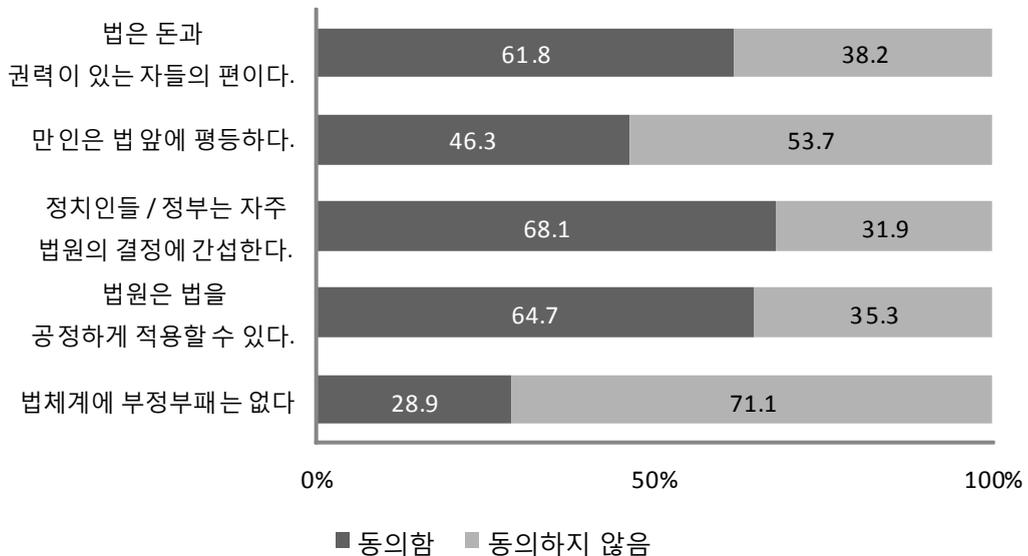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 척도 점수를 2009 ICCS 조사 결과 및 학년별로 비교한 결과는 【그림 III-4】와 같다. 2009년 중2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 점수는 2.89점이었으며 2013년 중2의 점수는 2.82점으로 다소 낮아져 과거에 비해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 수준이 다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조사 결과를 보면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 점수의 범위는 2.82~2.97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중1, 중2 시기의 점수가 2.82로 이 시기 청소년들이 권위에 대해 가장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고2 시기의 점수는 2.97로 고 2 시기의 청소년들이 권위에 대해

가장 순종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점수는 중2 시기부터 고2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고3 시기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3 시기의 점수는 2.9로 중3 시기(2.92)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3.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students' perceptions of the integrity of the legal system)은 자국의 법률체계의 청렴성 정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측정하는 변인이다.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법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의 편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치인들/정부는 자주 법원의 결정에 간섭한다.”, “법원은 법을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다.”, “법체계에 부정부패는 없다” 등 법률과 사법체계와 관련된 5개의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①매우 동의함, ②동의함, ③동의하지 않음, ④매우 동의하지 않음)를 조사하였다.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5개 문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기준(동의함/동의하지 않음)으로 리코딩하여 응답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III-5】와 같다.

“법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의 편이다.” 문항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1.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체계에 부정부패는 없다.”의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28.6%에 그쳤다. 또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46.3%로 과반수를 넘치지 못하였으며, “정치인들/정부는 자주 법원의 결정에 간섭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68.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의 청소년들은 한국의 법체계 및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법원은 법을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다.”에 대한 동의정도는 64.1%로 동의하지 않는 응답(35.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5】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관련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관련 5개의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배경변인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II-7>과 같다. 하위문항별 남녀 간의 응답차이는 비교적 크지 않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인식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각 문항별 응답률 차이의 범위는 20.1%~29.6%로 부정문항을 고려해 볼 때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법률체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적에 따라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성적이 상위권인 청소년들이 법률체계에 대해 부정적이고 성적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 정도 차이가 10%이상인 문항을 살펴보면 “법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의 편이다.”의 경우 하위권 청소년보다 상위권 청소년의 경우 10.5% 정도 높은 수준의 동의 정도를 보였고, “정치인들/정부는 자주 법원의 결정에 간섭한다.”의 경우 상위권 학생이 하위권 학생보다 12.9% 정도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또한 “법체계에 부정부패는 없다.”의 경우 상위권 학생이 하위권 학생보다 13.9% 정도 낮은 수준의 동의 정도를 보였다.

경제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른 응답 차이는 전체 문항에서 10%미만의 차이를 보여 다른 배경변인에 비해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전반적인 응답의 경향을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좀 더 법률체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특별/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 거주 청소년들에 비해 법률체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 배경변인별

구분		법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의 편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치인들 / 정부는 자주 법원의 결정에 간섭한다.	법원은 법을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다.	법 체계에 부정부패는 없다.
성별	남	60.4	46.7	67.0	62.4	30.1
	여	63.0	45.9	69.1	66.8	27.8
학교급	중	46.6	57.7	57.8	79.2	40.3
	고	76.2	35.5	77.9	56.9	18.1
성적	상	68.1	42.2	75.7	62.4	21.0
	중	61.0	47.1	67.4	64.9	29.3
	하	57.6	48.5	62.8	66.3	34.9
경제수준	상	60.5	46.1	68.6	63.0	28.8
	중	60.1	49.5	68.1	68.3	30.4
	하	67.5	39.6	67.3	59.8	25.8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61.9	45.4	68.8	64.5	27.4
	중소도시	62.4	46.1	68.3	63.8	28.9
	읍/면	58.1	51.5	63.4	70.2	35.9
전체		61.8	46.3	68.1	64.7	28.9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관련 5개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2009 ICCS 조사결과 및 학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II-8>에 제시한 바와 같다. 2009년 조사대상인 중학교 2학년의 동의 정도와 2009 ICCS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법체계에 부정부패는 없다.”의 경우 동의 정도가 다소 높아져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아진 반면 나머지 모든 문항에서는 법률체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중학교 2학년이었던 고3 학생간과 2009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2009년 조사에 비해 2013년 고3학생의 응답에 있어서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관련된 부정적인 문항 모두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아졌으며 긍정적인 문항 모두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8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 학년별

문항 내용	2009 ICCS	2013 NYPI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 법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의 편이다.	54.5	30.5	49.3	59.7	70.8	76.6	81.3
2.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64.1	65.1	57.0	51.1	43.2	32.8	30.1
3. 정치인들 / 정부는 자주 법원의 결정에 간섭한다.	66.0	53.9	56.9	62.5	76.0	76.8	80.9
4. 법원은 법을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다.	80.6	78.1	73.6	67.1	64.2	55.7	50.6
5. 법체계에 부정부패는 없다.	40.4	45.9	42.6	32.3	21.1	18.7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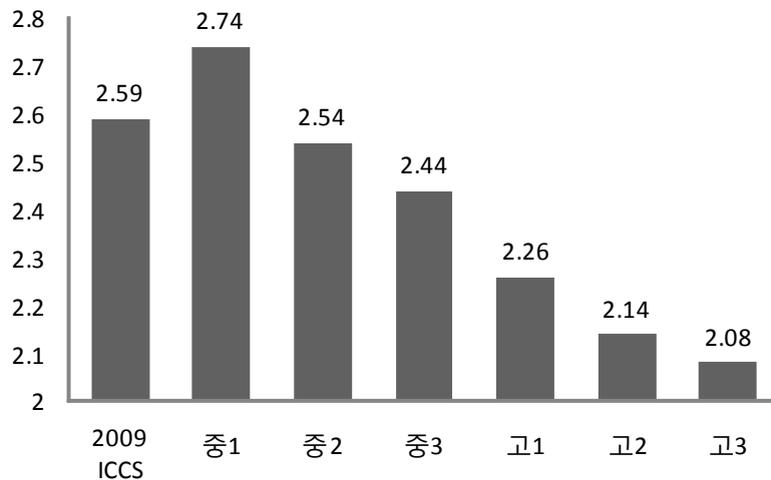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은 긍정문과 부정문이 혼합되어 있어 3개의 긍정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역순으로 리코딩 한 후 각 항목별 점수의 평균값을 구해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척도 점수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국 법률체계 청렴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757로 2009년 ICCS 한국 조사의 신뢰도(.73)보다 높게 나타났다.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의 척도 점수 평균은 2.37, 표준편차는 .63으로 나타났다.

표 III-9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척도점수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검증통계치 (t/F)	사후검증 (scheffe)
성별	남	2,920	2.37	.66	-0.84 (p=.933)	-
	여	3,131	2.37	.61		
학교급	중	2,951	2.59	.60	-27.831 (p=.000)	-
	고	3,100	2.16	.59		
성적	1) 상	1,553	2.27	.64	25.576 (p=.000)	3) > 2) > 1)
	2) 중	2,608	2.38	.65		
	3) 하	1,890	2.43	.59		
경제 수준	1) 상	2,090	2.37	.66	12.648 (p=.000)	1), 2) > 3)
	2) 중	2,703	2.40	.61		
	3) 하	1,258	2.29	.63		
거주 지역	1) 특별/광역시	2,703	2.37	.64	5.590 (p=.004)	3) > 1), 2)
	2) 중소도시	2,785	2.35	.64		
	3) 읍/면	563	2.45	.57		
전체		6,051	2.37	.63		

법률체계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배경변인별 응답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III-9>와 같다. 여자 청소년의 평균점수와 남자 청소년의 평균점수 모두 2.37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급에 따라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중학생의 경우 2.59점으로 고등학생 2.1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p < .05$).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보다 한국의 법률체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척도점수를 성적에 따라 살펴보면 상위권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2.27, 중위권 2.38, 하위권 2.43으로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각 집단별 점수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사후검증 결과 세 집단 간 점수의 차이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따라서 성적이 높은 집단일수록 한국의 법률체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척도 점수는 경제수준 및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경제수준 하위 계층의 점수는 2.29점, 상위 계층 2.37, 중간 계층 2.40으로 조사되었는데, 사후검증 결과 하위 계층과 다른 계층과의 점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p < .05$). 거주지역의 경우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의 점수가 2.3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특별/광역시 거주 청소년 2.37,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 2.45점으로 조사되었다. 사후검증 결과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평균점수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5$). 따라서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법률체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특별/광역시 및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들이 읍/면 지역 거주 청소년보다 법률체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6】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척도점수-연령별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척도 점수를 2009 ICCS 조사 결과 및 학년별로 비교한 결과는 【그림 III-6】 과 같다. 2009년 중2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척도점수는 259점이었으며 2013년 중2의 점수는 254점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2013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척도 점수는 208점에서 274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다. 중학교 1학년 2.7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법률체계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시기인 것으로 판단되며,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2.0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

법률체계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년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척도 점수의 분포는 중학교 1학년을 정점으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법률체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 4 장

아시아의 정체성, 시민의식, 문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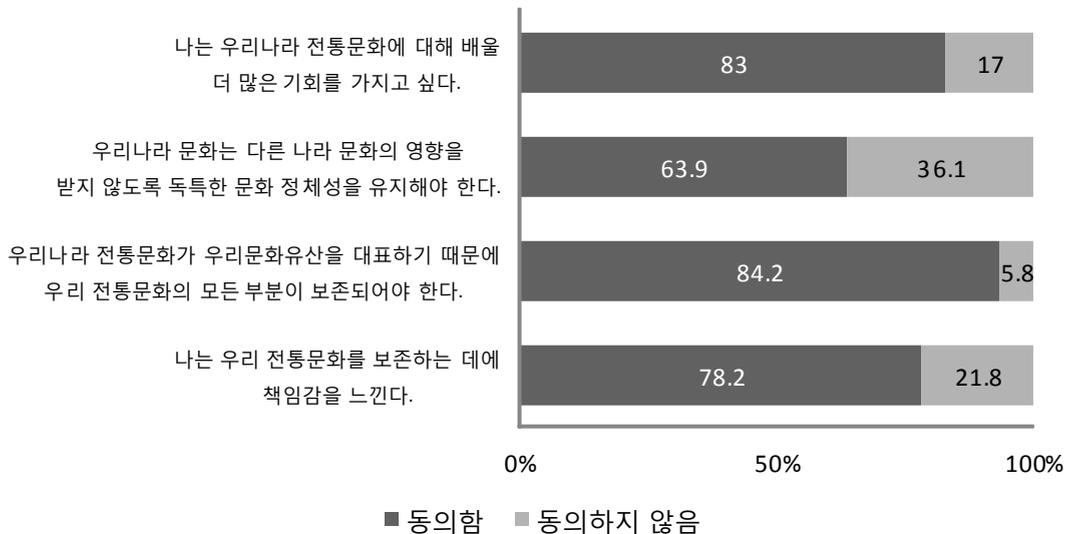
1.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2. 아시아인의 정체감
3.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제 4 장 아시아의 정체성, 시민의식, 문화에 대한 인식

1.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al culture)는 자국의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이다.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해 배울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싶다.”, “우리나라 문화는 다른 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나는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데에 책임감을 느낀다.” 등과 같이 자국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4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동의 정도(①매우 동의함, ②동의함, ③동의하지 않음, ④매우 동의하지 않음)를 조사하였다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5개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기준(동의함/동의하지 않음)으로 리코딩하여 응답비율을 분석한 값은 【그림 IV-1】과 같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한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의 63.9%~84.2% 범위에 있었으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전체 응답의 15.8%~36.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사된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전통문화 보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부 문항별로 보면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가 84.2%,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15.8%로 가장 동의하고 있는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관련 문항이었으며, “우리나라 문화는 다른 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63.9%, 동의하지 않는 정도는 36.1%로 가장 동의하지 않는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관련 문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관련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관련 4개의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배경변인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성별에 따른 동의정도를 비교해 보면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모든 문항에서 여자청소년의 동의 비율이 남자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3.9%~12.1% 정도였다. 학교급별로 동의정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문화는 다른 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등 2개 항목에 있어서는 중학생의 동의 비율이 고등학생 보다 높은 반면,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해 배울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싶다.”, “나는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데에 책임감을 느낀다.” 등 2개 항목의 경우 고등학생의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문항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보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반면, 전통문화 보존과 관련된 개인적 태도는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를 성적에 따라 비교해 보면 학교급에 따른 차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우리나라 문화는 다른 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등 2개 항목에 있어서는 성적이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은 동의 비율을 보인 반면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해 배울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싶다.”, “나는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데에 책임감을 느낀다.” 등 2개 항목의 경우 성적이 낮은 집단의 동의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표 IV-1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 배경변인별

구분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해 배울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싶다.	우리나라 문화는 다른 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나는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데에 책임감을 느낀다.
성별	남	76.7	62.4	82.2	73.2
	여	88.8	65.3	86.1	82.8
학교급	중	81.4	68.1	86.6	77.6
	고	84.5	60.0	82.0	78.6
성적	상	84.5	63.0	80.2	80.2
	중	85.0	63.5	84.6	80.3
	하	78.9	65.4	87.1	73.5
경제수준	상	83.0	66.1	83.0	78.9
	중	83.1	63.4	85.5	78.5
	하	82.8	61.6	83.6	76.2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83.6	63.9	85.3	78.8
	중소도시	82.0	63.5	83.1	77.6
	읍/면	84.9	66.3	84.9	77.6
전체		83.0	63.9	84.2	78.2

그 외 경제수준 및 거주지역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의 차이는 비교적 크지 않았다. 경제수준에 따른 동의 정도 차이의 범위는 0.3%~2.7% 정도였으며, 거주지역에 따른 동의 정도 차이는 1.2%~2.9% 정도로 나타났다.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관련 4개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2009 ICCS 조사결과 및 학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2>에 제시한 바와 같다. 2009년 조사대상인 중학교 2학년의 동의 정도와 2009년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모든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2013년 조사결과가 2009 조사 결과 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에 비해 2013년의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수준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2009년 중학교 2학년이었던 고3 학생과 2009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문화는 다른 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의 경우 2009 ICCS 조사에서의 동의 정도는 73.4%인 반면, 2013년 조사에서의 동의 정도는 58.5%로 동의 정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문항에서는 2013 고3의 동의 수준이 2009 ICCS 조사결과 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 학년별

문항 내용	2009 ICCS	2013 NYPI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해 배울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싶다.	81.9	83.1	80.0	81.1	84.6	82.0	86.7
2. 우리나라 문화는 다른 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73.4	69.4	67.1	67.9	63.1	58.1	58.5
3.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87.1	87.2	86.6	85.9	83.4	82.0	80.5
4. 나는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데에 책임감을 느낀다.	76.3	80.1	76.1	76.8	80.5	76.9	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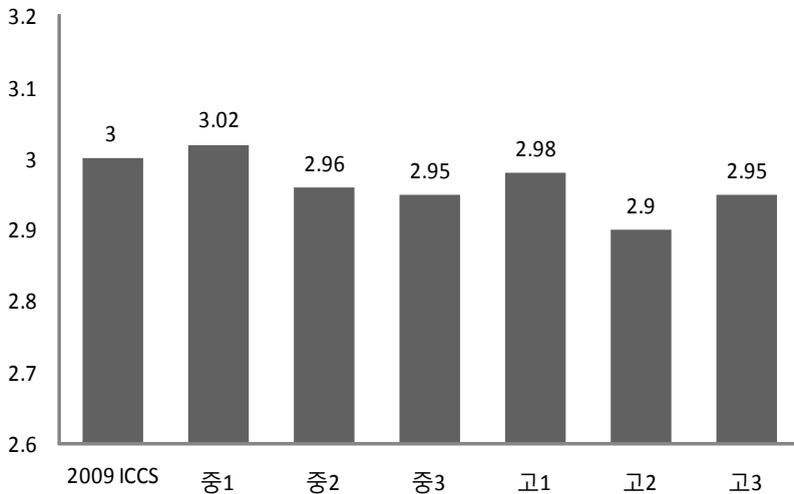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치점한 값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문화에 보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683로 2009년 ICCS 한국 조사의 신뢰도(.69)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 평균은 32.96, 표준편차는 .51로 나타났다.

표 IV-3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점수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검증통계치 (t/F)	사후검증 (scheffe)
성별	남	2,920	2.89	.54	-9.631 (p=.000)	-
	여	3,131	3.02	.46		
학교급	중	2,951	2.97	.53	2.531 (p=.011)	-
	고	3,100	2.94	.49		
성적	1) 상	1,553	2.98	.52	8.019 (p=.000)	1), 2) > 3)
	2) 중	2,608	2.97	.50		
	3) 하	1,890	2.91	.49		
경제 수준	1) 상	2,090	2.98	.52	3.168 (p=.042)	N.S.
	2) 중	2,703	2.95	.49		
	3) 하	1,258	2.94	.51		
거주 지역	1) 특별 /광역시	2,703	2.97	.50	2.829 (p=.059)	N.S.
	2) 중소도시	2,785	2.94	.51		
	3) 읍/면	563	2.97	.51		
전체		6,051	2.96	.51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척도 평균점수를 배경변인별로 구분하여 응답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남자 청소년 2.89, 여자 청소년 3.02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p < .05$). 이러한 결과는 남자 청소년 보다 여자 청소년들이 전통문화 보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급 별로 척도 평균점수 살펴보면, 중학생 2.97점, 고등학생 2.94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별되었다($p < .05$).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전통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적에 따라 비교해 보면, 성적이 상위권인 청소년 2.98, 중위권 2.97, 하위권 2.01점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에 따른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사후검증 결과 성적이 가장 낮은 하위권 집단 청소년의 점수와 다른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p < .05$). 따라서 성적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이 다른 집단 청소년에 비해 전통문화 보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경제수준에 따라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를 비교해 보면 상위계층 2.98, 중간계층 2.95, 하위계층 2.94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 < .05$), 사후검증결과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p < .05$). 거주지역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는 특별/광역시 거주 청소년 2.97,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 2.94, 읍/면 거주 청소년 2.97로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검증되지는 않았다($p < .05$).



【그림 IV-2】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척도점수-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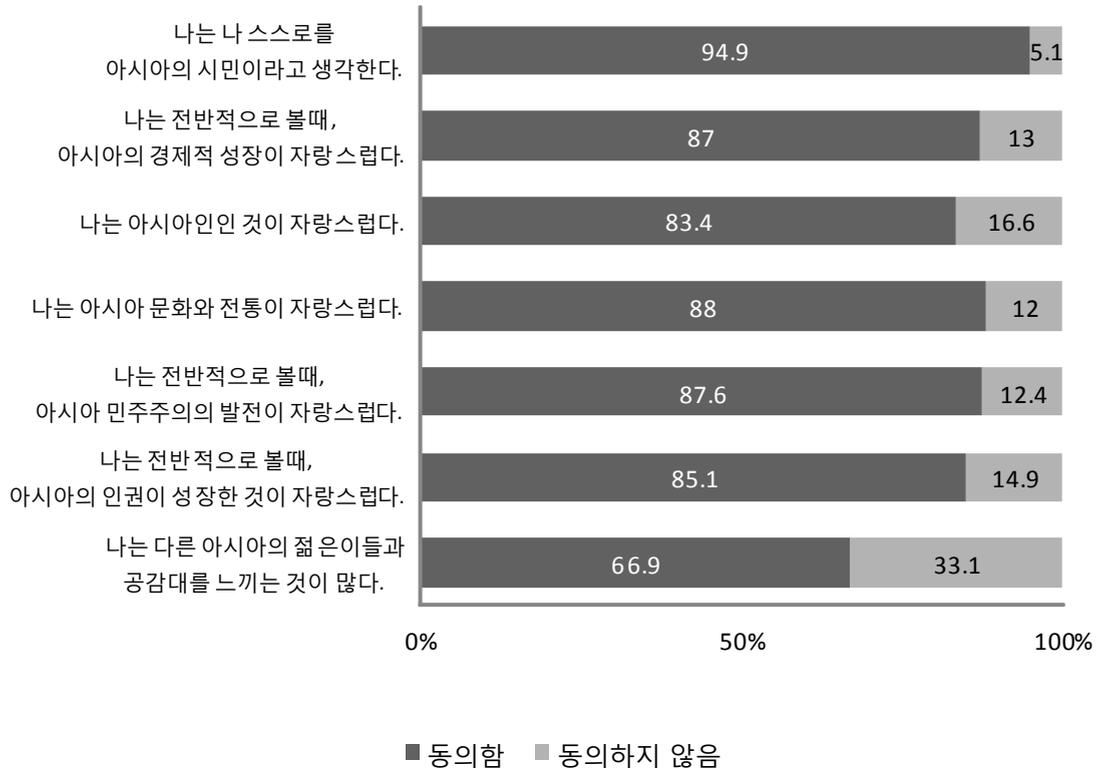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를 2009 ICCS 조사 결과 및 학년별로 비교한 결과는 【그림 IV-2】와 같다. 2009년 중2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척도점수는 3.00점이었으며 2013년 중2의 점수는 2.96점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2013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척도 평균점수의 분포는 290점에서 3.02점 사이에 있었다. 중1시기의 점수가 3.0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고2시기의 점수가 2.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따라서 중1시기에 전통문화 보존에 대해 가장 긍정적 태도를 보이며, 고2시기에 가장 낮은 수준의 전통문화 보존 태도를 갖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평균점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중1을 최고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다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조금씩 점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아시아인의 정체감

아시아인 정체감(students' sense of Asian identity)은 아시아 지역과 아시아인으로서 정체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이다. “나는 나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경제적 성장이 자랑스럽다.”,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아시아 문화와 전통이 자랑스럽다.”,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 민주주의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인권이 성장한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다른 아시아 젊은이들과 공감대를 느끼는 것이 많다.” 등과 같이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감과 관련된 7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정도(①매우 동의함, ②동의함, ③동의하지 않음, ④매우 동의하지 않음)를 조사하였다.

아시아인 정체감과 관련된 7개 문항에 대해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기준(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으로 리코딩하여 응답비율을 분석한 값은 【그림 IV-3】과 같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66.9%~94.6% 정도로 나타났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5.1%~33.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사된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부 문항별로 보면 “나는 나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가 94.9%,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5.1%로 가장 동의하고 있는 아시아인 정체감 관련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나는

다른 아시아인의 젊은이들과 공감대를 느끼는 것이 많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66.9%, 동의하지 않는 정도는 33.1%로 가장 동의하지 않는 아시아인 정체감 관련 문항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 아시아인 정체감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아시아인 정체감 관련 7개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배경변인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하위문항별 남녀 간의 응답 경향을 보면 모든 문항에서 남자 청소년의 동의 비율보다 여자 청소년의 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 청소년 보다 여자 청소년들이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나는 나 스스로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중학생의 동의 정도가 고등학생의 동의수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는 다른 아시아의 젊은이들과 공감대를 느끼는 것이 많다.”의 경우 학교급별 차이가 12.1%로 다른 문항에서의 학교급별 차이보다 크게 나타났다.

표 IV-4

아시아인 정체감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 배경변인별

구분		나는 나 스스로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경제적 성장이 자랑스럽다.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아시아 문화와 전통이 자랑스럽다.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 민주주의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인권이 성장한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다른 아시아의 젊은이들과 공감대를 느끼는 것이 많다.
성별	남	93.5	85.7	80.9	83.9	84.7	85.2	66.1
	여	96.1	88.2	85.8	91.9	90.3	88.3	67.7
학교급	중	94.7	88.3	86.9	88.5	88.6	88.6	73.1
	고	95.0	85.7	80.1	87.6	86.7	85.1	61.0
성적	상	94.6	87.7	81.8	87.1	87.1	87.7	65.2
	중	95.9	88.4	84.8	89.9	88.3	87.1	66.6
	하	93.7	84.4	82.8	86.2	87.1	85.7	68.7
경제수준	상	94.8	86.9	81.9	87.2	87.2	85.9	67.6
	중	95.2	88.7	86.0	89.7	88.6	88.4	68.1
	하	94.3	83.4	80.3	85.8	86.1	84.9	63.3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95.2	87.5	83.8	88.8	88.5	87.4	67.0
	중소도시	94.3	86.4	82.1	86.9	86.4	86.0	66.1
	읍/면	96.4	87.7	88.3	90.2	89.2	88.3	70.3
전체		94.9	87.0	83.4	88.0	87.6	86.8	66.9

성적에 따른 아시아인 정체감 관련 문항의 동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와 “나는 다른 아시아의 젊은이들과 공감대를 느끼는 것이 많다.” 등 2개 문항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성적이 낮은 집단의 동의 정도가 다른 집단보다 낮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그 차이는 1.2%~4.0%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모든 문항에서 하위계층의 동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에 따른 동의 정도에

있어서는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의 동의 비율이 모든 문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아시아인 정체감 관련 7개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2009 ICCS 조사결과 및 학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5>에 제시한 바와 같다. 2009년 조사대상인 중학교 2학년의 동의 정도와 2009년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나는 나 스스로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와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인권이 성장한 것이 자랑스럽다.” 등 두 개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2013년 조사결과가 2009 조사 결과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중학교 2학년이었던 고3 학생간과 2009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는 문항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는 등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인권이 성장한 것이 자랑스럽다.”의 경우에는 다른 문항에 비해 변화정도가 크게 나타났는데 2009 ICCS 조사에서의 동의 정도는 90.5%인 반면, 2013년 조사에서의 동의 정도는 83.7%로 동의 정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아시아인 정체감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 학년별

문항 내용	2009 ICCS	2013 NYPI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 나는 나 스스로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99.8	94.1	95.2	94.8	97.0	94.1	93.9
2.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경제적 성장이 자랑스럽다.	83.7	89.7	88.5	86.8	87.4	84.1	85.5
3.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81.3	89.0	86.8	84.8	81.6	77.8	80.8
4. 나는 아시아 문화와 전통이 자랑스럽다.	86.0	88.5	87.7	89.4	89.1	85.5	88.0
5.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 민주주의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85.5	89.2	88.1	88.5	88.8	85.3	85.7
6.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인권이 성장한 것이 자랑스럽다.	90.5	88.9	90.2	86.5	87.8	83.5	83.7
7. 나는 다른 아시아의 젊은이들과 공감대를 느끼는 것이 많다.	61.9	76.8	72.7	69.9	64.2	60.4	58.4

아시아인 정체감에 대한 척도 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순한 점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시아인으로의 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시아인 정체감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91로 2009년 ICCS 한국 조사의 신뢰도(.8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아시아인 정체감 척도 점수 평균은 3.12 표준편차는 .53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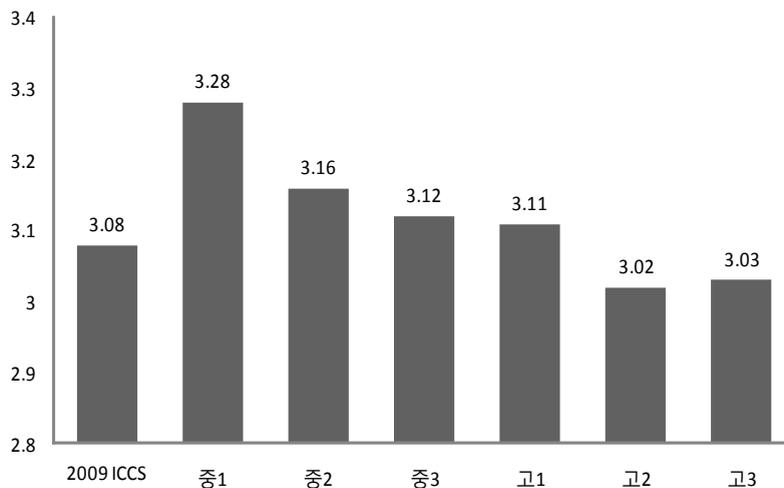
표 IV-6 아시아인 정체감 점수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검증통계치 (t/F)	사후검증 (scheffe)
성별	남	2,920	31.0	.58	-2.247 (p=.025)	-
	여	3,131	31.3	.48		
학교급	중	2,951	3.18	.56	9.689 (p=.000)	-
	고	3,100	3.05	.49		
성적	1) 상	1,553	3.14	.55	6.073 (p=.002)	1), 2) > 3)
	2) 중	2,608	3.13	.51		
	3) 하	1,890	3.08	.53		
경제 수준	1) 상	2,090	3.14	.55	9.265 (p=.000)	1), 2) > 3)
	2) 중	2,703	3.13	.52		
	3) 하	1,258	3.06	.52		
거주 지역	1) 특별/광역시	2,703	3.13	.53	4.123 (p=.016)	1) > 2)
	2) 중소도시	2,785	3.10	.53		
	3) 읍/면	563	3.14	.50		
전체		6,051	3.12	.53		

아시아인 정체감 척도 점수의 차이를 배경변인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IV-6>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 31.0, 여자 청소년 31.3으로 여자 청소년의 척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p < .05$). 따라서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 보다 아시아인으로 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학교급별로 비교해 보면, 중학생 3.18, 고등학생 3.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이는 중학생들이 고등학생 보다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성적, 경제수준, 거주지역에 따른 아시아인 정체감 척도 점수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성적의 경우 상위 수준의 청소년 3.14, 중간 수준 3.13, 하위 수준 3.08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하위수준 청소년들의 점수가 다른 집단 청소년의 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다($p < .05$). 따라서 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감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수준에 따른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상위계층 3.14점, 중간계층 3.13, 하위계층 3.06으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하위계층 청소년들의 점수가 다른 계층의 청소년의 평균점수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p < .05$), 이는 하위계층 청소년들의 아시아인 정체감 수준이 다른 집단 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 별로 살펴보면 읍/면 거주 청소년 3.14, 특별/광역시 거주 청소년 3.13,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 3.1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특별/광역시 거주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의 평균점수 보다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p < .05$).



[그림 IV-4] 아시아인 정체감 척도점수-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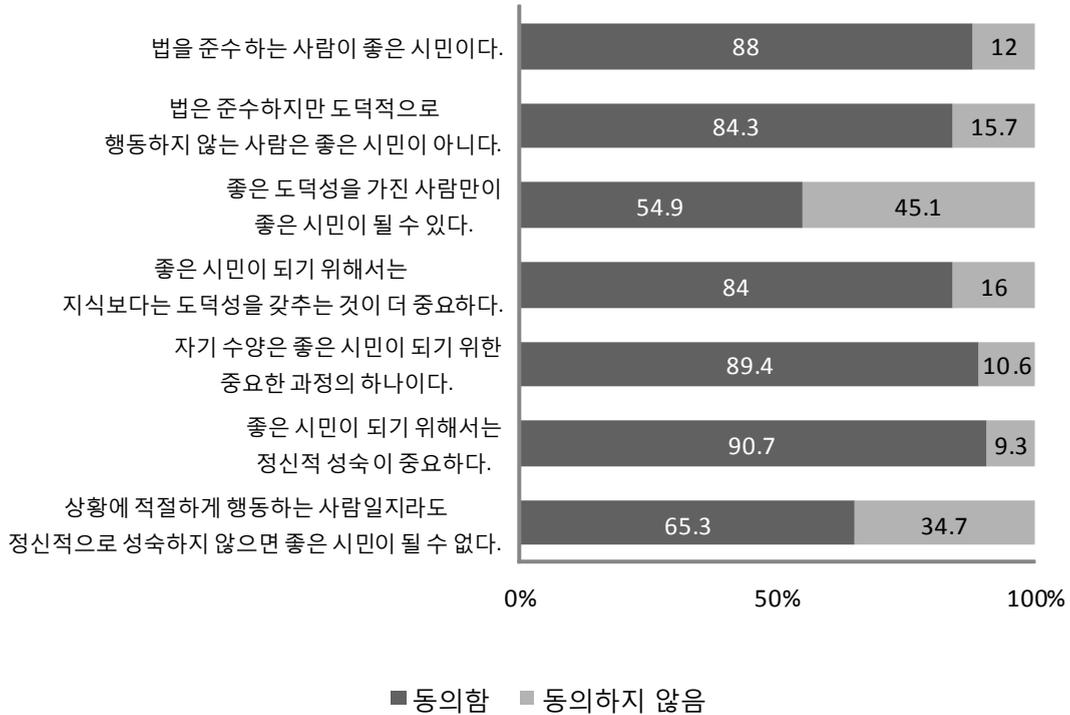
아시아인 정체감 척도 점수를 2009 ICCS 조사 결과 및 학년별로 비교한 결과는 【그림 IV-4】와 같다. 2009년 중2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시아인 정체감 척도점수는 3.08점이었으며 2013년 중2의 점수는 3.16점으로 다소 높아졌다. 2013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시아인 정체감 척도 점수의 분포는 3.02점에서 3.28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중1시기의 점수가 가장 높고 고2시기의 점수가 가장 낮은 감을 보였다. 따라서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감의 경우 중1시기에 가장 높은 정체감 수준을 보이다가 고2시기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반적인 점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중1시기를 정점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시아인 정체감 척도 점수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students' perceptions of good citizenship)은 좋은 시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이다.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법을 준수하면 좋은 시민이다”, “법은 준수하지만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시민이 아니다.”, “좋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만이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다.”,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기 수양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 성숙이 중요하다.”,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일지라도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등과 같이 좋은 시민의 특성을 나타내는 7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정도(①매우 동의함, ②동의함, ③동의하지 않음, ④매우 동의하지 않음)를 조사하였다.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7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동의 여부를 기준(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으로 리코딩하여 응답비율을 분석한 값은 【그림 IV-5】와 같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54.9%~90.7% 정도로 나타났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45.1%~9.3%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시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부 문항별로 보면 “좋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만이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가 54.9%로 다른 문항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문항이었으며,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 성숙이 중요하다.”의 경우 동의 정도가 90.7%로 가장 동의비율이 높은 문항이었다.



【그림 IV-5】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관련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관련 7개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배경변인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성별에 따라 각 문항의 동의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좋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만이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다.”와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일지라도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의 두 문항을 제외한 5개 문항에서 여학생의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의 범위는 1.9%~5.4% 정도였다. 학교급별로 비교한 결과 “좋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만이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다.”를 문항에서만 중학생의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의 범위는 0%~5.7% 정도였다. 따라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좋은 시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성적에 따라 비교해 보면, 모든 문항에서 성적이 낮은 수준의 학생의 동의 정도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차이는 1.2%~6.6%

정도였다. 경제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집단에 따른 일관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그 차이도 0.9%~5.2%에 그쳤다. 거주지역에 따른 동의 여부 역시 집단 간 일관성 있는 응답이 보이지 않았으며, 그 차이는 0.4%~4.5% 수준이었다.

표 IV-7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 배경변인별

구분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좋은 시민이다.	법을 준수하지만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시민이 아니다.	좋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만이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다.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기 수양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 성숙이 중요하다.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일지라도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성별	남	87.0	82.7	57.4	82.5	86.4	89.5	68.1
	여	88.9	85.7	52.7	85.3	92.2	91.8	62.7
학교급	중	88.0	82.1	56.3	83.3	87.5	87.8	62.4
	고	88.0	86.3	53.6	84.6	91.2	93.5	68.0
성적	상	89.5	87.4	55.7	83.3	92.1	92.9	69.0
	중	88.1	84.8	54.8	85.1	90.2	91.4	63.9
	하	86.7	80.8	54.5	82.9	86.1	87.8	64.2
경제수준	상	89.4	83.9	54.4	82.7	90.3	90.2	67.3
	중	87.4	84.5	55.6	84.9	89.6	91.2	65.3
	하	87.0	84.3	54.4	84.0	87.4	90.4	62.1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88.0	85.7	54.5	83.9	90.4	91.1	65.1
	중소도시	88.2	83.5	54.9	84.1	88.5	90.7	65.5
	읍/면	87.2	81.2	57.4	83.5	89.0	89.0	65.2
전체		88.0	84.3	54.9	84.0	89.4	90.7	65.3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관련 7개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2009 ICCS 조사결과 및 학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IV-8>에 제시한 바와 같다. 2009년 조사대상인 중학교 2학년의 동의 정도와 2009년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관련 모든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2013년 조사결과가 2009 조사 결과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문항이 긍정적인 질문으로 구성된 것을 고려해 보면 과거 청소년보다 현재 청소년들의 인식 수준이 낮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중학교 2학년이었던 고3 학생간과 2009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는 문항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는 등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고 그 변화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에 대한 긍정적 변화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V-8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 학년별

문항 내용	2009 ICCS	2013 NYPI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좋은 시민이다.	91.7	88.1	87.8	88.2	88.6	86.8	88.5
2. 법을 준수하지만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좋은 시민이 아니다.	86.4	82.6	81.7	82.2	85.6	85.8	87.4
3. 좋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만이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다.	62.5	56.3	58.4	54.2	54.3	54.7	51.8
4.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85.7	84.1	82.4	83.3	85.2	84.3	84.3
5. 자기 수양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89.6	85.2	88.5	88.8	91.9	90.5	91.1
6.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 성숙이 중요하다.	92.5	86.0	88.5	88.9	92.9	92.4	95.1
7.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일지라도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73.2	62.2	62.4	62.6	65.9	66.9	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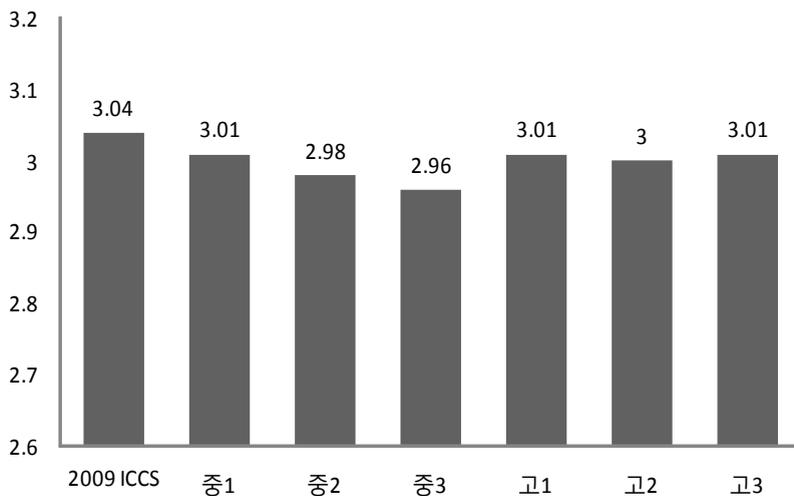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척도 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체점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시민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776으로 2009년 ICCS 한국 조사의 신뢰도(.7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척도 점수 평균은 3.00, 표준편차는 .44로 나타났다.

표 IV-9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척도점수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검증통계치 (t/F)	사후검증 (scheffe)
성별	남	2,920	3.01	.48	2.483 (p=.013)	-
	여	3,131	2.98	.40		
학교급	중	2,951	2.99	.47	-2.013 (p=.044)	-
	고	3,100	3.01	.41		
성적	1) 상	1,553	3.05	.44	23.061 (p=.000)	1) > 2) > 3)
	2) 중	2,608	3.00	.43		
	3) 하	1,890	2.95	.44		
경제 수준	1) 상	2,090	3.01	.45	1.814 (p=.163)	N.S.
	2) 중	2,703	2.99	.43		
	3) 하	1,258	2.99	.44		
거주 지역	1) 특별 /광역시	2,703	3.00	.43	.981 (p=.375)	N.S.
	2) 중소도시	2,785	3.00	.45		
	3) 읍/면	563	2.97	.44		
전체		6,051	3.00	.44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척도 평균점수를 배경변인별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9>와 같이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평균점수는 3.01, 남자 청소년의 평균점수는 2.98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 3.01, 중학생 2.99로 조사되었다. 성별 및 학교급에 따른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p < .05$)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좋은 시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성적에 따라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척도 점수를 비교해 보면 상위권 3.05, 중위권 3.00, 하위권 2.95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에 따른 평균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p < .05$). 사후검증결과 세 집단 모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5$). 이는 성적이 가장 낮은 집단 보다는 중간 집단이, 그리고 중간 집단보다는 성적 상위 집단이 좋은 시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수준 별로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상위계층 3.01, 중위 계층 및 하위계층 모두 2.99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 지역별로 보면, 특별/광역시 거주 청소년과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 모두 3.00,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 2.97로 분석되었다. 통계적 검증 결과 경제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른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척도 평균 점수의 차이는 유의하게 검증되지 않았다($p < .05$).



[그림 IV-6]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척도점수-연령별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척도 평균점수를 2009 ICCS 조사 결과 및 학년별로 비교한 결과는 【그림 IV-6】 과 같다. 2009년 중2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척도 점수는 3.04점이었으나 2013년 중2의 점수는 2.98점으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중2였던 2013년 고3의 점수는 3.01점으로 2009년에 비해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평균점수의 분포는 2.96점에서 3.01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중3시기의 평균점수가 2.9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점수의 변화를 보면 중학교 시기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다시 증가하고 그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른 척도의 점수에 비해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척도 점수는 비교적 안정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5 장

공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

1.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2. 공공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3.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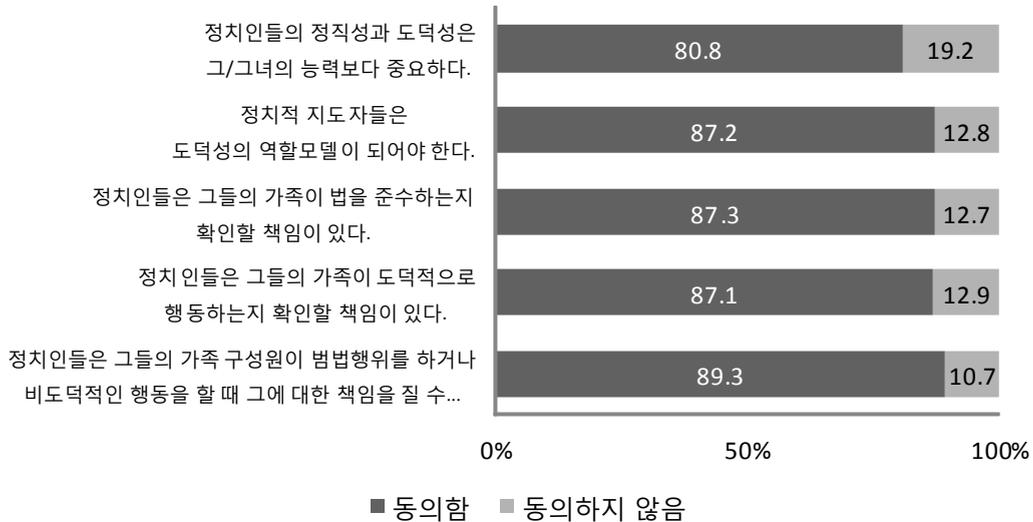
제 5 장

공직 서비스에 대한 인식

1.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students' attitudes toward personal morality of politicians)는 정치인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이다.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정치인들의 정직성과 도덕성은 그/그녀의 능력보다 중요하다.”, “정치적 지도자들은 도덕성의 역할모델이 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이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 구성원이 범법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등과 같이 정치인 자신의 도덕성 및 정치인이 가족의 도덕성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5개의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①매우 동의함, ②동의함, ③동의하지 않음, ④매우 동의하지 않음)를 조사하였다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5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동의 여부를 기준(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으로 리코딩하여 응답비율을 분석한 값은 【그림 V-1】과 같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80.8%~89.3% 정도로 나타났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10.7%~19.2%로 나타났다. 전 문항에 대한 동의 비율이 다른 영역의 동의 비율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문항 간 동의 정도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이와 같이 조사된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정치인들의 도덕적 행동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부 문항별로 보면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 구성원이 범법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가 89.3%,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10.7%로 가장 동의하고 있는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관련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인들의 정직성과 도덕성은 그/그녀의 능력보다 중요하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80.8%, 동의하지 않는 정도는 19.2%로 가장 동의하지 않는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나타났다.



【그림 V-1】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관련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관련 5개의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배경변인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V-1>과 같다. 성별에 따라 하위 문항의 동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모든 문항에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은 동의 정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동의 정도 차이는 4.0%~7.7%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정치인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급별로 비교해 보면 모든 문항에서 고등학생이 동의하는 비율이 중학생이 동의하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의 정도의 차이는 4.5%~9.1% 정도였다. 이는 중학생 보다 고등학생이 좀 더 높은 수준의 정치인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성적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관련 문항의 동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 “정치인들의 정직성과 도덕성은 그/그녀의 능력보다 중요하다.”를 제외한 4개 문항에서 상위권 청소년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문항에서 하위권 청소년들의 응답이 가장 낮은 동의수준을 보였다. 전체적인 동의 정도의 차이는 6.5%~12.6% 수준이었다. 경제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에 있어서 집단에 따른 일관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그 차이도 0.9%~1.8%에 그쳤다. 거주지역에 따른 동의 여부 역시 집단 간 일관성 있는 응답이 보이지 않았으며, 그 차이는 1.7%~9.8% 수준이었다.

표 V-1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 배경변인별

구분		정치인들의 정직성과 도덕성은 그/그녀의 능력보다 중요하다.	정치적 지도자들은 도덕성의 역할모델이 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이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 구성원이 범법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성별	남	78.8	83.9	83.4	83.1	85.5
	여	82.8	90.3	90.9	90.8	92.8
학교급	중	76.2	82.7	83.9	84.3	87.0
	고	85.3	91.5	90.5	89.7	91.5
성적	상	85.4	92.0	91.2	91.2	92.1
	중	87.2	88.3	88.4	87.7	90.3
	하	74.6	81.9	82.5	82.8	85.6
경제수준	상	80.2	86.5	87.5	86.5	89.2
	중	81.2	88.2	87.2	87.4	88.9
	하	81.0	86.4	87.2	87.4	90.1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81.8	87.7	88.3	88.1	90.2
	중소도시	80.3	86.6	86.1	86.0	88.4
	읍/면	78.9	88.3	88.1	88.7	98.2
전체		80.8	87.2	87.3	87.1	89.3

정치인들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관련 5개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2009 ICCS 조사결과 및 학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V-2>에 제시한 바와 같다. 2009년 조사대상인 중학교 2학년의 동의 정도와 2009년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모든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2013년

조사결과가 2009 조사 결과 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도덕적인 태도에 대한 요구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09년 중학교 2학년이었던 고3 학생간과 2009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모든 문항에서 2013년 조사의 동의 정도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치인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요구수준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표 V-2 정치인들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 학년별

문항 내용	2009 ICCS	2013 NYPI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 정치인들의 정식성과 도덕성은 그/그녀의 능력보다 중요하다.	78.7	72.6	76.8	79.0	86.3	84.3	85.2
2. 정치적 지도자들은 도덕성의 역할모델이 되어야 한다.	86.6	78.2	82.4	87.5	92.0	92.2	92.3
3.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이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86.9	81.7	84.3	85.7	89.6	89.8	92.1
4.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88.5	80.9	84.5	87.5	89.7	90.0	89.5
5.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 구성원이 범법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91.3	85.2	86.3	89.5	91.5	90.6	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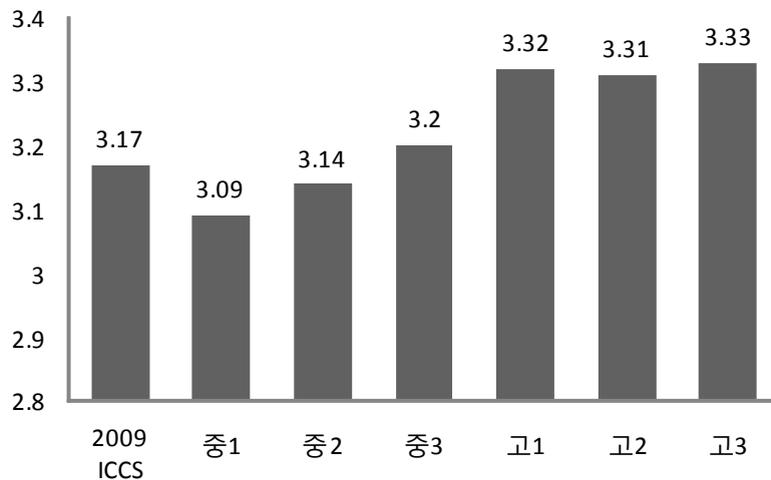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를 역체점한 점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인들의 도덕적인 행동의 중요성에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13으로 2009년 ICCS 한국 조사의 신뢰도(.7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 평균은 3.24, 표준편차는 .57로 나타났다.

표 V-3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척도점수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검증통계치 (t/F)	사후검증 (scheffe)
성별	남	2,920	3.12	.62	-7.263 (p=.000)	-
	여	3,131	3.29	.51		
학교급	중	2,951	3.15	.60	-11.954 (p=.000)	-
	고	3,100	3.32	.52		
성적	1) 상	1,553	3.35	.53	85.845 (p=.000)	1), 2) > 3)
	2) 중	2,608	3.26	.55		
	3) 하	1,890	3.11	.59		
경제 수준	1) 상	2,090	3.25	.59	1.783 (p=.168)	N.S.
	2) 중	2,703	3.22	.56		
	3) 하	1,258	3.25	.56		
거주 지역	1) 특별 /광역시	2,703	3.25	.56	2.991 (p=.050)	N.S.
	2) 중소도시	2,785	3.23	.58		
	3) 읍/면	563	3.20	.53		
전체		6,051	3.24	.57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배경변인에 따라 척도의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V-3>과 같다. 여자 청소년의 평균점수는 3.29, 남자 청소년의 평균점수는 3.12로 차이를 보였으며, 고등학생 3.32, 중학생 3.15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p<.05). 따라서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보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정치인들의 도덕적 행동의 중요성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성적에 따라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점수를 비교해 보면, 상위권 청소년 3.35, 중위권 3.26, 하위권 3.1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p < .05$). 사후검증 결과 상위권 청소년 및 중위권 청소년과 하위권 청소년간의 점수 차이가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는데($p < .05$), 이러한 결과는 성적이 하위권인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 청소년들에 비해 정치인들의 도덕적 행동의 중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수준에 따라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점수를 살펴보면 상위 계층 3.25, 중간계층 3.22, 하위계층 3.20으로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특별/광역시 거주 청소년 3.25, 중소도시 3.23, 읍/면 3.20으로 조사되었다. 경제 수준 및 거주 지역에 따른 평균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p < .05$).



【그림 V-2】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척도점수-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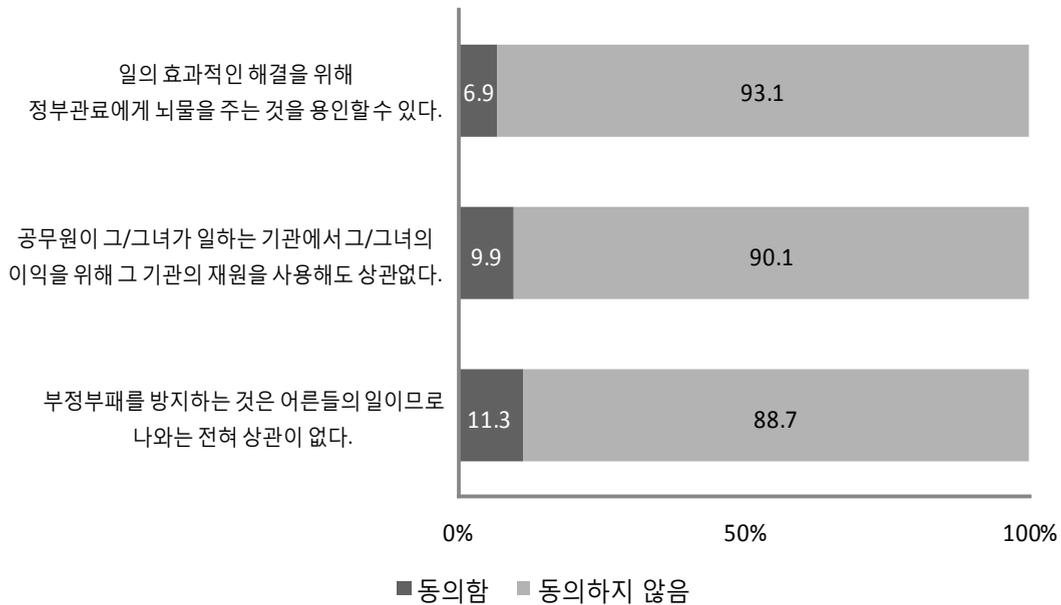
정치인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 평균점수를 2009 ICCS 조사 결과 및 학년별로 비교한 결과는 【그림 V-2】와 같다. 2009년 중2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치인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태도 척도 평균 점수는 3.17점이었으며 2013년 중2의 점수는 3.14점으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9년 중2였던 2013년 고3의 점수는 3.33점으로 2009년 조사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는 3.09점에서 3.33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다. 중1시기의 점수가 3.0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고3시기의 점수는 3.33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1시기에

정치인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가 가장 낮으며 고3시기에는 정치인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가장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반적인 점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중1시기를 최저점으로 고1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고1이후 큰 변화 없이 평균점수가 유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는 중학교시기에 형성되고 고등학교 이후에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공적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students' attitudes toward corruption in public service)는 공적업무에서의 부패에 대한 청소년의 수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이다. 공적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측정을 위해 “일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공무원이 그/그녀가 일하는 기관에서 그/그녀의 이익을 위해 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어른들의 일이므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등과 같이 공적업무에서의 부패에 대한 수용적인 3개의 진술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정도(①매우 동의함, ②동의함, ③동의하지 않음, ④매우 동의하지 않음)를 조사하였다.

공적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3개 항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기준(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으로 리코딩하여 응답비율을 분석한 값은 【그림 V-3】 과 같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6.6%~11.3% 정도로 나타났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88.7%~93.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사된 3개 항목 모두에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해 매우 수용적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부 문항별로 살펴보면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어른들의 일이므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에 대한 동의 정도가 11.3%로 관련 문항 중 가장 동의 비율이 높은 수준의 문항이었고, “일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6.9%로 가장 동의 하지 않는 문항이었다.



【그림 V-3】 공적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관련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3개의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배경변인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V-4>와 같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3개 문항 모두에서 남자 청소년의 동의 비율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동의 정도 차이 범위는 5.7%~8.4%였다.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보면 역시 모든 문항에서 중학생의 동의 정도가 고등학생의 동의 정도 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차이의 범위는 2.2%~5.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그리고 중학생 보다 고등학생이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해 수용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에 따라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관련 문항의 동의 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문항에서 성적이 높은 수준의 청소년의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성적이 낮은 수준의 청소년의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적이 낮은 집단이 성적이 높은 집단에 비해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해 수용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집단에 따른 일관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그 차이도 0.8%~1.8%에 그쳤다. 거주 지역에 따른 동의 여부 역시 집단 간 일관성 있는 응답이 보이지 않았으며, 그 차이는 1.4%~2.3% 수준이었다.

표 V-4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 배경변인별

구분		일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공무원이 그/그녀가 일하는 기관에서 그/그녀의 이익을 위해 그 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어른들의 일이므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성별	남	9.8	13.5	15.7
	여	4.1	6.5	7.3
학교급	중	8.0	12.6	14.0
	고	5.8	7.3	8.8
성적	상	5.8	6.4	8.5
	중	6.2	9.5	10.5
	하	8.6	13.2	14.7
경제 수준	상	7.8	9.5	11.2
	중	6.5	10.0	11.7
	하	6.0	10.3	10.7
거주 지역	특별/광역시	6.7	9.2	10.6
	중소 도시	7.3	10.2	12.0
	읍/면	5.7	11.5	11.4
전체		6.9	9.9	11.3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관련 3개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2009 ICCS 조사결과 및 학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V-5>에 제시한 바와 같다. 2009년 조사대상인 중학교 2학년의 동의 정도와 2009년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어른들의 일이므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의 경우 2009년 조사에서는 동의 정도가 전체 응답자의 11.5%였으나 2013년 조사에서는 14.9%로 동의 수준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그 외 문항에서는

그 변화가 크지 않았다. 2009년 중학교 2학년이었던 고3 학생간과 2009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모든 문항에서 2013년 조사의 동의 정도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장과정에서 공적서비스 부패에 대한 용인하지 않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5 공적 서비스 부패 대한 태도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 학년별

문항 내용	2009 ICCS	2013 NYPI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 일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8.0	9.0	8.2	6.7	4.0	7.7	5.8
2. 공무원이 그/그녀가 일하는 기관에서 그/그녀의 이익을 위해 그 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12.8	15.2	11.8	10.8	7.9	8.2	5.9
3.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어른들의 일임으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11.5	14.4	14.9	12.5	8.7	9.7	7.8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해 수용적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적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627로 2009년 ICCS 한국 조사의 신뢰도 (.63)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 평균은 3.36, 표준편차는 .51이었다.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척도 평균 점수를 배경변인에 따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V-6>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3.42, 남자 청소년 평균점수 3.30으로 여자 청소년의 점수가 높았으며, 학교급 별로 보면 고등학생 3.42, 중학생 3.31로 중학생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공적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p < .05$).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자 청소년 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그리고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공적 서비스 부패의 수용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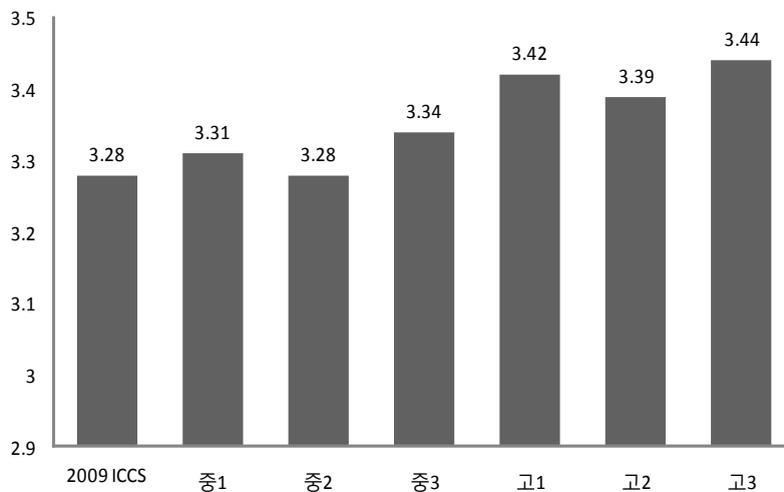
표 V-6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검증통계치 (t/F)	사후검증 (scheffe)
성별	남	2,920	3.30	.57	-18.925 (p=.000)	-
	여	3,131	3.42	.45		
학교급	중	2,951	3.31	.54	-8.524 (p=.000)	-
	고	3,100	3.42	.48		
성적	1) 상	1,553	3.47	.48	75.278 (p=.000)	1), 2) > 3)
	2) 중	2,608	3.38	.50		
	3) 하	1,890	3.26	.53		
경제수준	1) 상	2,090	3.37	.52	2.567 (p=.077)	N.S.
	2) 중	2,703	3.35	.51		
	3) 하	1,258	3.39	.50		
거주지역	1) 특별/광역시	2,703	3.37	.51	3.767 (p=.023)	1), 2) > 3)
	2) 중소도시	2,785	3.37	.52		
	3) 읍/면	563	3.31	.47		
전체		6,051	3.36	.51		

성적에 따른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는 상위권 청소년 3.47, 중위권 3.38, 하위권 3.2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적에 따른 평균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으며($p < .05$), 사후검증 결과 하위권 집단의 점수가 다른 집단 청소년들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5$). 이는 성적이 낮은 수준의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하위계층 3.39, 상위계층 3.37, 중간계층 3.35점의 순으로 조사되어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로 밝혀지지는 않았다($p < .05$). 거주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특별/광역시 거주 청소년과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 모두 3.37로 읍/면 거주 청소년(3.3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p < .05$). 사후검증 결과 읍/면 지역 거주 청소년의 점수가 다른 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다($p < .05$).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읍/면 지역 거주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 거주 청소년들에 비해 공공 서비스 부패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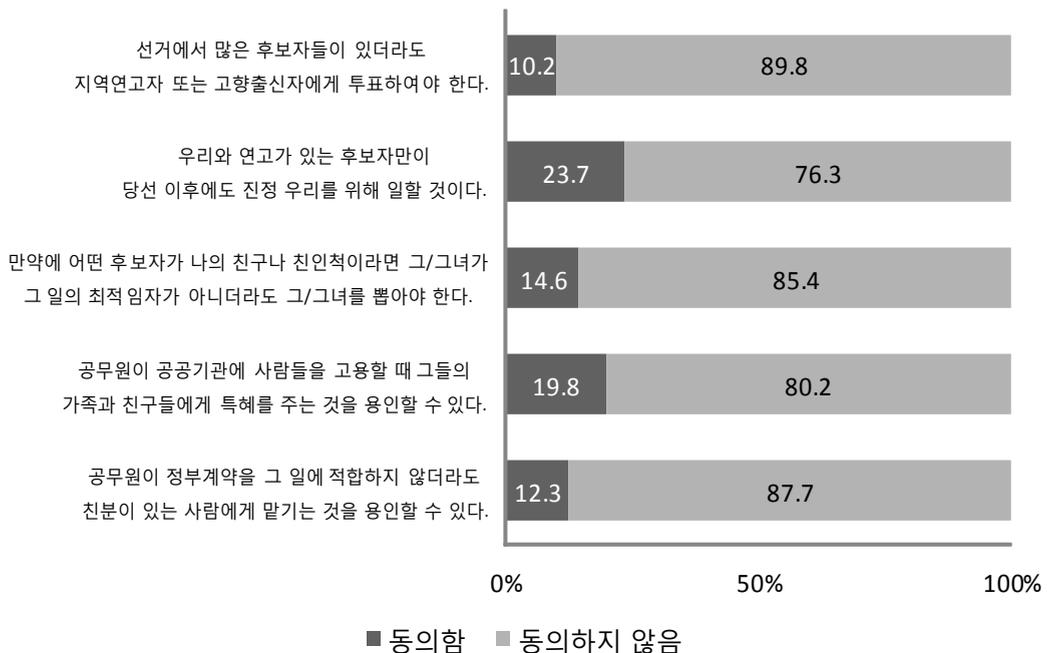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를 2009 ICCS 조사 결과 및 학년별로 비교한 결과는 【그림 V-4】와 같다. 2009년 중2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척도 평균 점수는 3.28점이었으며 2013년 중2의 점수는 3.28점으로 변화가 없었다. 2009년 중2였던 2013년 고3의 점수는 3.44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서비스 부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는 과거에 비해 변화가 없으며, 성장과정에서 공적서비스 부패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3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의 분포는 3.28점에서 3.44점 사이에 있었으며, 중2 시기의 점수가 3.28로 가장 낮았고 고3시기의 점수가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2 시기 청소년들이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가장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고3시기 청소년들이 가장 수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의 전반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중2, 고2 시기에 다소 감소하기는 하지만 중1시기부터 고3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V-4】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척도점수-연령별

3.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use of connections to hold public office)는 공직을 얻기 위해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이다.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있더라도 지역연고자 또는 고향출신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우리와 연고가 있는 후보자만이 당선 이후에도 진정 우리를 위해 일할 것이다.”, “만약에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나 친인척이라면 그/그녀가 그 일의 최적임자가 아니더라도 그/그녀를 뽑아야 한다.”,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사람들을 고용할 때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공무원이 정부계약을 그 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등 선거 또는 공적 업무에 있어서 친분관계의 고려와 관련된 5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정도(①매우 동의함, ②동의함, ③동의하지 않음, ④매우 동의하지 않음)를 조사하였다.



【그림 V-5】 공적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관련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

공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5개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기준(동의함/동의하지 않음)으로 리코딩하여 응답비율을 분석한 값은 【그림 V-5】와 같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10.2%~23.7% 정도로 나타났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76.3%~89.8% 나타났다. 이처럼 조사된 모든 문항에서 청소년들의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공직 업무에서 개인적 관계 활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부 문항별로 보면, “우리와 연고가 있는 후보자만이 당선 이후에도 진정 우리를 위해 일할 것이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23.7%,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76.3%로 조사되어 가장 동의하는 문항이었으며, “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있더라도 지역연고자 또는 고향 출신자에게 투표하여야 한다.”의 경우 동의 비율이 10.2%,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89.8%로 가장 동의하지 않는 문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직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관련 5개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배경변인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V-7>과 같다. 하위문항별 남녀 간의 응답차이는 비교적 크게 나타났는데, 모든 문항에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은 동의 정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그 차이의 범위는 8.6%~11.1% 수준이었다. 학교급별로 응답의 경우에는 모든 문항에서 중학생의 동의 비율이 고등학생의 동의 비율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차이 범위는 5.5%~11.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이, 고등학생 보다는 중학생이 공직업무에서 개인적 관계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적에 따라 공직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관련 5개 하위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모든 문항에서 성적이 하위권인 청소년의 응답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만약에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나 친인척이라면 그/그녀가 일의 최적임자가 아니더라도 그/그녀를 뽑아야 한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성적 상위권 청소년의 동의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성적에 따른 동의 정도 차이는 4.4%~14.0% 수준이었다. 경제 수준에 따른 동의 정도의 차이는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사람들을 고용할 때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하위계층 청소년들의 동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각 문항에 대한 경제 수준에 따른 동의 정도 차이는 0.5%~4.4%에 그쳐 그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 거주 지역에 따른 각 문항의 동의 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문항에서 특별/광역시 거주 청소년의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공무원이 정부계약을 그 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읍/면 거주 청소년의 동의 정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따른 동의 정도의 차이는 1.6%~5.8% 수준이었다.

표 V-7

공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 배경변인

구분		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있더라도 지역 연고자 또는 고향출신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우리와 연고가 있는 후보자만이 당선 이후에도 진정 우리를 위해 일할 것이다.	만약에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나 친인척이라면 그/그녀가 그 일의 최적임자가 아니더라도 그/그녀를 뽑아야 한다.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사람들을 고용할 때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공무원이 정부계약을 그 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성별	남	15.3	28.2	19.2	25.2	18.0
	여	5.4	19.6	10.3	14.7	6.9
학교급	중	13.1	29.6	15.9	23.1	15.1
	고	7.4	18.1	13.4	16.6	9.6
성적	상	8.0	17.3	13.5	16.9	9.3
	중	8.6	22.0	13.1	17.5	11.0
	하	14.3	31.3	17.5	25.2	16.6
경제수준	상	11.3	23.7	16.7	20.7	13.3
	중	10.0	23.9	14.0	19.2	12.4
	하	8.9	23.4	12.3	19.5	10.3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9.4	22.4	13.5	19.2	11.5
	중소도시	10.7	24.1	15.4	20.0	13.1
	읍/면	11.5	28.2	15.5	21.3	12.1
전체		10.2	23.7	14.6	19.8	12.3

공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관련 5개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2009 ICCS 조사결과 및 학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V-8>에 제시한 바와 같다. 2009년 조사대상인 중학교 2학년의 동의 정도와 2009년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만약에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나 친인척

이러면 그/그녀가 그 일의 최적임자가 아니더라도 그/그녀를 뽑아야 한다.”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2013년 동의 정도가 2009년 동의 수준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중학교 2학년이었던 고3 학생간과 2009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모든 문항에서 2013년 조사의 동의 정도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적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V-8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관련 하위문항의 동의 정도 (%) - 학년
변

문항 내용	2009 ICCS	2013 NYPI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 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있더라도 지역 연고자 또는 고향출신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9.9	15.4	13.0	11.1	8.3	7.4	6.6
2. 우리와 연고가 있는 후보자만이 당선 이후에도 진정 우리를 위해 일할 것이다.	28.6	33.9	31.6	23.4	20.0	19.4	14.9
3. 만약에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나 친인척이라면 그/그녀가 그 일의 최적임자가 아니더라도 그/그녀를 뽑아야 한다.	16.1	18.9	15.7	13.0	13.2	13.9	13.0
4.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사람들을 고용할 때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20.3	28.3	21.4	19.7	17.7	17.4	14.7
5. 공무원이 정부계약을 그 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14.4	18.8	15.2	11.3	10.1	10.5	8.2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는 항목별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을수록 공직을 얻기 위해 개인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35로 2009년 ICCS 한국 조사의 신뢰도(.83)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의 평균은 3.21, 표준편차는 .59로 나타났다.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의 평균값을 배경 변인에 따라 집단별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V-9>와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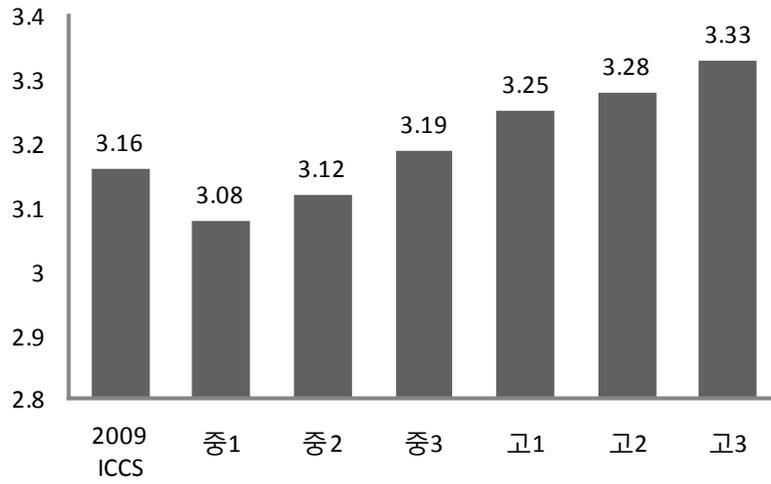
표 V-9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검증통계치 (t/F)	사후검증 (scheffe)
성별	남	2,920	3.11	.65	-12.794 (p=.000)	-
	여	3,131	3.31	.52		
학교급	중	2,951	3.13	.62	-10.492 (p=.000)	-
	고	3,100	3.29	.55		
성적	1) 상	1,553	3.31	.57	75.463 (p=.000)	1) > 2) > 3)
	2) 중	2,608	3.25	.58		
	3) 하	1,890	3.08	.61		
경제 수준	1) 상	2,090	3.20	.61	4.369 (p=.013)	3) > 1). 2)
	2) 중	2,703	3.20	.59		
	3) 하	1,258	3.26	.57		
거주 지역	1) 특별 /광역시	2,703	3.25	.59	11.846 (p=.000)	1) > 2) > 3)
	2) 중소도시	2,785	3.20	.60		
	3) 읍/면	563	3.13	.56		
전체		6,051	3.21	.59		

성별에 따라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척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 3.31, 남자 청소년 3.11로 여자 청소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 3.13, 고등학생 3.29로 고등학생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평균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p < .05$). 따라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그리고 중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공적 업무에서 개인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성적에 따라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척도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상위권 3.31 중위권 3.25, 하위권 3.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에 따른 집단별 평균점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5$), 사후검증 결과 각 집단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p < .05$). 이러한 결과는 성적이 낮은 집단의 학생이 성적이 높은 집단 학생보다 공적 업무에서 개인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수준에 따라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상위계층과 중간계층 모두 3.20으로 나타났으며, 하위계층의 경우 3.26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른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 < .05$), 사후검증 결과 하위계층의 점수가 다른 계층의 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다($p < .05$).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상위계층 및 중간 계층의 청소년이 하위계층의 청소년보다 공적업무에서 개인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 지역에 따라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특별/광역시 3.25, 중소도시 3.20, 읍/면 3.13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 < .05$), 사후검증 결과, 각 집단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p < .05$). 이러한 결과는 특별/광역시 거주 청소년보다는 중소도시 청소년이 그리고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보다는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이 공적 업무에서 개인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척도 평균점수를 2009 ICCS 조사 결과 및 학년별로 비교한 결과는 【그림 V-6】 과 같다. 2009년 중2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평균점수는 3.16점이었으며 2013년 중2의 점수는 3.12점으로 다소 낮아졌으며, 2009년 중2였던 2013년 고3의 점수는 3.33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는 과거에 비해 큰 변화가 없으며, 성장과정에서 공적 업무에서 관계활용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3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년에 따른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의 분포는 3.08점에서 3.33점 사이에 있었다. 중1시기의 평균점수가 3.0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중1시기가 공적 업무에서 개인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가장 허용적인 태도를 갖는 시기였으며, 고3시기의 평균점수가 3.33점으로 고3시기가 공적 업무에서 개인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가장 허용적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점수는 중1시기를 최저점으로 하여 고3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공적 업무에서 개인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V-6】 공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척도점수-연령별

제 6 장

교내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민주시민역량

1. 교내활동 참여와 민주시민역량
2.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민주시민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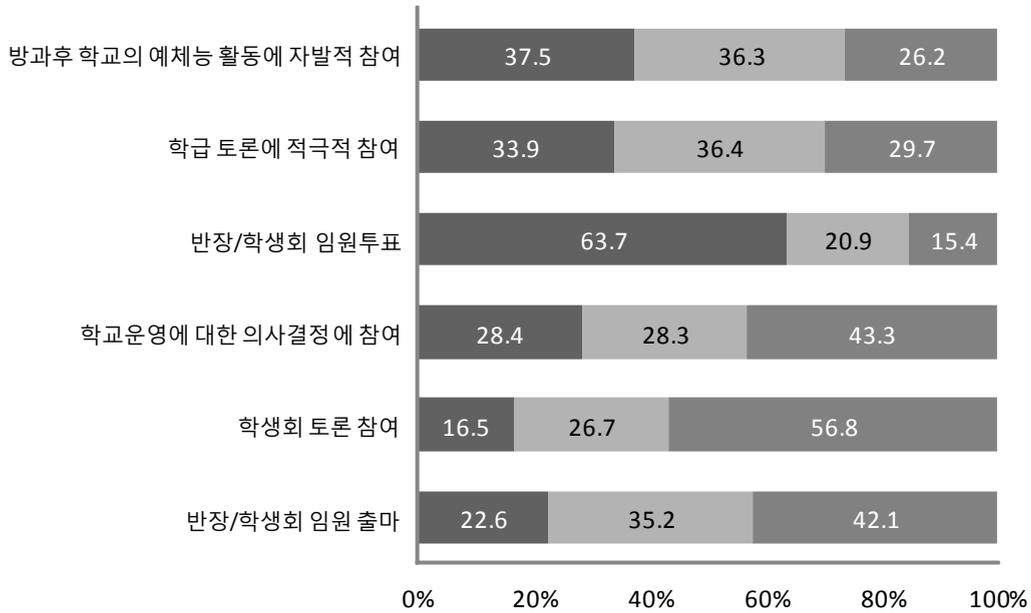
제 6 장

교내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민주시민역량

1. 교내활동 참여와 민주시민 역량

청소년들의 학교 내 참여 경험에 따른 민주시민역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학교 내 시민적 참여활동 경험 정도를 활용하였다. 학교 내 참여활동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방과 후 학교의 예체능 활동에 자발적 참여”, “학급 토론에 적극적 참여”, “반장/학생회 임원 투표”,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학생회 토론 참여”,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등 6개의 활동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① 최근 1년 동안 참여한 적이 있다’, ‘② 1년보다 더 이전에 참여한 적이 있다’, ‘③ 참여한 적이 없다’ 등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청소년들의 교내활동에 대한 참여 경험 정도는 【그림 VI-1】과 같다. 교내활동으로 제시한 6가지 활동 중 가장 참여가 많은 활동은 “반장/학생회 임원 투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63.7%가 최근 1년 동안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5.4%에 그쳤다. 그 외에도 “방과 후 학교의 예체능 활동에 자발적 참여”와 관련해서도 최근 1년 동안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37.5%,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26.2%로 비교적 참여 빈도가 높은 교내 활동이었다. 반면 “학생회 토론참여”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6.5%, 1년 보다 더 이전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6.7%,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56.8%로 가장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교내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와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의 경우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42.1%, 43.3%로 청소년들의 참여가 적은 교내활동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최근 1년 동안 참여한 적이 있다. ■ 1년보다 더 이전에 참여한 적이 있다. ■ 참여한 적이 없다.

【그림 VI-1】 교내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

청소년의 교내활동 참여와 민주시민역량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내활동 점수는 교내활동 참여 관련 6개 문항의 응답을 역체점한 값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교내활동 점수가 높을수록 교내활동의 참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내활동과 ICCS 아시안 지역 질문지에서 조사하고 있는 9개 영역의 민주시민역량의 상관관계(Pearson's r)는 <표 VI-1>과 같다.

청소년의 교내활동 참여와 민주시민역량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교내활동 참여는 9개 영역의 민주시민역량과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활동 참여는 법률 체계에 대한 인식을 제외한 8개 영역에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관 계수의 값 범위는 .054~.161정도로 상관관계의 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교내 참여활동과 민주시민역량 하위영역 중 "아시아인 정체감"과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의 상관계수는 각각 .161,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의 상관계수는 .156으로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비교적 관계의 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 교내활동과 민주시민역량과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 교내참여	1	.093**	.093**	-.054**	.156**	.161**	.141**	.161**	.124**	.077**
2.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1	.267**	-.015	.051**	.083**	.058**	.167**	.441**	.364**
3.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			1	-.171**	-.103**	-.074**	-.054**	.079**	.302**	.329**
4. 법률 체계에 대한 인식				1	.096**	.194**	.008	-.144**	-.123**	-.158**
5.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1	.358**	.290**	.264**	.139**	.050**
6. 아시아인 정체감						1	.371**	.238**	.128**	.029*
7.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1	.389**	.149**	.063**
8.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1	.314**	.288**
9.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1	.519**
10.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1

* p<.05, ** p<.01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과 관계있는 구체적인 교내활동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방과 후 학교의 예체능 활동에 자발적 참여”, “학급 토론에 적극적 참여”, “반장/학생회 임원투표”,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학생회 토론 참여”,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등 6개의 학교 내 참여활동에 대한 응답 결과에 대해 경험 여부를 기준(참여한 적 있음 / 참여한 적 없음)으로 리코딩하고, 학교 내 참여활동 경험여부에 따른 민주시민역량의 9개 하위 영역에 대한 평균점수 차이를 비교하였다.

청소년들의 학교 내 참여 경험에 따른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척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VI-2>와 같다. 조사에 포함된 6가지 교내 활동 모두에서 각 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척도 점수의 평균점수가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평균점수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점수의 차이는 0.03~0.16의 범위에 있었다. t검증 결과 학생회 토론 참여를 제외한 모든 교내활동과 관련한 참여 여부에 따른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p < .05$). 따라서 조사에 포함된 6가지 교내활동 중 학생회 토론활동을 제외한 5가지 교내활동에서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권위적 정부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반장/학생회 임원투표의 경우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평균점수는 3.12, 참여경험이 없는 청소년 2.96으로 참여 여부에 따른 평균점수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 교내활동 참여에 따른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척도 점수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검증통계치(t)
방과 후 학교의 예·체능 활동에 자발적 참여	참여	4467	3.10	.51	2.977 ($p = .003$)
	비참여	1584	3.06	.55	
학급 토론에 적극적 참여	참여	4253	3.12	.51	5.426 ($p = .000$)
	비참여	1798	3.04	.55	
반장/학생회 임원투표	참여	5119	3.12	.51	7.414 ($p = .000$)
	비참여	932	2.96	.58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참여	3429	3.12	.52	3.976 ($p = .000$)
	비참여	2622	3.06	.53	
학생회 토론 참여	참여	2615	3.11	.52	1.623 ($p = .105$)
	비참여	3436	3.08	.53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참여	3501	3.13	.51	6.183 ($p = .000$)
	비참여	2550	3.04	.54	
전체		6051	3.09	.52	

표 VI-3 교내활동 참여에 따른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 척도 점수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검증통계치(t)
방과 후 학교의 예·체능 활동에 자발적 참여	참여	4,467	2.91	.60	2.593 (p=.010)
	비참여	1,584	2.86	.63	
학급 토론에 적극적 참여	참여	4,253	2.93	.60	5.781 (p=.000)
	비참여	1,798	2.83	.61	
반장/학생회 임원투표	참여	5,119	2.92	.60	7.303 (p=.000)
	비참여	932	2.76	.61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참여	3,429	2.93	.60	4.198 (p=.000)
	비참여	2,622	2.86	.61	
학생회 토론 참여	참여	2,615	2.91	.52	1.776 (p=.076)
	비참여	3,436	2.89	.53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참여	3,501	2.94	.61	6.347 (p=.000)
	비참여	2,550	2.84	.60	
전체		6,051	2.90	.61	

청소년들의 학교 내 참여 경험에 따른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 척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VI-3>과 같다. 조사에 포함된 6가지 교내 활동 모두에서 각 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권위에 대한 순종태도 척도 점수의 평균점수가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t검증 결과 학생회 토론 참여를 제외한 모든 교내활동과 관련한 참여 여부에 따른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p < .05$). 따라서 조사에 포함된 6가지 교내활동 중 학생회 토론활동을 제외한 5가지 교내활동에서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권위에 대해 순종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교내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평균 점수의 차이는 0.02~0.16의 범위에 있었으며, 반장/학생회 임원투표의 경우 참여 여부에 따른 평균점수 차이가 0.16점으로 가장 차이가 큰 교내 활동이었다.

그리고 학급토론에 적극적 참여 및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의 경우 평균차이가 0.1점으로 비교 다른 활동에 비해 참여 여부에 따른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VI-4 교내활동 참여에 따른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척도 점수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검증통계치(t)
방과 후 학교의 예·체능 활동에 자발적 참여	참여	4,467	2.37	6.64	.119 (p=.905)
	비참여	1,584	2.37	6.63	
학급 토론에 적극적 참여	참여	4,253	2.35	.64	-3.427 (p=.001)
	비참여	1,798	2.41	.61	
반장/학생회 임원투표	참여	5,119	2.34	.64	-5.870 (p=.000)
	비참여	932	2.47	.59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참여	3,429	2.35	.64	-3.239 (p=.001)
	비참여	2,622	2.40	.63	
학생회 토론 참여	참여	2,615	2.37	.64	.091 (p=.927)
	비참여	3,436	2.37	.63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참여	3,501	2.34	.64	-4.724 (p=.000)
	비참여	2,550	2.41	.63	
전체		6,051	2.37	.63	

청소년들의 학교 내 참여 경험에 따른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척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VI-4>와 같다. 분석 결과 방과 후 학교의 예·체능 활동에 자발적 참여 및 학생회 토론 참여의 경우 각 교내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교내활동의 경우 다른 민주시민역량 관련 척도와는 달리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그 차이의 범위는 0.05~0.13 정도였으며, 반장/학생회 임원투표의 참여 여부에 따른 점수 차이가 0.13점으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척도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자국의 법과 사법체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내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 보다 법률체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I-5 교내활동 참여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검증통계치(t)
방과 후 학교의 예·체능 활동에 자발적 참여	참여	4,467	2.98	.49	5.582 (p=.000)
	비참여	1,584	2.89	.55	
학급 토론에 적극적 참여	참여	4,253	3.00	.49	10.034 (p=.000)
	비참여	1,798	2.85	.53	
반장/학생회 임원투표	참여	5,119	2.98	.50	6.440 (p=.000)
	비참여	932	2.86	.53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참여	3,429	3.01	.50	9.051 (p=.000)
	비참여	2,622	2.89	.51	
학생회 토론 참여	참여	2,615	3.01	.50	7.357 (p=.000)
	비참여	3,436	2.92	.51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참여	3,501	2.99	.50	5.846 (p=.000)
	비참여	2,550	2.91	.51	
전체		6,051	2.96	.51	

청소년들의 학교 내 참여 경험에 따른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VI-5>와 같다. 조사에 포함된 6가지 교내 활동 모두에서 각 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척도 평균점수가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평균점수 보다 높게 나타났다($p < .05$). 평균점수의 차이는 0.08~0.15의 범위에 있었으며, 학급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3.00,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2.85로 가장 큰 점수 차이를 보였다. 반장/학생회 임원투표 및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여부에 따른 평균점수는 0.12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조사에 포함된 6가지 교내활동의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전통문화 보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VI-6 교내활동 참여에 따른 아시아인 정체감 척도 점수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검증통계치(t)
방과 후 학교의 예·체능 활동에 자발적 참여	참여	4467	3.15	.51	7.397 (p=.000)
	비참여	1584	3.03	.56	
학급 토론에 적극적 참여	참여	4253	3.16	.51	10.257 (p=.000)
	비참여	1798	3.01	.56	
반장/학생회 임원투표	참여	5119	3.14	.52	6.232 (p=.000)
	비참여	932	3.02	.59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참여	3429	3.17	.51	8.695 (p=.000)
	비참여	2622	3.05	.54	
학생회 토론 참여	참여	2615	3.17	.52	7.067 (p=.000)
	비참여	3436	3.08	.53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참여	3501	3.15	.52	6.570 (p=.000)
	비참여	2550	3.07	.54	
전체		6051	3.12	.53	

청소년들의 학교 내 참여 경험 여부에 따른 아시아인 정체감 척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VI-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에 포함된 6가지 각 교내 활동의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아시아인 정체감 척도 평균점수가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따라서 조사에 포함된 6가지 교내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아시아인으로의 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교내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평균 점수의 차이는 0.08~0.15의 범위에 있었으며, 다른 교내 참여활동에 비해 학급토론에 적극적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참여경험이 없는 청소년간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학교의 예·체능활동에 자발적 참여 경험여부, 반장/학생회 임원투표 참여여부,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여부 등도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과의 점수 차이는 0.12로 비교적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교내활동이었다.

표 VI-7 교내활동 참여에 따른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척도 점수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검증통계치(t)
방과 후 학교의 예·체능 활동에 자발적 참여	참여	4,467	3.01	.43	3.534 (p=.000)
	비참여	1,584	2.96	.46	
학급 토론에 적극적 참여	참여	4,253	3.02	.42	5.895 (p=.000)
	비참여	1,798	2.94	.48	
반장/학생회 임원투표	참여	5,119	3.01	.42	5.259 (p=.000)
	비참여	932	2.92	.51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참여	3,429	3.03	.42	6.115 (p=.000)
	비참여	2,622	2.95	.45	
학생회 토론 참여	참여	2,615	3.03	.42	5.462 (p=.000)
	비참여	3,436	2.97	.45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참여	3,501	3.03	.43	6.302 (p=.000)
	비참여	2,550	2.96	.45	
전체		6,051	3.00	.44	

청소년들의 학교 내 참여 경험에 따른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척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VI-7>과 같다. 조사에 포함된 6가지 교내 활동 모두에서 각 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척도 평균점수가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평균점수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 < .05$). 평균점수의 차이는 0.05~0.09의 범위로 각 활동 참여경험간 차이는 크지 않는 편이었다. t검증 결과 학생회 토론 참여를 제외한 모든 교내활동과 관련한 참여 여부에 따른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조사에 포함된 6가지 교내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좋은 시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I-8 교내활동 참여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검증통계치(t)
방과 후 학교의 예·체능 활동에 자발적 참여	참여	4,467	3.27	.55	6.668 ($p=.000$)
	비참여	1,584	3.15	.61	
학급 토론에 적극적 참여	참여	4,253	3.29	.53	11.239 ($p=.000$)
	비참여	1,798	3.10	.62	
반장/학생회 임원투표	참여	5,119	3.28	.54	11.909 ($p=.000$)
	비참여	932	3.01	.64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참여	3,429	3.28	.55	7.138 ($p=.000$)
	비참여	2,622	3.18	.58	
학생회 토론 참여	참여	2,615	3.26	.56	2.946 ($p=.003$)
	비참여	3,436	3.22	.57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참여	3,501	3.29	.54	9.452 ($p=.000$)
	비참여	2,550	3.15	.59	
전체		6,051	3.24	.57	

청소년들의 학교 내 참여 경험에 따른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척도의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VI-8>과 같다. 이 역시 조사에 포함된 6가지 교내 활동 모두에서 각 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척도의 평균 점수가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평균점수 보다 높게 나타났다($p < .05$). 평균점수의 차이는 0.04~0.27의 범위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반장/학생회 임원 투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3.28,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3.01로 가장 큰 점수 차이(0.27)를 보였으며, 학급토론에 적극적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역시 0.19점의 큰 점수차이를 보였다. 반면 학생회 토론 참여여부에 따른 평균점수 차이는 0.04점으로 가장 작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내활동별로 다소 편차는 있지만 조사에 포함된 6가지 교내활동의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VI-9 교내활동 참여에 따른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검증통계치(t)
방과 후 학교의 예·체능 활동에 자발적 참여	참여	4,467	3.38	.50	4.729 (p=.000)
	비참여	1,584	3.31	.53	
학급 토론에 적극적 참여	참여	4,253	3.40	.50	8.962 (p=.000)
	비참여	1,798	3.27	.54	
반장/학생회 임원투표	참여	5,119	3.40	.49	9.901 (p=.000)
	비참여	932	3.19	.58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참여	3,429	3.40	.51	5.631 (p=.000)
	비참여	2,622	3.32	.51	
학생회 토론 참여	참여	2,615	3.37	.53	.593 (p=.553)
	비참여	3,436	3.36	.50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참여	3,501	3.41	.50	7.256 (p=.000)
	비참여	2,550	3.31	.53	
전체		6,051	3.36	.51	

청소년들의 학교 내 참여 경험에 따른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VI-9>와 같다. 조사에 포함된 6가지 교내 활동 모두에서 각 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척도의 평균점수가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평균점수 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균점수의 차이는 0.01~0.21의 범위에 있었으며, 통계적 검증 결과 학생회 토론 참여여부를 제외한 모든 교내활동에서 각 활동의 참여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p < .05$). 반장/학생회 임원투표의 경우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 평균은 3.40,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평균점수는 3.19로 참여여부에 따른 점수 차이가 가장 큰 활동으로 나타났다.

표 VI-10 교내활동 참여에 따른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척도 점수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검증통계치(t)
방과 후 학교의 예·체능 활동에 자발적 참여	참여	4,467	3.23	.60	3.379 ($p=.001$)
	비참여	1,584	3.17	.59	
학급 토론에 적극적 참여	참여	4,253	3.25	.59	6.530 ($p=.000$)
	비참여	1,798	3.14	.60	
반장/학생회 임원투표	참여	5,119	3.25	.58	10.783 ($p=.000$)
	비참여	932	3.01	.64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참여	3,429	3.23	.60	2.961 ($p=.003$)
	비참여	2,622	3.19	.59	
학생회 토론 참여	참여	2,615	3.19	.62	-2.844 ($p=.004$)
	비참여	3,436	3.23	.68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참여	3,501	3.24	.59	4.312 ($p=.000$)
	비참여	2,550	3.17	.59	
전체		6,051	3.21	.59	

청소년들의 학교 내 참여 경험에 따른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척도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VI-10>과 같다. 조사에 포함된 6가지 교내 활동 중 학생회 토론 참여를 제외한 5개 활동에서 각 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p < .05$). 그 차이의 범위는 0.04점에서 0.24점이었으며, 반장/학생회 임원 투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3.25,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3.01로 다른 교내 활동 참여여부에 비해 가장 큰 점수 차이(0.24)를 보였다. 학생회 토론 참여 여부에 따른 점수 차이는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 3.19,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 3.23으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5$).

2.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민주시민역량

자원봉사활동 참여 관련변인과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의 자원봉사 참여여부에 따른 민주시민역량의 차이, 그리고 자원봉사 동기 및 자원봉사 지속의지와 민주시민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6,051명 중 최근 1년간 자원봉사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28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0.7%였으며, 최근 1년간 자원봉사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1,77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9.3%였다.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참여경험이 없는 청소년 간에 민주시민역량 하위 9개 영역에 대한 척도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VI-11>과 같이 나타났다. 민주시민역량 9개 영역 중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최근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평균점수가 자원봉사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검증 결과 아시아인 정체감을 제외한 7개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p < .05$). 최근 1년간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에 따른 집단 간 평균점수의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은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로 참여 경험 유무에 따른 점수 차이가 0.1점으로 나타났으며,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그리고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등 3개 영역에 참여 경험 유무에 따른 점수 차이는 각각 0.09점으로 비교적 평균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난 영역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참여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전반적인 민주시민 역량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VI-11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민주시민역량 하위 척도 점수의 차이 비교

민주시민역량 하위 영역	봉사활동 참여여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검증통계치(t)
1.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참 여	4,281	3.11	.52	3.820 (p=.000)
	비참여	1,770	3.05	.52	
	전 체	6,051	3.09	.52	
2.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	참 여	4,281	2.92	.59	4.708 (p=.000)
	비참여	1,770	2.84	.64	
	전 체	6,051	2.90	.61	
3.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참 여	4,281	2.34	.63	-4.518 (p=.000)
	비참여	1,770	2.43	.64	
	전 체	6,051	2.37	.63	
4.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참 여	4,281	2.98	.50	5.089 (p=.000)
	비참여	1,770	2.91	.51	
	전 체	6,051	2.96	.51	
5. 아시아인 정체감	참 여	4,281	3.13	.52	1.811 (p=.070)
	비참여	1,770	3.10	.54	
	전 체	6,051	3.12	.53	
6.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참 여	4,281	3.01	.44	2.539 (p=.011)
	비참여	1,770	2.97	.45	
	전 체	6,051	3.00	.44	
7.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참 여	4,281	3.27	.56	6.550 (p=.000)
	비참여	1,770	3.16	.58	
	전 체	6,051	3.24	.57	
8.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참 여	4,281	3.39	.50	6.061 (p=.000)
	비참여	1,770	3.30	.53	
	전 체	6,051	3.36	.51	
9.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참 여	4,281	3.24	.59	6.388 (p=.000)
	비참여	1,770	3.14	.61	
	전 체	6,051	3.21	.59	

다만,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영역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척도 점수는 2.34점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2.43)보다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p < .05$).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척도가 점수가 높을수록 자국의 법률체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법률체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VI-12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와 민주시민역량과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 봉사활동 참여동기	1	.006	-.104**	.144**	.201**	.176**	.109**	.028	.024	-.038*
2.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1	.256**	-.011	.061**	.097**	.063**	.175**	.447**	.369**
3.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			1	-.156**	-.091**	-.086**	-.038*	.087**	.316**	.334**
4. 법률 체계에 대한 인식				1	.080**	.177**	-.008	-.141**	-.135**	-.158**
5.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1	.370**	.294**	.266**	.139**	.057**
6. 아시아인 정체감						1	.379**	.261**	.140**	.049**
7.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1	.395**	.163**	.065**
8.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1	.316**	.285**
9.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1	.523**
10.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1

* $p < .05$, ** $p < .01$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와 민주시민역량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의 측정은 성적, 칭찬, 종교, 부모, 선생님, 새로운 경험, 지역사회기여, 친구만남, 사후기대, 보람, 이웃을 위해, 진로에 도움 등 봉사활동 동기와 관련된 12개의 문항에 대해 리커트식 5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봉사 동기의 지각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응답자 6,051명 중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4,281명을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와 교내활동과 ICCS 아시안 지역 질문지에서 조사하고 있는 9개 영역의 민주시민역량의 상관관계(Pearson's r)는 <표 VI-12>와 같다.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와 민주시민역량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를 제외한 6개 영역에서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와 “공적 업무에서의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의 경우 각각의 상관계수(r)값은 각각 -.104, -.038로 나타나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그 강도는 크지 않았다. 한편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아시아인 정체감”,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등 4개 영역은 봉사활동 참여 동기와 정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r) 값은 .109~.201 범위 내에 있었다.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지속의지와 교내활동과 ICCS 아시안 지역 질문지에서 조사하고 있는 9개 영역의 민주시민역량의 상관관계(Pearson's r)는 <표 VI-13>과 같이 나타났다. 자원봉사의 지속성은 자원봉사활동에의 지속적인 참여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의미한다. 자원봉사의 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원봉사 지속의지와 관련된 4개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정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척도 점수는 4개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지속성과 민주시민역량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은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를 제외한 7개 민주시민역량의 하위 영역에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r)는 .031~.254의 범위에 있었다. 자원봉사활동 지속성과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는 상관계수 값이 .254로 가장 관계의 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3 봉사활동 지속성과 민주시민역량과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 봉사활동 지속성	1	.122**	.013	.031*	.254**	.183**	.143**	.144**	.183**	.143**
2.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1	.256**	-.011	.061**	.097**	.063**	.175**	.447**	.369**
3.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			1	-.156* *	-.091* *	-.086* *	-.038*	.087**	.316**	.334**
4. 법률 체계에 대한 인식				1	.080**	.177**	-.008	-.141* *	-.135* *	-.158* *
5.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1	.370**	.294**	.266**	.139**	.057**
6. 아시아인 정체감						1	.379**	.261**	.140**	.049**
7.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1	.395**	.163**	.065**
8.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1	.316**	.285**
9.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									1	.523**
10.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1

* p < .05, ** p < .01

제 7 장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제언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요약

1) 정부와 법에 대한 인식

정부와 법에 대한 인식에서는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을 하위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은 청소년들이 권위적인 정부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하며,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는 사회에서의 권위적인 행동에 동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은 한국의 법률체계의 청렴성 정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부와 법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정부와 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문항의 동의 정도 비율의 범위를 중심으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권위적 정부에 대한 수용하지 않으며(73.6%~88.6%), 권위적인 행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5.0%~81.2%). 하지만 한국 사회의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인식하기(46.3%) 보다는 법과 돈은 권력이 있는 자들의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61.8%), 정치인들/정부는 자주 법원의 결정에 간섭한다(68.1%)고 응답하였다.

정부와 법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민주시민역량 하위 영역을 배경변인별로 비교해 보면 권위적 정부에 대해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성적이 상, 중 집단 보다는 하위권 집단이 특별/광역시 및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 보다는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들이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와 관련해서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성적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특별/광역시 및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 보다는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이 더 권위에 순종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권위에 순종적이었다.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성적이 상위권인 경우, 경제수준이 하위계층

인 경우, 특별/광역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청소년들이 법률체계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법률체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강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법률체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었다.

2) 아시아의 정체성, 시민의식, 문화에 대한 인식

아시아의 정체성, 시민의식, 문화에 대한 인식은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아시아인 정체감,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등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는 한국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의미하며, 아시아인 정체감은 아시아 지역과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감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은 좋은 시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의미한다.

관련 문항의 동의 정도 비율의 범위를 중심으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전통문화 보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63.9%~84.2%), 아시아인으로서 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66.9%~94.9%). 또한 좋은 시민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54.9%~90.7%).

아시아의 정체성, 시민의식, 문화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민주시민역량 하위 영역을 배경변인별로 비교해 보면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고등학생 보다는 중학생이, 성적이 하위권인 집단 보다는 성적이 상위권 및 중위권 집단에서 전통문화 보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아시아인 정체감의 경우 모든 배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아시아인 정체감 수준이 높았으며, 성적이 하위권인 청소년보다는 상위권 및 중위권 청소년이, 경제수준이 하위계층인 청소년보다는 상위계층 및 중간계층 청소년이 그리고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보다는 특별/광역시 거주 청소년들이 아시아인 정체감 수준이 높았다.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그리고 성적이 하위권 보다는 중위권, 중위권 보다는 상위권 청소년들의 아시아인 정체감 수준이 높았지만 그 차이는 비교 크지 않았다.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및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점수를 유지하였지만, 아시아인 정체감의 경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3) 공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

공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에서는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공적서비스 부패에 대한 정도,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를 하위영역으로 하고 있다.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는 정치인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의미하며,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는 공적업무 영역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청소년들의 수용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는 공직을 얻기 위해 개인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공적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강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련 문항의 동의 비율의 범위를 살펴보면 정치인의 도덕적 행동에 대해 강하게 동의하고 있으며(80.8%~89.3%), 공적 서비스에 대한 부패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비율 범위는 6.9%~11.3%에 그쳐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공적 업무에서 개인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비율 범위 역시 10.2%~23.7%에 머물러 공적 업무에서 개인적인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

공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하위 영역을 배경변인별로 비교해 보면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성적이 하위권인 집단 보다는 성적이 상위권 및 중위권 청소년들이 정치인의 도덕적 행동에 대해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는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성적은 상위권 및 중위권 학생이, 그리고 거주 지역별로는 특별/광역시 및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들이 좀 더 공적 서비스 부패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다.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공적 업무에서 개인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성적이 낮은 집단 보다 중간 집단이 및 중간 집단 보다 높은 집단이, 경제수준 상위계층 및 중간계층보다 하위계층 집단이, 읍/면 거주 청소년 보다는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 및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보다는 특별/광역시 거주 청소년들이 공적 업무에서 개인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학년별로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공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 관련 하위 영역 모두에서 척도 점수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치인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공적 서비스 영역에서의 부패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적업무에서 개인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교내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민주시민역량

청소년들의 학교 내 참여활동 경험의 정도와 민주시민역량 하위 9개 영역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교내활동 참여경험과 정적상관을 갖고 있었다.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의 경우 부적상관을 갖고 있었으나 그 강도는 미미하였다($r=-0.54$).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 내 참여활동 경험과 민주시민역량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의 교내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민주시민역량 차이를 검증한 결과 방과 후 학교의 예체능 활동에 자발적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을 제외한 모든 민주시민역량 하위 영역에서 의식 수준이 높았다. 학급 토론에 적극적 참여, 반장/학생회 임원투표,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등 4개 활동 각각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민주시민역량 하위 9개 영역 모두에서 더 높은 수준의 민주시민 의식을 갖고 있었다. 학생회 토론참여의 경우에는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아시아인 정체감,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등 민주시민역량의 4개 하위 영역에서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공적 업무에 있어서 개인적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의 경우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의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시민역량 9개 영역 중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과 아시아인 정체감을 제외한 7개 영역에서 자원봉사 참여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전반적인 민주시민 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원봉사 참여 동기와 민주시민역량과 관계는 일부 정적상관이 있는 영역과 부정 상관이 있는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는 법률체계에 대한 인식,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태도, 아시아인 정체감,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등 4개 민주시민역량 하위영역과 정적 상관을 갖고 있었으며,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 공적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등 2개 영역에서는 부정 상관을 보였다.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지속성과 민주시민역량의 관계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은 권위에 대한 순종 태도를 제외한 7개 민주시민역량의 하위 영역에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활동에 지속적인 참여의지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민주시민역량도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정책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급별 차별화된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본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성별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의 시민역량수준의 불균형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특정 영역의 시민역량수준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민주시민역량 하위영역에서는 그 수준이 증가하거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시아인으로의 정체감 수준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고, 법률체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뿐 아니라 학교급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전략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경우 과도한 입시경쟁의 상황에 놓여 있어 민주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아동·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 뿐 아니라 대상에 따라 특정영역의 프로그램, 예컨대 고등학생을 목표 집단으로 하는 세계시민 혹은 아시아인으로의 공동체 함양을 위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이나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공적서비스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체계적 시민교육 시스템 구축

이 연구에서 공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조사는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태도, 공적서비스 부패에 대한 정도, 공적 업무에서 관계 활용에 대한 태도 등이 하위영역으로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치인 개인의 도덕성과 공적업무 영역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수용정도, 그리고 공직을 얻기 위해 개인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공적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인의 도덕적 행동에 대해서는 80%이상이 동의하였고, 공적서비스 부패에 대해서는 거의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공적 업무에서 개인적인 관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

한국은 아직까지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 정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국내외에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정치인들의 정경유착과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공직자들의 높은 도덕성과 공적 영역에 대한 사회적 투명성에 관한 아동·청소년들의 요구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치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이 시급하게 개선할 분야로서 사회지도층에 해당되는 정치인과 공직자의 도덕성과 부정부패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미래 한국의 정치지도자와 공직자로 성장할 아동·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공적서비스의 정확한 내용 이해와 중요성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 사회적 차원의 인식 개선을 적극적인 캠페인과 함께 학교와 평생교육 분야에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3)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학교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교내활동 참여 활성화

대부분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생 청소년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자 다양한 교육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과활동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내활동에의 참여는 청소년들이 시민사회 운영의 원리와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교내활동 참여경험은 그들의 민주시민역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급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반장/학생회 임원투표,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의 참여, 반장/학생회 임원 출마 등 4개 활동에 대한 참여 경험은 민주시민역량 9개 하위 영역 모두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적 참여활동의 경험이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 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학생회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약 30% 정도에 달하는데, 이는 학교의 현실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 등의 이유로

이러한 비교과 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이종원, 김준홍, 2012). 따라서 학교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참여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또한 교내 참여활동이 활성화 된다면 이들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 구축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은 학교에서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도 이루어진다. 아동·청소년의 시민역량 함양 역시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2009년 실시된 민주시민역량 실태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는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가 민주시민역량에서 인지영역과 정의·행동영역 간의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장근영, 박수역, 2011b). 이는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식교육에 밀려 부차적이고 형식적으로 다루어지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은 반드시 특정 기관에서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전문성이 있는 관련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허영식과 신두철(2007)은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로 시민단체, 국가기관, 언론기관, 선거연수원, 국회, 정당, 행정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문기관과 청소년 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수련시설이 서로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청소년의 시민역량 함양에 관심을 두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시민사회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시민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사회가 건강한 시민사회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 현재의 단순 참여 위주의 봉사활동에서 봉사학습 개념 적용

봉사활동 참여가 시민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경험적 증거는 많다. 자신이 참여한 자원봉사활동

의 만족 경험은 민주시민의식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송복임, 2002; 이해원, 2006),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덕목인 사회참여, 인간존엄, 합리적 의사결정 및 민주적 절차 수행에 도움이 된다(곽민정, 2010).

하지만 대부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이 단순한 업무보조나 시간을 채우기 위한 활동에 그친다면 봉사활동이 의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봉사를 통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봉사경험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이 봉사학습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은 “청소년들이 타인과 지역사회를 돕는 봉사활동자체를 일련의 학습경험이 되도록 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영인, 2007 : 91).

봉사활동 과정에서 동료들과의 반성적 활동을 실시한 토론집단에서 시민의식이 더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최명숙, 2004). 결국 단순한 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소감을 적어보고 자신의 봉사 경험에 대해 토론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봉사가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학습을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봉사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곽민정. (2010).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 형성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인. (2007). 청소년의 참여와 시민성 함양.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 김정배. (2006). 청소년의 봉사활동 태도와 동기 및 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준홍, 정선아. (201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Ⅱ: 미디어 이용과 가족내부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준, 이영민. (201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Ⅰ: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 이영민. (201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Ⅱ: 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 박학배. (2011).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만족요인이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효종. (2009). 민주시민사회의 정착과 민주시민교육. 선거관리, 5. 300-320.
- 송복임. (2002).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민주시민의식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원, 김준홍. (201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Ⅱ: 연구총괄·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혜원. (2006). 청소년자원봉사 동아리 활동 만족도와 민주시민의식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근영, 박수익. (2011a).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Ⅰ: 2011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박수익. (2011b).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Ⅰ: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Fraillon, J., Schulz, W., & Ainley, J. (2012). *ICCS 2009 Asian Report : civic knowledge, attitudes, and engagement among lower secondary students in five Asian countries*. Amsterdam, The Netherlands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
- Schulz, W., Ainley, J., & Fraillon, J. (2011). *ICCS 2009 Technical Report*. Amsterdam, The Netherlands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
- Schulz, W., Ainley, J., Fraillon, J., Kerr, D., & Losito, B. (2010). *ICCS 2009 International Report: Civic knowledge, attitudes and engagement among Lower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thirty-eight countries*. Amsterdam, The Netherlands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부 록

1. 설문지
2. 기초통계표

부 록

부록 1. 설문지

조사학교 ID
(기록하지 마세요)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국가 연구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원에서는 청소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의식과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관련 법령에 따라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번지
<http://www.nypa.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오해섭 선임연구위원	(02)2188-8841
	박정배 부연구위원	(02)6913-8908
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담당자: 박종경 연구원/염숙희 팀장	(02)3014-0988/0131

조사 일시	2013년 ___월 ___일 ___시 ___분부터 ___시 ___분까지
조사원 성명	조사원 ID

성별	<input type="radio"/> ♂ 남자	<input type="radio"/> ♀ 여자
----	----------------------------	----------------------------

부
록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1에서 4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매우 동의함' 이면 ①에, '동의함이면' ②에, '동의하지 않음'이면 ③에,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a	법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의 편이다.	①	②	③	④

☞ '법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의 편이다'에 전혀 동의하지 않아서 '④'에 ○를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다시 동그라미(○) 표시를 하십시오.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a	법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의 편이다.	①	②	③	④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3>

문 A. 학생은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결석한 적이 있다 → '문 B'로 가세요
 ② 결석한 적이 없다 → '문 C'로 가세요

☞ 나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 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보기4>

문 B.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결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합니다. 결석을 하지 않았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문 B.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몸이 아파서 ② 학교가기 싫어서 ③ 게임을 하느라 ④ 늦잠을 자서

☞ 결석한 이유를 '모두' 응답하도록 질문이 구성되어 있음. 최근 1년간 몸이 아파서, 늦잠을 자서 각각 1번씩, 총 2번 결석을 하였으므로 ①번과 ④번에 각각 응답하였음.

문 1. 정부의 역할에 관한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모든 사람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정부가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상관없다.	①	②	③	④
2)	시민의 생각을 반영하고만 있다면 정부가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상관없다.	①	②	③	④
3)	정부가 일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비민주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정부의 권력이 강할수록 시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5)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문 2. 사회에서 행동을 잘 하는 것에 대한 다음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어른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당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3)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항상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4)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항상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 3. 자국의 전통문화에 관한 다음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해 배울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싶다.	①	②	③	④
2)	우리나라 문화는 다른 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에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전통 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데에 책임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문 4. 자국의 법과 사법체계에 관한 다음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법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의 편이다.	①	②	③	④
2)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①	②	③	④
3)	정치인들 / 정부는 자주 법원의 결정에 간섭한다.	①	②	③	④
4)	법원은 법을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법 체계에 부정부패는 없다.	①	②	③	④

문 5.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다음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일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정치인들의 정직성과 도덕성은 그/그녀의 능력보다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3)	공무원이 그/그녀가 일하는 기관에서 그/그녀의 이익을 위해 그 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①	②	③	④
4)	정치적 지도자들은 도덕성의 역할모델이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5)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어른들의 일이므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①	②	③	④
6)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이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①	②	③	④
7)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구성원이 범법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 6. 아시아 지역과 아시아인의 경제성에 관한 다음 진술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나는 나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경제적 성장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아시아 문화와 전통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 민주주의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인권이 성장한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다른 아시아의 젊은이들과 공감대를 느끼는 것이 많다.	①	②	③	④

문 7. 좋은 시민이 되는 것에 관한 다음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좋은 시민이다.	①	②	③	④
2)	법은 준수하지만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시민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3)	좋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만이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5)	자기 수양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6)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 성숙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7)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일지라도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①	②	③	④

문 8. 선거 또는 다른 공사(공적 업무)들과 관련된 다음 진술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있더라도 지역연고자 또는 고향출신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우리와 연고가 있는 후보자만이 당선 이후에도 진정 우리를 위해 일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3)	만약에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나 친인척이라면 그/그녀가 그 일의 최적임자가 아니더라도 그/그녀를 뽑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4)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사람들을 고용할 때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공무원이 정부계약을 그 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문 9. 당신은 학교에서 다음의 어떤 활동을 하였습니다습니까?

[초등학교 입학 후 당신이 다녔던 모든 학교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최근 1년동안 참여한 적이 있다	1년보다 더 이전에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한 적이 없다
1)	방과 후 학교의 예·체능(음악, 연극, 운동, 방송 등) 활동에 자발적 참여	①	②	③
2)	학급 토론에 적극적 참여	①	②	③
3)	반장 / 학생회 임원투표	①	②	③
4)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①	②	③
5)	학생회 토론 참여	①	②	③
6)	반장 / 학생회 임원 출마	①	②	③

문 10.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문 11로 이동 ② 없음 ⇒ 배문 1로 이동

문 11. 당신은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참여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학시(학교) 내신 성적 반영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2)	주위 친척들이나 어른들이 봉사활동을 하면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3)	종교적으로 봉사활동이 좋다고 해서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 봉사활동을 하자고 해서	①	②	③	④	⑤
5)	선생님께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해서	①	②	③	④	⑤
6)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살고 있는 동네나 지역사회, 국가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①	②	③	④	⑤
8)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봉사활동을 하면 나 자신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10)	봉사활동을 통해서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하는 뿌듯한 마음을 갖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12)	장래의 진로선택이나 직업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①	②	③	④	⑤

문 12. 자원봉사와 관련된 당신의 느낌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의무시간(점수)을 채우더라도 계속 자원봉사를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상급학교 진학 후에도 계속 자원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자원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평생 동안 계속 자원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사결과 분석에 꼭 필요한 항목이고 절대 비밀이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문 1. 당신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나요?

- ① 중1 ② 중2 ③ 중3 ④ 고1 ⑤ 고2 ⑥ 고3

예문 2. 학생의 학업 성적(2013년 1학기)이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예문 3. 학생의 가정 형편(경제 수준)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빠뜨리고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부록 2. 기초통계표

문 1. 정부의 역할에 관한 진술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문 1-1 모든 사람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정부가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상관없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169	5.8	658	22.5	1,327	45.4	766	26.2
	여	38	1.2	450	14.4	1,770	56.5	873	27.9
학교급	중	114	3.9	548	18.6	1,497	50.7	792	26.8
	고	93	3.0	560	18.1	1,600	51.6	847	27.3
성적	상	64	4.1	224	14.4	779	50.2	486	31.3
	중	80	3.1	481	18.4	1,344	51.5	703	27.0
	하	63	3.3	403	21.3	974	51.5	450	23.8
경제수준	상	82	3.9	366	17.5	1,058	50.6	584	27.9
	중	73	2.7	508	18.8	1,391	51.5	731	27.0
	하	52	4.1	234	18.6	648	51.5	324	25.8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82	3.0	470	17.4	1,403	51.9	748	27.7
	중소도시	106	3.8	538	19.3	1,389	49.9	752	27.0
	읍/면	19	3.4	100	17.8	305	54.2	139	24.7
전체		207	3.4	1,108	18.3	3,097	51.2	1,639	27.1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134	4.6	782	26.8	1,407	48.2	597	20.4
	여	41	1.3	640	20.4	1,796	57.4	654	20.9
학교급	중	101	3.4	702	23.8	1,513	51.3	635	21.5
	고	74	2.4	720	23.2	1,690	54.5	616	19.9
성적	상	57	3.7	320	20.6	820	52.8	356	22.9
	중	63	2.4	619	23.7	1,386	53.1	540	20.7
	하	55	2.9	483	25.6	997	52.8	355	18.8
경제수준	상	77	3.7	476	22.8	1,110	53.1	427	20.4
	중	67	2.5	623	23.0	1,438	53.2	575	21.3
	하	31	2.5	323	25.7	655	52.1	249	19.8
거주지역	특별 /광역시	63	2.3	623	23.0	1,432	53.0	585	21.6
	중소 도시	93	3.3	650	23.3	1,472	52.9	570	20.5
	읍/면	19	3.4	149	26.5	299	53.1	96	17.1
전체		175	2.9	1,422	23.5	3,203	52.9	1,251	20.7

문 1-3 정무가 일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비민주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111	3.8	332	11.4	1,333	45.7	1,144	39.2
	여	32	1.0	213	6.8	1,519	48.5	1,367	43.7
학교급	중	84	2.8	286	9.7	1,384	46.9	1,197	40.6
	고	59	1.9	259	8.4	1,468	47.4	1,314	42.4
성적	상	32	2.1	120	7.7	664	42.8	737	47.5
	중	65	2.5	216	8.3	1,229	47.1	1,098	42.1
	하	46	2.4	209	11.1	959	50.7	676	35.8
경제수준	상	62	3.0	180	8.6	966	46.2	882	42.2
	중	57	2.1	250	9.2	1,307	48.4	1,089	40.3
	하	24	1.9	115	9.1	579	46.0	540	42.9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57	2.1	231	8.5	1,277	47.2	1,138	42.1
	중소도시	72	2.6	256	9.2	1,277	45.9	1,180	42.4
	읍/면	14	2.5	58	10.3	298	52.9	193	34.3
전체		143	2.4	545	9.0	2,852	47.1	2,511	41.5

문 1-4 정부의 권력이 강할수록 시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쉽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128	4.4	616	21.1	1,246	42.7	930	31.8
	여	37	1.2	521	16.6	1,522	48.6	1,051	33.6
학교급	중	107	3.6	606	20.5	1,301	44.1	937	31.8
	고	58	1.9	531	17.1	1,467	47.3	1,044	33.7
성적	상	48	3.1	272	17.5	659	42.4	574	37.0
	중	62	2.4	464	17.8	1,229	47.1	853	32.7
	하	55	2.9	401	21.2	880	46.6	554	29.3
경제수준	상	65	3.1	410	19.6	948	45.4	667	31.9
	중	69	2.6	494	18.3	1,250	46.2	890	32.9
	하	31	2.5	233	18.5	570	45.3	424	33.7
거주지역	특별 /광역시	73	2.7	523	19.3	1,205	44.6	902	33.4
	중소 도시	79	2.8	507	18.2	1,273	45.7	926	33.2
	읍/면	13	2.3	107	19.0	290	51.5	153	27.2
전체		165	2.7	1,137	18.8	2,768	45.7	1,981	32.7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87	3.0	690	23.6	967	33.1	1,176	40.3
	여	16	0.5	572	18.3	1,242	39.7	1,301	41.6
학교급	중	62	2.1	523	17.7	1,076	36.5	1,290	43.7
	고	41	1.3	739	23.8	1,133	36.5	1,187	38.3
성적	상	31	2.0	340	21.9	480	30.9	702	45.2
	중	35	1.3	526	20.2	966	37.0	1,081	41.4
	하	37	2.0	396	21.0	763	40.4	694	36.7
경제수준	상	49	2.3	439	21.0	741	35.5	861	41.2
	중	36	1.3	556	20.6	1,026	38.0	1,085	40.1
	하	18	1.4	267	21.2	442	35.1	531	42.2
거주지역	특별 /광역시	40	1.5	548	20.3	996	36.8	1,119	41.4
	중소 도시	53	1.9	583	20.9	993	35.7	1,156	41.5
	읍/면	10	1.8	131	23.3	220	39.1	202	35.9
전체		103	1.7	1,262	20.9	2,209	36.5	2,477	40.9

문 2. 사회에서 행동을 잘 하는 것에 대한 다음 진술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문 2-1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어른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140	4.8	824	28.2	1,474	50.5	482	16.5
	여	60	1.9	703	22.5	1,897	60.6	471	15.0
학교급	중	138	4.7	800	27.1	1,550	52.5	463	15.7
	고	62	2.0	727	23.5	1,821	58.7	490	15.8
성적	상	46	3.0	315	20.3	881	56.7	311	20.0
	중	79	3.0	641	24.6	1,470	56.4	418	16.0
	하	75	4.0	571	30.2	1,020	54.0	224	11.9
경제수준	상	89	4.3	515	24.6	1,127	53.9	359	17.2
	중	72	2.7	679	25.1	1,566	57.9	386	14.3
	하	39	3.1	333	26.5	678	53.9	208	16.5
거주지역	특별 /광역시	78	2.9	687	25.4	1,495	55.3	443	16.4
	중소 도시	103	3.7	692	24.8	1,545	55.5	445	16.0
	읍/면	19	3.4	148	26.3	331	58.8	65	11.5
전체		200	3.3	1,527	25.2	3,371	55.7	953	15.7

문 2-2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당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한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85	2.9	607	20.8	1,511	51.7	717	24.6
	여	33	1.1	415	13.3	1,851	59.1	832	26.6
학교급	중	78	2.6	524	17.8	1,580	53.5	769	26.1
	고	40	1.3	498	16.1	1,782	57.5	780	25.2
성적	상	24	1.5	230	14.8	814	52.4	485	31.2
	중	44	1.7	413	15.8	1,482	56.8	669	25.7
	하	50	2.6	379	20.1	1,066	56.4	395	20.9
경제수준	상	44	2.1	353	16.9	1,117	53.4	576	27.6
	중	47	1.7	442	16.4	1,565	57.9	649	24.0
	하	27	2.1	227	18.0	680	54.1	324	25.8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45	1.7	440	16.3	1,529	56.6	689	25.5
	중소도시	61	2.2	466	16.7	1,531	55.0	727	26.1
	읍/면	12	2.1	116	20.6	302	53.6	133	23.6
전체		118	2.0	1,022	16.9	3,362	55.6	1,549	25.6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108	3.7	738	25.3	1,441	49.3	633	21.7
	여	45	1.4	560	17.9	1,835	58.6	691	22.1
학교급	중	101	3.4	701	23.8	1,555	52.7	594	20.1
	고	52	1.7	597	19.3	1,721	55.5	730	23.5
성적	상	34	2.2	319	20.5	805	51.8	395	25.4
	중	65	2.5	510	19.6	1,453	55.7	580	22.2
	하	54	2.9	469	24.8	1,018	53.9	349	18.5
경제수준	상	70	3.3	434	20.8	1,090	52.2	496	23.7
	중	54	2.0	573	21.2	1,532	56.7	544	20.1
	하	29	2.3	291	23.1	654	52.0	284	22.6
거주지역	특별 /광역시	61	2.3	581	21.5	1,451	53.7	610	22.6
	중소 도시	78	2.8	577	20.7	1,516	54.4	614	22.0
	읍/면	14	2.5	140	24.9	309	54.9	100	17.8
전체		153	2.5	1,298	21.5	3,276	54.1	1,324	21.9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245	8.4	949	32.5	1,256	43.0	470	16.1
	여	106	3.4	819	26.2	1,719	54.9	487	15.6
학교급	중	213	7.2	925	31.3	1,375	46.6	438	14.8
	고	138	4.5	843	27.2	1,600	51.6	519	16.7
성적	상	81	5.2	392	25.2	784	50.5	296	19.1
	중	135	5.2	744	28.5	1,306	50.1	423	16.2
	하	135	7.1	632	33.4	885	46.8	238	12.6
경제수준	상	137	6.6	595	28.5	996	47.7	362	17.3
	중	132	4.9	809	29.9	1,379	51.0	383	14.2
	하	82	6.5	364	28.9	600	47.7	212	16.9
거주지역	특별 /광역시	152	5.6	774	28.6	1,324	49.0	453	16.8
	중소 도시	165	5.9	795	28.5	1,391	49.9	434	15.6
	읍/면	34	6.0	199	35.3	260	46.2	70	12.4
전체		351	5.8	1,768	29.2	2,975	49.2	957	15.8

문 3. 자국의 전통문화에 관한 다음 진술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문 3-1 나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해 배울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싶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522	17.9	1,718	58.8	562	19.2	118	4.0
	여	761	24.3	2,019	64.5	312	10.0	39	1.2
학교급	중	586	19.9	1,815	61.5	449	15.2	101	3.4
	고	697	22.5	1,922	62.0	425	13.7	56	1.8
성적	상	383	24.7	930	59.9	195	12.6	45	2.9
	중	574	22.0	1,642	63.0	334	12.8	58	2.2
	하	326	17.2	1,165	61.6	345	18.3	54	2.9
경제수준	상	481	23.0	1,253	60.0	299	14.3	57	2.7
	중	526	19.5	1,719	63.6	393	14.5	65	2.4
	하	276	21.9	765	60.8	182	14.5	35	2.8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550	20.3	1,709	63.2	385	14.2	59	2.2
	중소도시	605	21.7	1,678	60.3	419	15.0	83	3.0
	읍/면	128	22.7	350	62.2	70	12.4	15	2.7
전체		1,283	21.2	3,737	61.8	874	14.4	157	2.6

문 3-2

우리나라 문화는 다른 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467	16.0	1,356	46.4	931	31.9	166	5.7
	여	483	15.4	1,563	49.9	986	31.5	99	3.2
학교급	중	535	18.1	1,475	50.0	815	27.6	126	4.3
	고	415	13.4	1,444	46.6	1,102	35.5	139	4.5
성적	상	286	18.4	692	44.6	497	32.0	78	5.0
	중	405	15.5	1,250	47.9	834	32.0	119	4.6
	하	259	13.7	977	51.7	586	31.0	68	3.6
경제수준	상	368	17.6	1,013	48.5	618	29.6	91	4.4
	중	389	14.4	1,324	49.0	862	31.9	128	4.7
	하	193	15.3	582	46.3	437	34.7	46	3.7
거주지역	특별 /광역시	431	15.9	1,297	48.0	871	32.2	104	3.8
	중소 도시	423	15.2	1,345	48.3	874	31.4	143	5.1
	읍/면	96	17.1	277	49.2	172	30.6	18	3.2
전체		950	15.7	2,919	48.2	1,917	31.7	265	4.4

문 3-3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전통문화의 모든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833	28.5	1,567	53.7	450	15.4	70	2.4
	여	953	30.4	1,744	55.7	416	13.3	18	0.6
학교급	중	930	31.5	1,625	55.1	348	11.8	48	1.6
	고	856	27.6	1,686	54.4	518	16.7	40	1.3
성적	상	460	29.6	785	50.5	282	18.2	26	1.7
	중	803	30.8	1,403	53.8	362	13.9	40	1.5
	하	523	27.7	1,123	59.4	222	11.7	22	1.2
경제수준	상	654	31.3	1,080	51.7	323	15.5	33	1.6
	중	759	28.1	1,552	57.4	355	13.1	37	1.4
	하	373	29.7	679	54.0	188	14.9	18	1.4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815	30.2	1,490	55.1	364	13.5	34	1.3
	중소도시	810	29.1	1,504	54.0	427	15.3	44	1.6
	읍/면	161	28.6	317	56.3	75	13.3	10	1.8
전체		1,786	29.5	3,311	54.7	866	14.3	88	1.5

문 3-4 나는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데에 책임감을 느낀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473	16.2	1,665	57.0	676	23.2	106	3.6
	여	628	20.1	1,963	62.7	505	16.1	35	1.1
학교급	중	556	18.8	1,735	58.8	577	19.6	83	2.8
	고	545	17.6	1,893	61.1	604	19.5	58	1.9
성적	상	347	22.3	899	57.9	270	17.4	37	2.4
	중	476	18.3	1,617	62.0	466	17.9	49	1.9
	하	278	14.7	1,112	58.8	445	23.5	55	2.9
경제수준	상	424	20.3	1,226	58.7	390	18.7	50	2.4
	중	466	17.2	1,655	61.2	526	19.5	56	2.1
	하	211	16.8	747	59.4	265	21.1	35	2.8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534	19.8	1,596	59.0	528	19.5	45	1.7
	중소도시	473	17.0	1,689	60.6	539	19.4	84	3.0
	읍/면	94	16.7	343	60.9	114	20.2	12	2.1
전체		1,101	18.2	3,628	60.0	1,181	19.5	141	2.3

문 4. 자국의 법과 사법체계에 관한 다음 진술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문 4-1 법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의 편이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786	26.9	978	33.5	584	20.0	572	19.6
	여	685	21.9	1,289	41.2	607	19.4	550	17.6
학교급	중	456	15.5	920	31.2	770	26.1	805	27.3
	고	1,015	32.7	1,347	43.5	421	13.6	317	10.2
성적	상	387	24.9	671	43.2	261	16.8	234	15.1
	중	649	24.9	943	36.2	512	19.6	504	19.3
	하	435	23.0	653	34.6	418	22.1	384	20.3
경제수준	상	477	22.8	788	37.7	425	20.3	400	19.1
	중	618	22.9	1,006	37.2	571	21.1	508	18.8
	하	376	29.9	473	37.6	195	15.5	214	17.0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630	23.3	1,044	38.6	512	18.9	517	19.1
	중소도시	711	25.5	1,026	36.8	544	19.5	504	18.1
	읍/면	130	23.1	197	35.0	135	24.0	101	17.9
전체		1,471	24.3	2,267	37.5	1,191	19.7	1,122	18.5

문 4-2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524	17.9	840	28.8	1,111	38.0	445	15.2
	여	469	15.0	968	30.9	1,373	43.9	321	10.3
학교급	중	612	20.7	1,090	36.9	982	33.3	267	9.0
	고	381	12.3	718	23.2	1,502	48.5	499	16.1
성적	상	261	16.8	395	25.4	673	43.3	224	14.4
	중	457	17.5	771	29.6	1,052	40.3	328	12.6
	하	275	14.6	642	34.0	759	40.2	214	11.3
경제수준	상	362	17.3	602	28.8	840	40.2	286	13.7
	중	450	16.6	889	32.9	1,071	39.6	293	10.8
	하	181	14.4	317	25.2	573	45.5	187	14.9
거주지역	특별 /광역시	465	17.2	763	28.2	1,136	42.0	339	12.5
	중소 도시	441	15.8	842	30.2	1,127	40.5	375	13.5
	읍/면	87	15.5	203	36.1	221	39.3	52	9.2
전체		993	16.4	1,808	29.9	2,484	41.1	766	12.7

문 4-3 정치인들 / 정부는 자주 법원의 결정에 간섭한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445	15.2	1,511	51.7	766	26.2	198	6.8
	여	395	12.6	1,769	56.5	827	26.4	140	4.5
학교급	중	312	10.6	1,393	47.2	1,017	34.5	229	7.8
	고	528	17.0	1,887	60.9	576	18.6	109	3.5
성적	상	261	16.8	915	58.9	299	19.3	78	5.0
	중	357	13.7	1,401	53.7	699	26.8	151	5.8
	하	222	11.7	964	51.0	595	31.5	109	5.8
경제수준	상	311	14.9	1,122	53.7	542	25.9	115	5.5
	중	338	12.5	1,502	55.6	719	26.6	144	5.3
	하	191	15.2	656	52.1	332	26.4	79	6.3
거주지역	특별 /광역시	375	13.9	1,486	55.0	696	25.7	146	5.4
	중소 도시	407	14.6	1,495	53.7	730	26.2	153	5.5
	읍/면	58	10.3	299	53.1	167	29.7	39	6.9
전체		840	13.9	3,280	54.2	1,593	26.3	338	5.6

문 4-4 법원은 법을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526	18.0	1,297	44.4	857	29.3	240	8.2
	여	422	13.5	1,670	53.3	902	28.8	137	4.4
학교급	중	647	21.9	1,504	51.0	645	21.9	155	5.3
	고	301	9.7	1,463	47.2	1,114	35.9	222	7.2
성적	상	238	15.3	731	47.1	484	31.2	100	6.4
	중	442	16.9	1,251	48.0	744	28.5	171	6.6
	하	268	14.2	985	52.1	531	28.1	106	5.6
경제수준	상	364	17.4	952	45.6	630	30.1	144	6.9
	중	405	15.0	1,442	53.3	710	26.3	146	5.4
	하	179	14.2	573	45.5	419	33.3	87	6.9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439	16.2	1,305	48.3	783	29.0	176	6.5
	중소도시	425	15.3	1,351	48.5	832	29.9	177	6.4
	읍/면	84	14.9	311	55.2	144	25.6	24	4.3
전체		948	15.7	2,967	49.0	1,759	29.1	377	6.2

문 4-5 법체계에 부정부패는 없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250	8.6	628	21.5	1,068	36.6	974	33.4
	여	220	7.0	651	20.8	1,247	39.8	1,013	32.4
학교급	중	331	11.2	857	29.0	1,129	38.3	634	21.5
	고	139	4.5	422	13.6	1,186	38.3	1,353	43.6
성적	상	100	6.4	226	14.6	587	37.8	640	41.2
	중	217	8.3	547	21.0	962	36.9	882	33.8
	하	153	8.1	506	26.8	766	40.5	465	24.6
경제수준	상	172	8.2	430	20.6	779	37.3	709	33.9
	중	201	7.4	622	23.0	1,056	39.1	824	30.5
	하	97	7.7	227	18.0	480	38.2	454	36.1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214	7.9	527	19.5	1,062	39.3	900	33.3
	중소도시	210	7.5	596	21.4	1,044	37.5	935	33.6
	읍/면	46	8.2	156	27.7	209	37.1	152	27.0
전체		470	7.8	1,279	21.1	2,315	38.3	1,987	32.8

문 5.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다음 진술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문 5-1 일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68	2.3	218	7.5	833	28.5	1,801	61.7
	여	25	0.8	104	3.3	973	31.1	2,029	64.8
학교급	중	60	2.0	175	5.9	878	29.8	1,838	62.3
	고	33	1.1	147	4.7	928	29.9	1,992	64.3
성적	상	22	1.4	68	4.4	394	25.4	1,069	68.8
	중	40	1.5	122	4.7	773	29.6	1,673	64.1
	하	31	1.6	132	7.0	639	33.8	1,088	57.6
경제수준	상	42	2.0	120	5.7	611	29.2	1,317	63.0
	중	38	1.4	139	5.1	847	31.3	1,679	62.1
	하	13	1.0	63	5.0	348	27.7	834	66.3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46	1.7	134	5.0	822	30.4	1,701	62.9
	중소도시	44	1.6	159	5.7	790	28.4	1,792	64.3
	읍/면	3	0.5	29	5.2	194	34.5	337	59.9
전체		93	1.5	322	5.3	1,806	29.8	3,830	63.3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1,027	35.2	1,273	43.6	444	15.2	176	6.0
	여	945	30.2	1,647	52.6	420	13.4	119	3.8
학교급	중	880	29.8	1,368	46.4	499	16.9	204	6.9
	고	1,092	35.2	1,552	50.1	365	11.8	91	2.9
성적	상	577	37.2	750	48.3	157	10.1	69	4.4
	중	893	34.2	1,263	48.4	328	12.6	124	4.8
	하	502	26.6	907	48.0	379	20.1	102	5.4
경제수준	상	722	34.5	955	45.7	300	14.4	113	5.4
	중	830	30.7	1,366	50.5	384	14.2	123	4.6
	하	420	33.4	599	47.6	180	14.3	59	4.7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916	33.9	1,296	47.9	359	13.3	132	4.9
	중소도시	892	32.0	1,344	48.3	411	14.8	138	5.0
	읍/면	164	29.1	280	49.7	94	16.7	25	4.4
전체		1,972	32.6	2,920	48.3	864	14.3	295	4.9

문 5-3

공무원이 그/그녀가 일하는 기관에서 그/그녀의 이익을 위해 그 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52	1.8	343	11.7	1,455	49.8	1,070	36.6
	여	11	0.4	192	6.1	1,678	53.6	1,250	39.9
학교급	중	44	1.5	327	11.1	1,576	53.4	1,004	34.0
	고	19	0.6	208	6.7	1,557	50.2	1,316	42.5
성적	상	14	0.9	86	5.5	707	45.5	746	48.0
	중	21	0.8	227	8.7	1,339	51.3	1,021	39.1
	하	28	1.5	222	11.7	1,087	57.5	553	29.3
경제수준	상	25	1.2	174	8.3	1,067	51.1	824	39.4
	중	27	1.0	243	9.0	1,433	53.0	1,000	37.0
	하	11	0.9	118	9.4	633	50.3	496	39.4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28	1.0	221	8.2	1,404	51.9	1,050	38.8
	중소도시	31	1.1	253	9.1	1,387	49.8	1,114	40.0
	읍/면	4	0.7	61	10.8	342	60.7	156	27.7
전체		63	1.0	535	8.8	3,133	51.8	2,320	38.3

문 5-4 정치적 지도자들은 도덕성의 역할모델이 되어야 한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1,191	40.8	1,260	43.2	354	12.1	115	3.9
	여	1,369	43.7	1,458	46.6	241	7.7	63	2.0
학교급	중	1,083	36.7	1,358	46.0	382	12.9	128	4.3
	고	1,477	47.6	1,360	43.9	213	6.9	50	1.6
성적	상	796	51.3	632	40.7	85	5.5	40	2.6
	중	1,105	42.4	1,198	45.9	235	9.0	70	2.7
	하	659	34.9	888	47.0	275	14.6	68	3.6
경제수준	상	914	43.7	894	42.8	210	10.0	72	3.4
	중	1,081	40.0	1,302	48.2	254	9.4	66	2.4
	하	565	44.9	522	41.5	131	10.4	40	3.2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1,153	42.7	1,217	45.0	246	9.1	87	3.2
	중소도시	1,202	43.2	1,209	43.4	296	10.6	78	2.8
	읍/면	205	36.4	292	51.9	53	9.4	13	2.3
전체		2,560	42.3	2,718	44.9	595	9.8	178	2.9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75	2.6	382	13.1	1,340	45.9	1,123	38.5
	여	23	0.7	204	6.5	1,606	51.3	1,298	41.5
학교급	중	62	2.1	350	11.9	1,476	50.0	1,063	36.0
	고	36	1.2	236	7.6	1,470	47.4	1,358	43.8
성적	상	16	1.0	116	7.5	688	44.3	733	47.2
	중	39	1.5	235	9.0	1,259	48.3	1,075	41.2
	하	43	2.3	235	12.4	999	52.9	613	32.4
경제수준	상	38	1.8	197	9.4	987	47.2	868	41.5
	중	38	1.4	277	10.2	1,360	50.3	1,028	38.0
	하	22	1.7	112	8.9	599	47.6	525	41.7
거주지역	특별 /광역시	35	1.3	252	9.3	1,326	49.1	1,090	40.3
	중소 도시	53	1.9	280	10.1	1,327	47.6	1,125	40.4
	읍/면	10	1.8	54	9.6	293	52.0	206	36.6
전체		98	1.6	586	9.7	2,946	48.7	2,421	40.0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1,046	35.8	1,389	47.6	386	13.2	99	3.4
	여	1,237	39.5	1,610	51.4	242	7.7	42	1.3
학교급	중	981	33.2	1,496	50.7	379	12.8	95	3.2
	고	1,302	42.0	1,503	48.5	249	8.0	46	1.5
성적	상	722	46.5	694	44.7	110	7.1	27	1.7
	중	1,004	38.5	1,302	49.9	256	9.8	46	1.8
	하	557	29.5	1,003	53.1	262	13.9	68	3.6
경제수준	상	813	38.9	1,016	48.6	201	9.6	60	2.9
	중	989	36.6	1,367	50.6	293	10.8	54	2.0
	하	481	38.2	616	49.0	134	10.7	27	2.1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1,050	38.8	1,337	49.5	257	9.5	59	2.2
	중소도시	1,046	37.6	1,353	48.6	312	11.2	74	2.7
	읍/면	187	33.2	309	54.9	59	10.5	8	1.4
전체		2,283	37.7	2,999	49.6	628	10.4	141	2.3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1,076	36.8	1,351	46.3	384	13.2	109	3.7
	여	1,237	39.5	1,605	51.3	248	7.9	41	1.3
학교급	중	1,051	35.6	1,437	48.7	362	12.3	101	3.4
	고	1,262	40.7	1,519	49.0	270	8.7	49	1.6
성적	상	721	46.4	695	44.8	108	7.0	29	1.9
	중	1,012	38.8	1,276	48.9	261	10.0	59	2.3
	하	580	30.7	985	52.1	263	13.9	62	3.3
경제수준	상	849	40.6	959	45.9	217	10.4	65	3.1
	중	978	36.2	1,384	51.2	278	10.3	63	2.3
	하	486	38.6	613	48.7	137	10.9	22	1.7
거주지역	특별 /광역시	1,054	39.0	1,326	49.1	259	9.6	64	2.4
	중소 도시	1,065	38.2	1,330	47.8	314	11.3	76	2.7
	읍/면	194	34.5	300	53.3	59	10.5	10	1.8
전체		2,313	38.2	2,956	48.9	632	10.4	150	2.5

문 5-8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구성원이 범법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1,385	47.4	1,111	38.0	332	11.4	92	3.2
	여	1,633	52.2	1,273	40.7	195	6.2	30	1.0
학교급	중	1,318	44.7	1,249	42.3	307	10.4	77	2.6
	고	1,700	54.8	1,135	36.6	220	7.1	45	1.5
성적	상	847	54.5	583	37.5	96	6.2	27	1.7
	중	1,360	52.1	995	38.2	208	8.0	45	1.7
	하	811	42.9	806	42.6	223	11.8	50	2.6
경제수준	상	1,098	52.5	766	36.7	181	8.7	45	2.2
	중	1,273	47.1	1,131	41.8	246	9.1	53	2.0
	하	647	51.4	487	38.7	100	7.9	24	1.9
거주지역	특별 /광역시	1,370	50.7	1,068	39.5	218	8.1	47	1.7
	중소 도시	1,395	50.1	1,067	38.3	255	9.2	68	2.4
	읍/면	253	44.9	249	44.2	54	9.6	7	1.2
전체		3,018	49.9	2,384	39.4	527	8.7	122	2.0

문 6. 아시아 지역과 아시아인의 정체성에 관한 다음 진술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문 6-1 나는 나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1,250	42.8	1,481	50.7	144	4.9	45	1.5
	여	1,240	39.6	1,770	56.5	110	3.5	11	0.4
학교급	중	1,352	45.8	1,443	48.9	119	4.0	37	1.3
	고	1,138	36.7	1,808	58.3	135	4.4	19	0.6
성적	상	730	47.0	739	47.6	67	4.3	17	1.1
	중	1,076	41.3	1,425	54.6	90	3.5	17	0.7
	하	684	36.2	1,087	57.5	97	5.1	22	1.2
경제수준	상	948	45.4	1,034	49.5	84	4.0	24	1.1
	중	1,067	39.5	1,506	55.7	112	4.1	18	0.7
	하	475	37.8	711	56.5	58	4.6	14	1.1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1,138	42.1	1,435	53.1	106	3.9	24	0.9
	중소도시	1,116	40.1	1,509	54.2	131	4.7	29	1.0
	읍/면	236	41.9	307	54.5	17	3.0	3	0.5
전체		2,490	41.2	3,251	53.7	254	4.2	56	0.9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904	31.0	1,597	54.7	349	12.0	70	2.4
	여	840	26.8	1,922	61.4	345	11.0	24	0.8
학교급	중	960	32.5	1,646	55.8	293	9.9	52	1.8
	고	784	25.3	1,873	60.4	401	12.9	42	1.4
성적	상	507	32.6	855	55.1	165	10.6	26	1.7
	중	753	28.9	1,553	59.5	272	10.4	30	1.2
	하	484	25.6	1,111	58.8	257	13.6	38	2.0
경제수준	상	682	32.6	1,134	54.3	240	11.5	34	1.6
	중	755	27.9	1,643	60.8	269	10.0	36	1.3
	하	307	24.4	742	59.0	185	14.7	24	1.9
거주지역	특별 /광역시	815	30.2	1,549	57.3	294	10.9	45	1.7
	중소 도시	773	27.8	1,632	58.6	338	12.1	42	1.5
	읍/면	156	27.7	338	60.0	62	11.0	7	1.2
전체		1,744	28.8	3,519	58.2	694	11.5	94	1.6

문 6-3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롭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844	28.9	1,517	52.0	467	16.0	92	3.2
	여	810	25.9	1,876	59.9	411	13.1	34	1.1
학교급	중	987	33.4	1,576	53.4	324	11.0	64	2.2
	고	667	21.5	1,817	58.6	554	17.9	62	2.0
성적	상	472	30.4	799	51.4	242	15.6	40	2.6
	중	704	27.0	1,508	57.8	355	13.6	41	1.6
	하	478	25.3	1,086	57.5	281	14.9	45	2.4
경제수준	상	630	30.1	1,082	51.8	323	15.5	55	2.6
	중	721	26.7	1,604	59.3	331	12.2	47	1.7
	하	303	24.1	707	56.2	224	17.8	24	1.9
거주지역	특별 /광역시	770	28.5	1,494	55.3	384	14.2	55	2.0
	중소 도시	741	26.6	1,545	55.5	437	15.7	62	2.2
	읍/면	143	25.4	354	62.9	57	10.1	9	1.6
전체		1,654	27.3	3,393	56.1	878	14.5	126	2.1

문 6-4 나는 아시아 문화의 전통이 자랑스럽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860	29.5	1,591	54.5	380	13.0	89	3.0
	여	894	28.6	1,982	63.3	234	7.5	21	0.7
학교급	중	1,008	34.2	1,604	54.4	273	9.3	66	2.2
	고	746	24.1	1,969	63.5	341	11.0	44	1.4
성적	상	505	32.5	847	54.5	167	10.8	34	2.2
	중	739	28.3	1,606	61.6	228	8.7	35	1.3
	하	510	27.0	1,120	59.3	219	11.6	41	2.2
경제수준	상	650	31.1	1,173	56.1	223	10.7	44	2.1
	중	770	28.5	1,655	61.2	236	8.7	42	1.6
	하	334	26.6	745	59.2	155	12.3	24	1.9
거주지역	특별 /광역시	818	30.3	1,581	58.5	259	9.6	45	1.7
	중소 도시	774	27.8	1,646	59.1	307	11.0	58	2.1
	읍/면	162	28.8	346	61.5	48	8.5	7	1.2
전체		1,754	29.0	3,573	59.0	614	10.1	110	1.8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899	30.8	1,574	53.9	363	12.4	84	2.9
	여	884	28.2	1,944	62.1	284	9.1	19	0.6
학교급	중	1,020	34.6	1,594	54.0	284	9.6	53	1.8
	고	763	24.6	1,924	62.1	363	11.7	50	1.6
성적	상	511	32.9	841	54.2	165	10.6	36	2.3
	중	761	29.2	1,541	59.1	269	10.3	37	1.4
	하	511	27.0	1,136	60.1	213	11.3	30	1.6
경제수준	상	670	32.1	1,152	55.1	229	11.0	39	1.9
	중	770	28.5	1,626	60.2	268	9.9	39	1.4
	하	343	27.3	740	58.8	150	11.9	25	2.0
거주지역	특별 /광역시	838	31.0	1,554	57.5	262	9.7	49	1.8
	중소 도시	789	28.3	1,618	58.1	334	12.0	44	1.6
	읍/면	156	27.7	346	61.5	51	9.1	10	1.8
전체		1,783	29.5	3,518	58.1	647	10.7	103	1.7

문 6-6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인권이 성장한 것이 자랑스럽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889	30.4	1,599	54.8	350	12.0	82	2.8
	여	858	27.4	1,907	60.9	337	10.8	29	0.9
학교급	중	986	33.4	1,630	55.2	277	9.4	58	2.0
	고	761	24.5	1,876	60.5	410	13.2	53	1.7
성적	상	506	32.6	856	55.1	153	9.9	38	2.4
	중	743	28.5	1,529	58.6	296	11.3	40	1.5
	하	498	26.3	1,121	59.3	238	12.6	33	1.7
경제수준	상	655	31.3	1,140	54.5	248	11.9	47	2.2
	중	761	28.2	1,629	60.3	272	10.1	41	1.5
	하	331	26.3	737	58.6	167	13.3	23	1.8
거주지역	특별 /광역시	818	30.3	1,544	57.1	293	10.8	48	1.8
	중소 도시	775	27.8	1,619	58.1	336	12.1	55	2.0
	읍/면	154	27.4	343	60.9	58	10.3	8	1.4
전체		1,747	28.9	3,506	57.9	687	11.4	111	1.8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569	19.5	1,360	46.6	821	28.1	170	5.8
	여	460	14.7	1,660	53.0	934	29.8	77	2.5
학교급	중	638	21.6	1,519	51.5	683	23.1	111	3.8
	고	391	12.6	1,501	48.4	1,072	34.6	136	4.4
성적	상	273	17.6	740	47.6	457	29.4	83	5.3
	중	428	16.4	1,310	50.2	781	29.9	89	3.4
	하	328	17.4	970	51.3	517	27.4	75	4.0
경제수준	상	398	19.0	1,015	48.6	588	28.1	89	4.3
	중	461	17.1	1,379	51.0	758	28.0	105	3.9
	하	170	13.5	626	49.8	409	32.5	53	4.2
거주지역	특별 /광역시	477	17.6	1,335	49.4	788	29.2	103	3.8
	중소 도시	446	16.0	1,395	50.1	817	29.3	127	4.6
	읍/면	106	18.8	290	51.5	150	26.6	17	3.0
전체		1,029	17.0	3,020	49.9	1,755	29.0	247	4.1

문 7. 좋은 시민이 되는 것에 관한 다음 진술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문 7-1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좋은 시민이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908	31.1	1,633	55.9	327	11.2	52	1.8
	여	733	23.4	2,051	65.5	333	10.6	14	0.4
학교급	중	891	30.2	1,706	57.8	316	10.7	38	1.3
	고	750	24.2	1,978	63.8	344	11.1	28	0.9
성적	상	466	30.0	924	59.5	140	9.0	23	1.5
	중	715	27.4	1,582	60.7	288	11.0	23	0.9
	하	460	24.3	1,178	62.3	232	12.3	20	1.1
경제수준	상	588	28.1	1,281	61.3	204	9.8	17	0.8
	중	703	26.0	1,659	61.4	308	11.4	33	1.2
	하	350	27.8	744	59.1	148	11.8	16	1.3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725	26.8	1,653	61.2	300	11.1	25	0.9
	중소도시	760	27.3	1,696	60.9	296	10.6	33	1.2
	읍/면	156	27.7	335	59.5	64	11.4	8	1.4
전체		1,641	27.1	3,684	60.9	660	10.9	66	1.1

문 7-2

법은 준수하지만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시민이 아니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824	28.2	1,590	54.5	436	14.9	70	2.4
	여	722	23.1	1,962	62.7	409	13.1	38	1.2
학교급	중	776	26.3	1,648	55.8	458	15.5	69	2.3
	고	770	24.8	1,904	61.4	387	12.5	39	1.3
성적	상	478	30.8	880	56.7	169	10.9	26	1.7
	중	650	24.9	1,562	59.9	350	13.4	46	1.8
	하	418	22.1	1,110	58.7	326	17.2	36	1.9
경제수준	상	565	27.0	1,189	56.9	301	14.4	35	1.7
	중	661	24.5	1,622	60.0	375	13.9	45	1.7
	하	320	25.4	741	58.9	169	13.4	28	2.2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714	26.4	1,602	59.3	338	12.5	49	1.8
	중소도시	716	25.7	1,609	57.8	411	14.8	49	1.8
	읍/면	116	20.6	341	60.6	96	17.1	10	1.8
전체		1,546	25.5	3,552	58.7	845	14.0	108	1.8

문 7-3 좋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만이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476	16.3	1,199	41.1	1,096	37.5	149	5.1
	여	324	10.3	1,325	42.3	1,387	44.3	95	3.0
학교급	중	446	15.1	1,216	41.2	1,143	38.7	146	4.9
	고	354	11.4	1,308	42.2	1,340	43.2	98	3.2
성적	상	235	15.1	630	40.6	627	40.4	61	3.9
	중	340	13.0	1,089	41.8	1,076	41.3	103	3.9
	하	225	11.9	805	42.6	780	41.3	80	4.2
경제수준	상	290	13.9	846	40.5	859	41.1	95	4.5
	중	331	12.2	1,173	43.4	1,098	40.6	101	3.7
	하	179	14.2	505	40.1	526	41.8	48	3.8
거주지역	특별 /광역시	342	12.7	1,130	41.8	1,123	41.5	108	4.0
	중소 도시	379	13.6	1,150	41.3	1,143	41.0	113	4.1
	읍/면	79	14.0	244	43.3	217	38.5	23	4.1
전체		800	13.2	2,524	41.7	2,483	41.0	244	4.0

문 7-4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792	27.1	1,618	55.4	442	15.1	68	2.3
	여	708	22.6	1,962	62.7	435	13.9	26	0.8
학교급	중	767	26.0	1,690	57.3	432	14.6	62	2.1
	고	733	23.6	1,890	61.0	445	14.4	32	1.0
성적	상	416	26.8	878	56.5	235	15.1	24	1.5
	중	650	24.9	1,570	60.2	349	13.4	39	1.5
	하	434	23.0	1,132	59.9	293	15.5	31	1.6
경제수준	상	524	25.1	1,204	57.6	324	15.5	38	1.8
	중	659	24.4	1,636	60.5	371	13.7	37	1.4
	하	317	25.2	740	58.8	182	14.5	19	1.5
거주지역	특별 /광역시	680	25.2	1,589	58.8	387	14.3	47	1.7
	중소 도시	687	24.7	1,654	59.4	403	14.5	41	1.5
	읍/면	133	23.6	337	59.9	87	15.5	6	1.1
전체		1,500	24.8	3,580	59.2	877	14.5	94	1.6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638	21.8	1,884	64.5	347	11.9	51	1.7
	여	583	18.6	2,304	73.6	231	7.4	13	0.4
학교급	중	610	20.7	1,972	66.8	328	11.1	41	1.4
	고	611	19.7	2,216	71.5	250	8.1	23	0.7
성적	상	382	24.6	1,048	67.5	104	6.7	19	1.2
	중	507	19.4	1,845	70.7	231	8.9	25	1.0
	하	332	17.6	1,295	68.5	243	12.9	20	1.1
경제수준	상	467	22.3	1,420	67.9	178	8.5	25	1.2
	중	513	19.0	1,910	70.7	253	9.4	27	1.0
	하	241	19.2	858	68.2	147	11.7	12	1.0
거주지역	특별 /광역시	561	20.8	1,882	69.6	235	8.7	25	0.9
	중소 도시	563	20.2	1,902	68.3	287	10.3	33	1.2
	읍/면	97	17.2	404	71.8	56	9.9	6	1.1
전체		1,221	20.2	4,188	69.2	578	9.6	64	1.1

문 7-6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 성숙이 중요하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868	29.7	1,746	59.8	259	8.9	47	1.6
	여	837	26.7	2,037	65.1	239	7.6	18	0.6
학교급	중	744	25.2	1,847	62.6	318	10.8	42	1.4
	고	961	31.0	1,936	62.5	180	5.8	23	0.7
성적	상	532	34.3	911	58.7	94	6.1	16	1.0
	중	710	27.2	1,675	64.2	200	7.7	23	0.9
	하	463	24.5	1,197	63.3	204	10.8	26	1.4
경제수준	상	651	31.1	1,234	59.0	182	8.7	23	1.1
	중	682	25.2	1,784	66.0	208	7.7	29	1.1
	하	372	29.6	765	60.8	108	8.6	13	1.0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789	29.2	1,673	61.9	215	8.0	26	1.0
	중소도시	784	28.2	1,741	62.5	226	8.1	34	1.2
	읍/면	132	23.4	369	65.5	57	10.1	5	0.9
전체		1,705	28.2	3,783	62.5	498	8.2	65	1.1

문 7-7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일지라도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567	19.4	1,422	48.7	805	27.6	126	4.3
	여	414	13.2	1,548	49.4	1,093	34.9	76	2.4
학교급	중	489	16.6	1,353	45.8	981	33.2	128	4.3
	고	492	15.9	1,617	52.2	917	29.6	74	2.4
성적	상	299	19.3	772	49.7	438	28.2	44	2.8
	중	410	15.7	1,256	48.2	853	32.7	89	3.4
	하	272	14.4	942	49.8	607	32.1	69	3.7
경제수준	상	360	17.2	1,046	50.0	608	29.1	76	3.6
	중	421	15.6	1,343	49.7	861	31.9	78	2.9
	하	200	15.9	581	46.2	429	34.1	48	3.8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434	16.1	1,327	49.1	850	31.4	92	3.4
	중소도시	455	16.3	1,368	49.1	868	31.2	94	3.4
	읍/면	92	16.3	275	48.8	180	32.0	16	2.8
전체		981	16.2	2,970	49.1	1,898	31.4	202	3.3

문 8. 선거 또는 다른 공사(공적 업무)들과 관련된 다음 진술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문 8-1 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있더라도 지역연고자 또는 고향출신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96	3.3	352	12.1	1,178	40.3	1,294	44.3
	여	19	.6	151	4.8	1,397	44.6	1,564	50.0
학교급	중	82	2.8	306	10.4	1,296	43.9	1,267	42.9
	고	33	1.1	197	6.4	1,279	41.3	1,591	51.3
성적	상	28	1.8	97	6.2	552	35.5	876	56.4
	중	44	1.7	179	6.9	1,112	42.6	1,273	48.8
	하	43	2.3	227	12.0	911	48.2	709	37.5
경제수준	상	45	2.2	192	9.2	853	40.8	1,000	47.8
	중	55	2.0	214	7.9	1,196	44.2	1,238	45.8
	하	15	1.2	97	7.7	526	41.8	620	49.3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44	1.6	210	7.8	1,100	40.7	1,349	49.9
	중소도시	59	2.1	240	8.6	1,207	43.3	1,279	45.9
	읍/면	12	2.1	53	9.4	268	47.6	230	40.9
전체		115	1.9	503	8.3	2,575	42.6	2,858	47.2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160	5.5	662	22.7	1,275	43.7	823	28.2
	여	65	2.1	548	17.5	1,548	49.4	970	31.0
학교급	중	155	5.3	719	24.4	1,340	45.4	737	25.0
	고	70	2.3	491	15.8	1,483	47.8	1,056	34.1
성적	상	40	2.6	229	14.7	706	45.5	578	37.2
	중	100	3.8	475	18.2	1,202	46.1	831	31.9
	하	85	4.5	506	26.8	915	48.4	384	20.3
경제수준	상	84	4.0	411	19.7	943	45.1	652	31.2
	중	96	3.6	550	20.3	1,312	48.5	745	27.6
	하	45	3.6	249	19.8	568	45.2	396	31.5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73	2.7	532	19.7	1,245	46.1	853	31.6
	중소도시	124	4.5	547	19.6	1,297	46.6	817	29.3
	읍/면	28	5.0	131	23.3	281	49.9	123	21.8
전체		225	3.7	1,210	20.0	2,823	46.7	1,793	29.6

문 8-3

만약에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나 친인척이라면 그/그녀가 그 일의 책임자가 아니더라도 그/그녀를 뽑아야 한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110	3.8	450	15.4	1,354	46.4	1,006	34.5
	여	26	.8	296	9.5	1,522	48.6	1,287	41.1
학교급	중	83	2.8	385	13.0	1,400	47.4	1,083	36.7
	고	53	1.7	361	11.6	1,476	47.6	1,210	39.0
성적	상	39	2.5	171	11.0	678	43.7	665	42.8
	중	48	1.8	294	11.3	1,252	48.0	1,014	38.9
	하	49	2.6	281	14.9	946	50.1	614	32.5
경제수준	상	60	2.9	289	13.8	957	45.8	784	37.5
	중	56	2.1	322	11.9	1,346	49.8	979	36.2
	하	20	1.6	135	10.7	573	45.5	530	42.1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49	1.8	317	11.7	1,268	46.9	1,069	39.5
	중소도시	78	2.8	351	12.6	1,320	47.4	1,036	37.2
	읍/면	9	1.6	78	13.9	288	51.2	188	33.4
전체		136	2.2	746	12.3	2,876	47.5	2,293	37.9

문 8-4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사람들을 고용할 때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142	4.9	593	20.3	1,124	38.5	1,061	36.3
	여	56	1.8	405	12.9	1,286	41.1	1,384	44.2
학교급	중	117	4.0	564	19.1	1,215	41.2	1,055	35.8
	고	81	2.6	434	14.0	1,195	38.5	1,390	44.8
성적	상	59	3.8	204	13.1	577	37.2	713	45.9
	중	73	2.8	384	14.7	1,052	40.3	1,099	42.1
	하	66	3.5	410	21.7	781	41.3	633	33.5
경제수준	상	83	4.0	349	16.7	827	39.6	831	39.8
	중	78	2.9	441	16.3	1,115	41.3	1,069	39.5
	하	37	2.9	208	16.5	468	37.2	545	43.3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82	3.0	437	16.2	1,034	38.3	1,150	42.5
	중소도시	98	3.5	459	16.5	1,111	39.9	1,117	40.1
	읍/면	18	3.2	102	18.1	265	47.1	178	31.6
전체		198	3.3	998	16.5	2,410	39.8	2,445	40.4

문 8-5

공무원이 정부계약을 그 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구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N	%	N	%	N	%	N	%
성별	남	115	3.9	411	14.1	1,220	41.8	1,174	40.2
	여	35	1.1	182	5.8	1,332	42.5	1,582	50.5
학교급	중	89	3.0	356	12.1	1,322	44.8	1,184	40.1
	고	61	2.0	237	7.6	1,230	39.7	1,572	50.7
성적	상	46	3.0	98	6.3	583	37.5	826	53.2
	중	52	2.0	234	9.0	1,094	41.9	1,228	47.1
	하	52	2.8	261	13.8	875	46.3	702	37.1
경제수준	상	71	3.4	207	9.9	849	40.6	963	46.1
	중	57	2.1	279	10.3	1,174	43.4	1,193	44.1
	하	22	1.7	107	8.5	529	42.1	600	47.7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70	2.6	240	8.9	1,089	40.3	1,304	48.2
	중소도시	73	2.6	292	10.5	1,177	42.3	1,243	44.6
	읍/면	7	1.2	61	10.8	286	50.8	209	37.1
전체		150	2.5	593	9.8	2,552	42.2	2,756	45.5

문 9. 당신은 학교에서 다음의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초등학교 입학 후 당신이 다녔던 모든 학교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문 9-1 방과 후 학교의 예·체능(음악, 연극, 운동, 방송 등) 활동에 자발적 참여

구분		최근 1년 동안 참여한 적이 있다		1년보다 더 이전에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한 적이 없다	
		N	%	N	%	N	%
성별	남	1,138	39.0	968	33.2	814	27.9
	여	1,133	36.2	1,228	39.2	770	24.6
학교급	중	1,207	40.9	958	32.5	786	26.6
	고	1,064	34.3	1,238	39.9	798	25.7
성적	상	656	42.2	561	36.1	336	21.6
	중	975	37.4	962	36.9	671	25.7
	하	640	33.9	673	35.6	577	30.5
경제수준	상	843	40.3	759	36.3	488	23.3
	중	948	35.1	998	36.9	757	28.0
	하	480	38.2	439	34.9	339	26.9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1,046	38.7	951	35.2	706	26.1
	중소도시	992	35.6	1,046	37.6	747	26.8
	읍/면	233	41.4	199	35.3	131	23.3
전체		2,271	37.5	2,196	36.3	1,584	26.2

구분		최근 1년 동안 참여한 적이 있다		1년보다 더 이전에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한 적이 없다	
		N	%	N	%	N	%
성별	남	905	31.0	1,005	34.4	1,010	34.6
	여	1,148	36.7	1,195	38.2	788	25.2
학교급	중	1,023	34.7	1,012	34.3	916	31.0
	고	1,030	33.2	1,188	38.3	882	28.5
성적	상	706	45.5	561	36.1	286	18.4
	중	882	33.8	986	37.8	740	28.4
	하	465	24.6	653	34.6	772	40.8
경제수준	상	833	39.9	762	36.5	495	23.7
	중	849	31.4	983	36.4	871	32.2
	하	371	29.5	455	36.2	432	34.3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940	34.8	1,015	37.6	748	27.7
	중소도시	941	33.8	996	35.8	848	30.4
	읍/면	172	30.6	189	33.6	202	35.9
전체		2,053	33.9	2,200	36.4	1,798	29.7

구분		최근 1년 동안 참여한 적이 있다		1년보다 더 이전에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한 적이 없다	
		N	%	N	%	N	%
성별	남	1,669	57.2	691	23.7	560	19.2
	여	2,187	69.8	572	18.3	372	11.9
학교급	중	1,744	59.1	672	22.8	535	18.1
	고	2,112	68.1	591	19.1	397	12.8
성적	상	1,151	74.1	263	16.9	139	9.0
	중	1,711	65.6	550	21.1	347	13.3
	하	994	52.6	450	23.8	446	23.6
경제수준	상	1,393	66.7	441	21.1	256	12.2
	중	1,681	62.2	572	21.2	450	16.6
	하	782	62.2	250	19.9	226	18.0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1,785	66.0	545	20.2	373	13.8
	중소도시	1,746	62.7	587	21.1	452	16.2
	읍/면	325	57.7	131	23.3	107	19.0
전체		3,856	63.7	1,263	20.9	932	15.4

구분		최근 1년 동안 참여한 적이 있다		1년보다 더 이전에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한 적이 없다	
		N	%	N	%	N	%
성별	남	758	26.0	831	28.5	1,331	45.6
	여	959	30.6	881	28.1	1,291	41.2
학교급	중	803	27.2	780	26.4	1,368	46.4
	고	914	29.5	932	30.1	1,254	40.5
성적	상	604	38.9	456	29.4	493	31.7
	중	743	28.5	754	28.9	1,111	42.6
	하	370	19.6	502	26.6	1,018	53.9
경제수준	상	710	34.0	630	30.1	750	35.9
	중	694	25.7	759	28.1	1,250	46.2
	하	313	24.9	323	25.7	622	49.4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808	29.9	776	28.7	1,119	41.4
	중소도시	769	27.6	778	27.9	1,238	44.5
	읍/면	140	24.9	158	28.1	265	47.1
전체		1,717	28.4	1,712	28.3	2,622	43.3

구분		최근 1년 동안 참여한 적이 있다		1년보다 더 이전에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한 적이 없다	
		N	%	N	%	N	%
성별	남	511	17.5	760	26.0	1,649	56.5
	여	488	15.6	856	27.3	1,787	57.1
학교급	중	557	18.9	756	25.6	1,638	55.5
	고	442	14.3	860	27.7	1,798	58.0
성적	상	404	26.0	463	29.8	686	44.2
	중	400	15.3	722	27.7	1,486	57.0
	하	195	10.3	431	22.8	1,264	66.9
경제수준	상	434	20.8	632	30.2	1,024	49.0
	중	405	15.0	696	25.7	1,602	59.3
	하	160	12.7	288	22.9	810	64.4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482	17.8	706	26.1	1,515	56.0
	중소도시	436	15.7	750	26.9	1,599	57.4
	읍/면	81	14.4	160	28.4	322	57.2
전체		999	16.5	1,616	26.7	3,436	56.8

구분		최근 1년 동안 참여한 적이 있다		1년보다 더 이전에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한 적이 없다	
		N	%	N	%	N	%
성별	남	670	22.9	972	33.3	1,278	43.8
	여	699	22.3	1,160	37.0	1,272	40.6
학교급	중	706	23.9	967	32.8	1,278	43.3
	고	663	21.4	1,165	37.6	1,272	41.0
성적	상	552	35.5	561	36.1	440	28.3
	중	560	21.5	983	37.7	1,065	40.8
	하	257	13.6	588	31.1	1,045	55.3
경제수준	상	594	28.4	773	37.0	723	34.6
	중	533	19.7	961	35.6	1,209	44.7
	하	242	19.2	398	31.6	618	49.1
거주지역	특별 /광역시	649	24.0	960	35.5	1,094	40.5
	중소 도시	604	21.7	964	34.6	1,217	43.7
	읍/면	116	20.6	208	36.9	239	42.5
전체		1,369	22.6	2,132	35.2	2,550	42.1

문 10.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문 10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있음		없음	
		N	%	N	%
성별	남	1,881	64.4	1,039	35.6
	여	2,400	76.7	731	23.3
학교급	중	2,011	68.1	940	31.9
	고	2,270	73.2	830	26.8
성적	상	1,212	78.0	341	22.0
	중	1,887	72.4	721	27.6
	하	1,182	62.5	708	37.5
경제수준	상	1,571	75.2	519	24.8
	중	1,872	69.3	831	30.7
	하	838	66.6	420	33.4
거주지역	특별 /광역시	1,900	70.3	803	29.7
	중소 도시	1,943	69.8	842	30.2
	읍/면	438	77.8	125	22.2
전체		4,281	70.7	1,770	29.3

문 11. 당신은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참여 합니까?

문 11-1 진학시(학교) 내신 성적 반영 때문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성별	남	153	8.1	213	11.3	571	30.4	614	32.6	330	17.5
	여	114	4.8	240	10.0	719	30.0	977	40.7	350	14.6
학교급	중	141	7.0	210	10.4	575	28.6	714	35.5	371	18.4
	고	126	5.6	243	10.7	715	31.5	877	38.6	309	13.6
성적	상	66	5.4	110	9.1	314	25.9	492	40.6	230	19.0
	중	126	6.7	184	9.8	592	31.4	711	37.7	274	14.5
	하	75	6.3	159	13.5	384	32.5	388	32.8	176	14.9
경제 수준	상	102	6.5	185	11.8	462	29.4	562	35.8	260	16.5
	중	97	5.2	182	9.7	578	30.9	728	38.9	287	15.3
	하	68	8.1	86	10.3	250	29.8	301	35.9	133	15.9
거주 지역	특별/광역시	129	6.8	208	10.9	573	30.2	707	37.2	283	14.9
	중소 도시	116	6.0	197	10.1	579	29.8	721	37.1	330	17.0
	읍/면	22	5.0	48	11.0	138	31.5	163	37.2	67	15.3
전체		267	6.2	453	10.6	1,290	30.1	1,591	37.2	680	15.9

문 11-2 주위 친척들이나 어른들이 봉사활동을 하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성별	남	420	22.3	589	31.3	619	32.9	187	9.9	66	3.5
	여	500	20.8	961	40.0	704	29.3	210	8.8	25	1.0
학교급	중	402	20.0	646	32.1	682	33.9	228	11.3	53	2.6
	고	518	22.8	904	39.8	641	28.2	169	7.4	38	1.7
성적	상	312	25.7	444	36.6	306	25.2	125	10.3	25	2.1
	중	370	19.6	689	36.5	618	32.8	172	9.1	38	2.0
	하	238	20.1	417	35.3	399	33.8	100	8.5	28	2.4
경제수준	상	332	21.1	559	35.6	473	30.1	170	10.8	37	2.4
	중	379	20.2	690	36.9	612	32.7	154	8.2	37	2.0
	하	209	24.9	301	35.9	238	28.4	73	8.7	17	2.0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410	21.6	717	37.7	573	30.2	165	8.7	35	1.8
	중소도시	441	22.7	675	34.7	600	30.9	180	9.3	47	2.4
	읍/면	69	15.8	158	36.1	150	34.2	52	11.9	9	2.1
전체		920	21.5	1,550	36.2	1,323	30.9	397	9.3	91	2.1

문 11-3 종교적으로 봉사활동이 좋다고 해서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성별	남	710	37.7	608	32.3	394	20.9	122	6.5	47	2.5
	여	965	40.2	909	37.9	398	16.6	109	4.5	19	.8
학교급	중	700	34.8	676	33.6	457	22.7	136	6.8	42	2.1
	고	975	43.0	841	37.0	335	14.8	95	4.2	24	1.1
성적	상	568	46.9	398	32.8	163	13.4	64	5.3	19	1.6
	중	695	36.8	689	36.5	384	20.3	98	5.2	21	1.1
	하	412	34.9	430	36.4	245	20.7	69	5.8	26	2.2
경제수준	상	648	41.2	527	33.5	273	17.4	93	5.9	30	1.9
	중	697	37.2	696	37.2	358	19.1	96	5.1	25	1.3
	하	330	39.4	294	35.1	161	19.2	42	5.0	11	1.3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732	38.5	672	35.4	361	19.0	107	5.6	28	1.5
	중소도시	800	41.2	675	34.7	338	17.4	102	5.2	28	1.4
	읍/면	143	32.6	170	38.8	93	21.2	22	5.0	10	2.3
전체		1,675	39.1	1,517	35.4	792	18.5	231	5.4	66	1.5

문 11-4 부모님이 봉사활동을 하자고 해서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성별	남	564	30.0	561	29.8	478	25.4	211	11.2	67	3.6
	여	784	32.7	880	36.7	491	20.5	215	9.0	30	1.3
학교급	중	534	26.6	625	31.1	549	27.3	234	11.6	69	3.4
	고	814	35.9	816	35.9	420	18.5	192	8.5	28	1.2
성적	상	428	35.3	360	29.7	250	20.6	146	12.0	28	2.3
	중	557	29.5	655	34.7	455	24.1	186	9.9	34	1.8
	하	363	30.7	426	36.0	264	22.3	94	8.0	35	3.0
경제수준	상	483	30.7	481	30.6	367	23.4	189	12.0	51	3.2
	중	567	30.3	662	35.4	432	23.1	180	9.6	31	1.7
	하	298	35.6	298	35.6	170	20.3	57	6.8	15	1.8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583	30.7	670	35.3	427	22.5	183	9.6	37	1.9
	중소도시	654	33.7	619	31.9	428	22.0	196	10.1	46	2.4
	읍/면	111	25.3	152	34.7	114	26.0	47	10.7	14	3.2
전체		1,348	31.5	1,441	33.7	969	22.6	426	10.0	97	2.3

문 11-5 선생님께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해서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성별	남	287	15.3	331	17.6	583	31.0	494	26.3	186	9.9
	여	324	13.5	427	17.8	712	29.7	773	32.2	164	6.8
학교급	중	259	12.9	316	15.7	627	31.2	599	29.8	210	10.4
	고	352	15.5	442	19.5	668	29.4	668	29.4	140	6.2
성적	상	196	16.2	211	17.4	348	28.7	358	29.5	99	8.2
	중	255	13.5	351	18.6	582	30.8	566	30.0	133	7.0
	하	160	13.5	196	16.6	365	30.9	343	29.0	118	10.0
경제수준	상	261	16.6	288	18.3	434	27.6	449	28.6	139	8.8
	중	229	12.2	329	17.6	598	31.9	569	30.4	147	7.9
	하	121	14.4	141	16.8	263	31.4	249	29.7	64	7.6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277	14.6	342	18.0	585	30.8	543	28.6	153	8.1
	중소도시	290	14.9	345	17.8	571	29.4	571	29.4	166	8.5
	읍/면	44	10.0	71	16.2	139	31.7	153	34.9	31	7.1
전체		611	14.3	758	17.7	1,295	30.2	1,267	29.6	350	8.2

문 11-6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성별	남	249	13.2	329	17.5	658	35.0	470	25.0	175	9.3
	여	146	6.1	305	12.7	805	33.5	910	37.9	234	9.8
학교급	중	213	10.6	329	16.4	685	34.1	572	28.4	212	10.5
	고	182	8.0	305	13.4	778	34.3	808	35.6	197	8.7
성적	상	139	11.5	164	13.5	350	28.9	419	34.6	140	11.6
	중	138	7.3	263	13.9	691	36.6	624	33.1	171	9.1
	하	118	10.0	207	17.5	422	35.7	337	28.5	98	8.3
경제수준	상	155	9.9	223	14.2	494	31.4	520	33.1	179	11.4
	중	162	8.7	265	14.2	700	37.4	595	31.8	150	8.0
	하	78	9.3	146	17.4	269	32.1	265	31.6	80	9.5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145	7.6	297	15.6	652	34.3	609	32.1	197	10.4
	중소도시	212	10.9	271	13.9	646	33.2	643	33.1	171	8.8
	읍/면	38	8.7	66	15.1	165	37.7	128	29.2	41	9.4
전체		395	9.2	634	14.8	1,463	34.2	1,380	32.2	409	9.6

문 11-7 내가 살고 있는 동네나 지역사회, 국가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성별	남	309	16.4	377	20.0	690	36.7	382	20.3	123	6.5
	여	235	9.8	549	22.9	911	38.0	566	23.6	139	5.8
학교급	중	271	13.5	404	20.1	769	38.2	425	21.1	142	7.1
	고	273	12.0	522	23.0	832	36.7	523	23.0	120	5.3
성적	상	173	14.3	235	19.4	404	33.3	312	25.7	88	7.3
	중	200	10.6	419	22.2	756	40.1	415	22.0	97	5.1
	하	171	14.5	272	23.0	441	37.3	221	18.7	77	6.5
경제수준	상	211	13.4	318	20.2	575	36.6	346	22.0	121	7.7
	중	222	11.9	409	21.8	721	38.5	426	22.8	94	5.0
	하	111	13.2	199	23.7	305	36.4	176	21.0	47	5.6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204	10.7	425	22.4	729	38.4	420	22.1	122	6.4
	중소도시	288	14.8	422	21.7	695	35.8	429	22.1	109	5.6
	읍/면	52	11.9	79	18.0	177	40.4	99	22.6	31	7.1
전체		544	12.7	926	21.6	1,601	37.4	948	22.1	262	6.1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성별	남	387	20.6	498	26.5	583	31.0	288	15.3	125	6.6
	여	350	14.6	704	29.3	783	32.6	416	17.3	147	6.1
학교급	중	362	18.0	516	25.7	669	33.3	323	16.1	141	7.0
	고	375	16.5	686	30.2	697	30.7	381	16.8	131	5.8
성적	상	250	20.6	344	28.4	321	26.5	208	17.2	89	7.3
	중	276	14.6	532	28.2	654	34.7	322	17.1	103	5.5
	하	211	17.9	326	27.6	391	33.1	174	14.7	80	6.8
경제수준	상	278	17.7	418	26.6	465	29.6	288	18.3	122	7.8
	중	309	16.5	530	28.3	631	33.7	300	16.0	102	5.4
	하	150	17.9	254	30.3	270	32.2	116	13.8	48	5.7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287	15.1	559	29.4	609	32.1	319	16.8	126	6.6
	중소도시	377	19.4	530	27.3	607	31.2	312	16.1	117	6.0
	읍/면	73	16.7	113	25.8	150	34.2	73	16.7	29	6.6
전체		737	17.2	1,202	28.1	1,366	31.9	704	16.4	272	6.4

문 11-9

내가 봉사활동을 하면 나 자신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성별	남	258	13.7	285	15.2	664	35.3	474	25.2	200	10.6
	여	174	7.3	384	16.0	775	32.3	785	32.7	282	11.8
학교급	중	232	11.5	294	14.6	715	35.6	568	28.2	202	10.0
	고	200	8.8	375	16.5	724	31.9	691	30.4	280	12.3
성적	상	151	12.5	206	17.0	336	27.7	370	30.5	149	12.3
	중	150	7.9	286	15.2	664	35.2	579	30.7	208	11.0
	하	131	11.1	177	15.0	439	37.1	310	26.2	125	10.6
경제수준	상	163	10.4	230	14.6	504	32.1	469	29.9	205	13.0
	중	177	9.5	291	15.5	675	36.1	557	29.8	172	9.2
	하	92	11.0	148	17.7	260	31.0	233	27.8	105	12.5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163	8.6	286	15.1	657	34.6	568	29.9	226	11.9
	중소도시	225	11.6	332	17.1	622	32.0	555	28.6	209	10.8
	읍/면	44	10.0	51	11.6	160	36.5	136	31.1	47	10.7
전체		432	10.1	669	15.6	1,439	33.6	1,259	29.4	482	11.3

문 11-10 봉사활동을 통해서 보람있는 일을 했다고 하는 뿌듯한 마음을 갖고 싶어서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성별	남	214	11.4	213	11.3	631	33.5	547	29.1	276	14.7
	여	104	4.3	162	6.8	641	26.7	971	40.5	522	21.8
학교급	중	182	9.1	195	9.7	653	32.5	648	32.2	333	16.6
	고	136	6.0	180	7.9	619	27.3	870	38.3	465	20.5
성적	상	116	9.6	94	7.8	290	23.9	457	37.7	255	21.0
	중	101	5.4	154	8.2	586	31.1	702	37.2	344	18.2
	하	101	8.5	127	10.7	396	33.5	359	30.4	199	16.8
경제수준	상	124	7.9	130	8.3	444	28.3	547	34.8	326	20.8
	중	131	7.0	163	8.7	595	31.8	675	36.1	308	16.5
	하	63	7.5	82	9.8	233	27.8	296	35.3	164	19.6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110	5.8	164	8.6	544	28.6	694	36.5	388	20.4
	중소도시	173	8.9	174	9.0	581	29.9	679	34.9	336	17.3
	읍/면	35	8.0	37	8.4	147	33.6	145	33.1	74	16.9
전체		318	7.4	375	8.8	1,272	29.7	1,518	35.5	798	18.6

문 11-11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성별	남	213	11.3	222	11.8	694	36.9	521	27.7	231	12.3
	여	102	4.3	202	8.4	805	33.5	887	37.0	404	16.8
학교급	중	181	9.0	226	11.2	751	37.3	585	29.1	268	13.3
	고	134	5.9	198	8.7	748	33.0	823	36.3	367	16.2
성적	상	116	9.6	115	9.5	360	29.7	445	36.7	176	14.5
	중	98	5.2	184	9.8	696	36.9	606	32.1	303	16.1
	하	101	8.5	125	10.6	443	37.5	357	30.2	156	13.2
경제수준	상	126	8.0	154	9.8	546	34.8	494	31.4	251	16.0
	중	126	6.7	179	9.6	692	37.0	631	33.7	244	13.0
	하	63	7.5	91	10.9	261	31.1	283	33.8	140	16.7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108	5.7	199	10.5	649	34.2	631	33.2	313	16.5
	중소도시	177	9.1	185	9.5	701	36.1	620	31.9	260	13.4
	읍/면	30	6.8	40	9.1	149	34.0	157	35.8	62	14.2
전체		315	7.4	424	9.9	1,499	35.0	1,408	32.9	635	14.8

문 11-12 장래의 진로선택이나 직업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성별	남	234	12.4	272	14.5	653	34.7	491	26.1	231	12.3
	여	138	5.8	313	13.0	705	29.4	840	35.0	404	16.8
학교급	중	186	9.2	255	12.7	664	33.0	594	29.5	312	15.5
	고	186	8.2	330	14.5	694	30.6	737	32.5	323	14.2
성적	상	119	9.8	162	13.4	321	26.5	400	33.0	210	17.3
	중	137	7.3	244	12.9	635	33.7	601	31.8	270	14.3
	하	116	9.8	179	15.1	402	34.0	330	27.9	155	13.1
경제수준	상	140	8.9	192	12.2	483	30.7	497	31.6	259	16.5
	중	157	8.4	265	14.2	609	32.5	608	32.5	233	12.4
	하	75	8.9	128	15.3	266	31.7	226	27.0	143	17.1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152	8.0	255	13.4	613	32.3	597	31.4	283	14.9
	중소도시	182	9.4	278	14.3	603	31.0	595	30.6	285	14.7
	읍/면	38	8.7	52	11.9	142	32.4	139	31.7	67	15.3
전체		372	8.7	585	13.7	1,358	31.7	1,331	31.1	635	14.8

문 12. 자원봉사와 관련된 당신의 느낌은?

문 12-1 나는 의무시간(점수)을 채우더라도 계속 자원봉사를 할 것이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성별	남	201	10.7	358	19.0	740	39.3	416	22.1	166	8.8
	여	85	3.5	301	12.5	905	37.7	778	32.4	331	13.8
학교급	중	165	8.2	331	16.5	793	39.4	496	24.7	226	11.2
	고	121	5.3	328	14.4	852	37.5	698	30.7	271	11.9
성적	상	113	9.3	171	14.1	384	31.7	374	30.9	170	14.0
	중	100	5.3	272	14.4	772	40.9	538	28.5	205	10.9
	하	73	6.2	216	18.3	489	41.4	282	23.9	122	10.3
경제 수준	상	126	8.0	235	15.0	555	35.3	448	28.5	207	13.2
	중	107	5.7	277	14.8	795	42.5	514	27.5	179	9.6
	하	53	6.3	147	17.5	295	35.2	232	27.7	111	13.2
거주 지역	특별/광역시	105	5.5	287	15.1	741	39.0	526	27.7	241	12.7
	중소 도시	154	7.9	314	16.2	716	36.9	550	28.3	209	10.8
	읍/면	27	6.2	58	13.2	188	42.9	118	26.9	47	10.7
전체		286	6.7	659	15.4	1,645	38.4	1,194	27.9	497	11.6

문 12-2 나는 상급학교 진학 후에도 계속 자원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성별	남	164	8.7	290	15.4	711	37.8	541	28.8	175	9.3
	여	61	2.5	199	8.3	844	35.2	925	38.5	371	15.5
학교급	중	127	6.3	259	12.9	779	38.7	609	30.3	237	11.8
	고	98	4.3	230	10.1	776	34.2	857	37.8	309	13.6
성적	상	76	6.3	107	8.8	358	29.5	468	38.6	203	16.7
	중	75	4.0	219	11.6	696	36.9	680	36.0	217	11.5
	하	74	6.3	163	13.8	501	42.4	318	26.9	126	10.7
경제수준	상	94	6.0	161	10.2	509	32.4	570	36.3	237	15.1
	중	83	4.4	228	12.2	750	40.1	614	32.8	197	10.5
	하	48	5.7	100	11.9	296	35.3	282	33.7	112	13.4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86	4.5	201	10.6	691	36.4	657	34.6	265	13.9
	중소도시	120	6.2	239	12.3	691	35.6	662	34.1	231	11.9
	읍/면	19	4.3	49	11.2	173	39.5	147	33.6	50	11.4
전체		225	5.3	489	11.4	1,555	36.3	1,466	34.2	546	12.8

문 12-3 나는 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자원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성별	남	195	10.4	322	17.1	775	41.2	434	23.1	155	8.2
	여	83	3.5	229	9.5	890	37.1	829	34.5	369	15.4
학교급	중	164	8.2	296	14.7	830	41.3	514	25.6	207	10.3
	고	114	5.0	255	11.2	835	36.8	749	33.0	317	14.0
성적	상	96	7.9	151	12.5	400	33.0	358	29.5	207	17.1
	중	94	5.0	222	11.8	762	40.4	601	31.8	208	11.0
	하	88	7.4	178	15.1	503	42.6	304	25.7	109	9.2
경제수준	상	121	7.7	202	12.9	556	35.4	469	29.9	223	14.2
	중	100	5.3	244	13.0	793	42.4	557	29.8	178	9.5
	하	57	6.8	105	12.5	316	37.7	237	28.3	123	14.7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106	5.6	240	12.6	727	38.3	574	30.2	253	13.3
	중소도시	147	7.6	259	13.3	747	38.4	563	29.0	227	11.7
	읍/면	25	5.7	52	11.9	191	43.6	126	28.8	44	10.0
전체		278	6.5	551	12.9	1,665	38.9	1,263	29.5	524	12.2

문 12-4 나는 평생 동안 계속 자원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성별	남	298	15.8	450	23.9	766	40.7	250	13.3	117	6.2
	여	166	6.9	402	16.8	1,068	44.5	508	21.2	256	10.7
학교급	중	266	13.2	437	21.7	873	43.4	289	14.4	146	7.3
	고	198	8.7	415	18.3	961	42.3	469	20.7	227	10.0
성적	상	156	12.9	226	18.6	446	36.8	235	19.4	149	12.3
	중	163	8.6	374	19.8	864	45.8	339	18.0	147	7.8
	하	145	12.3	252	21.3	524	44.3	184	15.6	77	6.5
경제수준	상	183	11.6	303	19.3	647	41.2	279	17.8	159	10.1
	중	182	9.7	379	20.2	853	45.6	331	17.7	127	6.8
	하	99	11.8	170	20.3	334	39.9	148	17.7	87	10.4
거주지역	특별/광역시	172	9.1	358	18.8	842	44.3	360	18.9	168	8.8
	중소도시	243	12.5	418	21.5	792	40.8	323	16.6	167	8.6
	읍/면	49	11.2	76	17.4	200	45.7	75	17.1	38	8.7
전체		464	10.8	852	19.9	1,834	42.8	758	17.7	373	8.7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civic competency of children and youth in Korea and suggest policies to let them improve their civic competency by using the Asian module survey conducted by IEA in 2009. To achieve the research aim, it did a survey target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15 cities except Jeju-do, and 6051 respons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in most parts under civic competency, male students have relatively high civic competency than female ones. That shows, the status of civic competency of youth is largely different depending on gender. In addition, it is analyzed that, as they are aged, their status of civic competency increases or maintains its level stably. However, the level of their identity as an Asian decreases and negative awareness about legal system increases as they move to higher grade. The level of civic competency in a specific area decreas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 between experience in school activities and volunteer works of youth and civic competency, it has a close relation between them. Except the obedience to an authority, the positive relationship with experience in joining school activities is shown in all areas under civic competency. In addition, the youth with experience in volunteer works have high civic competency in all areas except the awareness of legal system and the identity as an Asia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the differentiated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civic competency of each target, the increase in participation by students for democratic school management, the construction of social support network to improve civic competency, and the creation of an institutional system to rise volunteer works by youth to enhance their civic competency are suggested as a policy alternative.

Key words: ICCS, Civic Competency, School Activity, Volunteer Work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3-R01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 이경상·최항섭·그레이스정
- 13-R02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지경·이광호
- 13-R0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 김현철·임희진·정효진·민경석
- 13-R04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 김기현
- 13-R05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
- 13-R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I / 안선영·김희진·강영배·배경내
- 13-R07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영한·조아미·이승하
- 13-R08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 이창호·김경희
- 13-R09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전명기
- 13-R10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윤옥경·조윤오
- 13-R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배상률·성은모·이혜연·김균희·이용교·홍승혜
- 13-R1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이혜연·배상률·성은모·김균희
- 13-R11-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청소년)의 상호기대 차이 연구 / 성은모·오현석·최윤미
- 13-R12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 총괄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3-R12-1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김승경
- 13-R12-2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 질적연구보고서 / 이창호
- 13-R12-3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3-R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김영지·김경준·김지혜·이민희
- 13-R13-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유성렬·김신영
- 13-R13-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김경준
- 13-R1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 사업보고서 / 이종원·서정아·황진구
- 13-R14-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1 : 청소년의 학업성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중단연구 / 이종원

13-R1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 서정아

13-R1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3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중단부석 - / 황진구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III: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 오해섭·박정배 (자체번호 13-R1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2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III: 2013 민주 시민역량 실태조사 / 오해섭·박정배 (자체번호 13-R15-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3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III: 교육분야 지원 체계 구축 / 홍영란·현영섭 (자체번호 13-R15-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III: 총괄보고서 / 모상현·김형주·이선영 (자체번호 13-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III: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지표개발을 통한 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연구 / 최은진·김미숙·전진아 (자체번호 13-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III: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을 위한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창호·강석영·이동훈 (자체번호 13-R16-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II: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 김지연·황여정·이준일·방은령·강현철 (자체번호 13-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II: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개발 / 김은지·김동식·최인희·선보영·김나연·정다은 (자체번호 13-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II: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 신운정·이상림·김윤희 (자체번호 13-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 / 윤철경·유성렬·김신영·임지연 (자체번호 13-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3-R18-1)

수 시 과 제

13-R19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연계 방안 / 성은모

13-R20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전략 연구 / 최창욱

13-R2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 황진구·김희진

13-R22 전국 청소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영한

- 13-R23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 윤철경·김윤나
- 13-R24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임희진
- 13-R25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장근영
- 13-R26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이슈페이퍼 발간) / 이창호

수탁과제

- 13-R27 영천시 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 김영한·서정아·김상연
- 13-R28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배상률·김형주·성은모
- 13-R29 2013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13-R3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유성렬
- 13-R31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문화 조성방안 연구 / 김승경
- 13-R32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최창욱
- 13-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유성렬
- 13-R34 국립대구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세부사업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이유진·한상철·추승연·김상연
- 13-R35 201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 양계민
- 13-R36 20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 김지연·이경상
- 13-R37 한중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이창호·최금해·오해섭
- 13-R38 청소년국제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사업 / 양계민
- 13-R39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 구축모형 개발연구 / 서정아·황진구·조성은
- 13-R40 청소년 희망카드(가칭) 도입방안 연구 / 김경준·모상현
- 13-R41 2013년 성남시 청소년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황진구·이종원
- 13-R4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BSG매니저 전문가 과정 연구용역 / 김승경·맹영임
- 13-R43 자유학기제 학생자율선택프로그램(농림수산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창욱·송병국
- 13-R44 RCY 미래전략 개발 및 참여청소년 효과성 연구 / 장근영·맹영임
- 13-R45 2013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배상률·황여정
- 13-R46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 안선영
- 13-R47 유소년스포츠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 임지연·장덕선
- 13-R48 휴먼네트워킹 멘토링의 효과성 및 사회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 성은모·이주석
- 13-R49 2013년 또래조정사업 (2014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김지경·김지연·이종원
- 13-R50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성은모·최창욱
- 13-R51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김형주·배상률·강영배·김정주·김혁진·이은미

- 13-R52 학생모니터단 운영 (2014년 2월 발간예정) / 오해섭·김경준·김영지
- 13-R53 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오해섭·김영지
- 13-R54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김경준·모상현·이혜연
- 13-R54-1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김경준·모상현·이혜연
- 13-R54-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이지혜·박형근·이수경·전진현
- 13-R54-3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이지혜·박형근·이수경·전진현
- 13-R54-4 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김인숙·정병수·황소영·신혜원
- 13-R54-5 교사용 인권교육자료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김인숙·정병수·황소영·신혜원
- 13-R55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초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김현철·김희진·김인아·김재근·김정희
- 13-R55-1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중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현철·김영지·김희진·송인숙·표혜영
- 13-R55-2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고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희진·김영지·김현철·박정수·박지만·오수정
- 13-R56 디지털교과서·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시계열효과 분석연구 (2014년 2월 발간예정) / 장근영·김형주
- 13-R57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 (2014년 6월 발간예정) / 김영지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3-S01 인성교육실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학교규칙 및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28~29)
- 13-S02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I (1/7~8)
- 13-S03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II (1/7~8)
- 13-S04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제작 워크숍 (2/5)
- 13-S05 NYPI 기획세미나 -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2/21)
- 13-S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전문가 워크숍 (2/21)
- 13-S07 NYPI 기획세미나 방송과 청소년보호 (2/28)
- 13-S08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2/13)
- 13-S09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의 행복을 묻는다 : 성장 환경과 발달 모습 (3/20)
- 13-S10 후기청소년세대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4/10)
- 13-S11 제2차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 청소년 역량 개발 방향성 모색 : 체험활동과 인프라 조성 - (4/18)
- 13-S12 탈북청소년 연구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4/9)
- 13-S13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4/29, 30)
- 13-S14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선도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9)
- 13-S15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5/21)
- 13-S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6/1)

- 13-S17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민 (5/22)
- 13-S18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5/24)
- 13-S19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6/1)
- 13-S20 해외 이슈배경 청소년정책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6/3)
- 13-S21 2013년 미래환경변화전망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과제I 콜로키움 자료집 : 미래에 대한 접근 (6/4)
- 13-S2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 (6/11)
- 13-S23 201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사건가 분석 (6/21)
- 13-S24 NYPI 개원 24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7/3)
- 13-S25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잠재성장모형 분석 (7/14)
- 13-S26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체험활동의 연계방안 (7/5)
- 13-S27 청소년상담의 이해와 상담기법 (8/5~7)
- 13-S28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6/18)
- 13-S29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7/5)
- 13-S30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센터 관계자 간담회 (7/17, 19)
- 13-S31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모니터링 위원 간담회 (7/22)
- 13-S32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 교육단계 (7/23)
- 13-S33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2 : 직훈단계 (7/24)
- 13-S34 2013년도 진로교사 심화연수 - 청소년상담 기법(C-4) (7/29~31)
- 13-S35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하계연수 (7/22~25)
- 13-S36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8/29)
- 13-S37 제2차 학교문화개선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9/9~10)
- 13-S38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워크숍 (9.13~14)
- 13-S39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트숍 (9/27)
- 13-S40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 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 13-S41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0/15)
- 13-S42 STATA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10/16)
- 13-S43 스티그마의 이해와 대응전략 (10/24)
- 13-S44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11/18)
- 13-S45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초안) 시범운영 결과 검토 워크숍 (10/25)
- 13-S46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11/14)
- 13-S47 한-중 국제세미나 (11/19)
- 13-S48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11/27)
- 13-S49 청소년 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1/26)
- 13-S50 RCY 미래전략 및 발전방향 탐색 (11/29)

- 13-S51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11/28)
- 13-S52 210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패널 데이터의 가중치 산출 및 활용 (12/17)
- 13-S5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12/16)
- 13-S5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2/13)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6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6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7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71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2호 :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유형 및 주거비부담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3호 :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4호 : 청소년참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5호 :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6호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7호 :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8호 :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9호 :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0호 :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7호 :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8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9호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0호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년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1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2호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2
연구보고 13-R15-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Ⅲ)
: 2013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인 쇄 2013년 12월 24일

발 행 2013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범신사 전화 02) 503-87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840-3 (94330)
978-89-7816-835-9 (세 트)